

동남권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동남권 공익활동가 50인의 또 다른 이야기

2020 동남권NPO활동가 아카이빙 기록집

동남권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동남권 공익활동가 50인의 또 다른 이야기

2020 동남권NPO활동가 아카이빙 - 인터뷰 기록집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 20조'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설립되었으며,

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공익활동가 50인의
또 다른 이야기.

동남권 공익활동가
50인의
또 다른 이야기.

목차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센터장 위정희

서초구

- 〈가배울〉 상임이사
김정희
-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정희선
- 〈벨류가든〉 전 대표
신은희
- 〈언론인권센터〉 본부장
김현옥
-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이종익
- 〈자원봉사협동조합 모아〉 대표
윤정경
- 〈여성장학클럽 홀씨〉 대표
고일식
- 〈한살림 남서울지부〉 서초지구위원장
이은주
- 〈창작마을〉 대표
김대현
- 〈모두의 거실〉 대표
남영주
- 〈내작은손으로〉 대표
백난숙

강남구

- 〈강남구청〉 자치협력관
박홍순
- 〈생명미디어센터〉 대표
최성주
- 〈강남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안수경
-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혜경
- 〈숲여울기후환경넷〉 공동대표
박상인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전 대표
김영란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 대표
김명신
- 〈강남마을넷〉 사무국장
김시홍
- 〈에코허브〉 대표
김소라
- 〈강남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정
- 〈두잉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장연주
- 〈앤스페이스〉 대표
정수현

송파구

-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근정
- 〈송파시민연대〉 운영위원
김현종
- 〈문화살림〉 대표
오택만
- 〈퍼스트페이지〉 대표
공유선
- 〈강남향린교회〉 담임목사
김경호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연
-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상임이사
최연수
-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유은진
- 〈(사)뽕큐〉 이사장
윤설희
- 〈즐거운가〉 상임이사
이운복
- 〈청소년 휴카페 빛소〉 대표
서민석
-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종현
- 〈송파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지선

강동구

- 〈강동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이화열
- 〈강동꿈나무학교〉 교사
최형숙
-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전 대표
박성식
- 〈함께강동〉 상임이사
이주현
-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대표
오금옥
- 〈장애여성공감〉 대표
이진희
-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 센터장
류양선
- 〈신나는여성 자갈자갈〉 대표
채은순
- 〈초록바람〉 전 대표
문영란
- 〈함께강동〉 전 이사장
송문식
- 〈청년아지트 강동팻〉 대표
이진영
-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대표
정가람
- 〈천호프로젝트〉 대표
조기옥

동남권 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 위정희 센터장

제 주변에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정부, 기업을 견제하는 시민사회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은 공공과 시장, 시민사회 영역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 변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정은 물론 임금체계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 위정희 센터장

공익활동가들의 성장과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현장 활동가

Q : 센터장님께서 공익활동을 해 오셨던 과정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대학 때는 80년대 후반 학번들이 그랬듯이 독재 권력 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 직후부터 현재까지 시민사회 활동 중입니다. 1991~2011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민사회 의제 형성 및 정책대안 수립과정 등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제를 형성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저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시민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경실련 이후 시민성의 가치기반 형성의 한 테마인 나눔, 박애(필란트로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권 존중과 공존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나눔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였고 이러한 지향점의 사업들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엮어내기 위해 2013년부터 나눔교육센터 센터장을 맡아 전국에 나눔교육사분들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지원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 서울시NPO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로 활동하며 현장시민운동과 시민사회 공익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선배들과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Q : 지금도 활동가라고 하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활동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A : 넓게는 비영리영역에서 혹은 시민단체에서 상근을 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데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언제나 나서고, 문제를 진단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까지 고민하는 사람. 물질적 대가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는 곳, 그 현장을 '사회가치 기반' 일터, 삶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활동가입니다.

Q : 동남권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지역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A : 2014년 즈음부터 시민단체 활동과 풀뿌리자치, 분권 활동을 하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거주 활동가들이 지역고민을 시작하였고, 모임과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커뮤니티허브공간(이하 공감)'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면서 동남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함께 모였던 지역 활동가들이 민주시민교육 'goodcitizenship' 과정을 개설해서 함께 공부하고, 동남권역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갔던 과정이 있었는데 도시 빛과 그들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더 들여다 보며 동남권의 특징적 의제를 발견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나눔교육센터의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지원받아, 동남권에서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가치교육 등 시민교육을 통해 연결하고 협력하는 활동가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감'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며, 마을공동체나 협치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공감'의 운영위원과 이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우선 동남권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고, 자원봉사, 환경, 생협, 노동, 마을, 자치구 감시 등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교육, 책읽기, 공동육아, 마을카페 등의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만나면서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의 지원필요성에 공감하였고 2019년에 서울시의 권역별 NPO 지원센터의 설치가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자연스럽게 동남권NPO지원센터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습니다. 그 기반은 2018년 서울NPO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동남권 NPO 활동을 파악하는 현장활동가 FGI, 현장조사, 워크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의 성과로는 서울동남권 지역 활동을 넘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나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참여,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연대활동 등을 했습니다. 동남권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전히 '공감'의 주된 활동입니다.

**Q : 동남권지역의 활동들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센터장님의 공익활동의 지향점은요?**

A : 제가 모든 활동의 특성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동남권 지역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이미 모두가 알듯이 격차가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부의 상징' 지역이라는 키워드로 보는 시선이 특징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어렵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이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든지, 부의 집중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강남·서초와 강동·송파도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송파는 88올림픽과 함께 형성된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강제이주, 철거의 문제, 열악한 노동시장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 단체들은 애드보커시 성격의 활동도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공부방, 취약계층집수리 등취약계층 현장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유형을 가집니다. 그리고 생애기별 활동의제 참여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비슷한 연령대의 공동육아, 독서모임, 자원봉사기반 모임들을 통해 조직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지원의 방향 등을 통해 더 긴밀한 조직으로 변화합니다. 물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더 확장해 나아가다 공동공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마을 책방,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등으로 규모를 갖추게 되어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사무실 운영과 조직, 조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의제별 관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본인의 관심사, 취미 등이 지역과 마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생활 주변의 의제에 집중하는 활동에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성백제문화이해모임, 명성산지킴이, 양재숲시민모임, 탄천생물다양성모임, 성내천사랑모임과 같이 내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동남권NPO지원센터도 단체 몇십 개 더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변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을 과제로 삼습니다. 다만, 이번 동남권NPO아카이빙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조직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가로서의 지향점은 제 가치의 기반이기도 한 경실련의 취지문에 명시되어기도 한 '일반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참여하는 사회개혁 운동'의 모색입니다. '분배 5개년 계획, 분배 10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이뤄내는 일'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운동. 그것입니다. 시민사회공익생태계가 단단해 진다는 것은 '자유, 평등, 민주'의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관심 있는 의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적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공존의 의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Q : 동남권에서의 임팩트 활동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저는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경실련활동을 통해서도 정의로운 사회기반을 위한 시민력 증진을 위한 가치기반의 형성을 배웠고, 이러한 활동 지향점은 사회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존적 나눔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통해 동남권 시민들과 나눔교육 모임을 만들었고, 민주시민교육의 참여형 기반인 '시민정책가' 워크숍을 통해 평등, 인권 등의 인식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 내었고, 지금은 이 분들이 사람과 의제를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동남권 지역에서 커뮤니티허브공감이 만들어지고 단단해진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3년, 2014년에는 서울시의 강남 제2시민청 조성 과제가 단초가 되었어요. 학여울역 인근에 계획했던 강남시민청은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형을 만들어 내는 데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를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 여러 부문의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해갔으며, 민주시민교육 과정인 'good citizenship'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비록 강남구청장의 행정소송으로 강남시민청이 백지화되어 '시민청-공간'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주체들이 구체화되고, 네트워크가 단단해 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남권NPO센터도 이러한 '커뮤니티허브공감'의 성과 기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도 공감의 초기에는 강남 지역 활동가들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한국자원봉사문화, 강남아이쿵, 한살림, 아름다운가게, 예코허브, 자활센터가 참여의 핵심이었습니다. 점차 서초지역은 벨류가든과 활동가들이 송파는 퍼스트페이지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복지관,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생협 등 동남지역에서 함께 할 단체들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특히 2018년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서초-강남-송파-강동 4개의 자치구가 함께 가능한 네트워크는 있는지, 어떤 연결이 필요한지 변화와 흐름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동남권 NPO현황조사'를 하면서 강동의 청년그룹과 협업하기도 하고, 송파 지역활동가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허브공감은 '동남권npo지원센터'를 통해 동남권의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많은 단체활동가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공익활동가로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서로 연결하여 의제와 사람이 모두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생각입니다. 더 촘촘한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_2021그린매거진 2021.02.09]

가배울 | 김정희 상임이사

가배울 | 김정희 상임이사

토종 먹거리와 문화예술을 지키는 살림여성활동가

**Q : 30여년간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활동의 여정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1984년 이화여대에서 석사를 시작했는데, 당시 인천 만석동에 지역 공부방 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대학 선배가 공부방 대표였던 것이 인연이 되어 자원 활동을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여성학을 공부하며 1991년부터 93년 말까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창립멤버이자 운영위원을 하며 상담도 했어요.

아이를 기르는 생활인으로서 부모 중심의 보육운동에 관심이 생겼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성장시키고 싶어 95년 10월경 우면동 지역 부모님들과 공동육아 튼튼어린이 집을 만들었어요. 이후 과천으로 이전했다가 98년도에 다시 우면동으로 나와 ‘함께 크는 어린이 집’으로 재개관시켰고, 99년 11월까지 사단법인 공동육아연구원에서 부원장을 맡았어요. 같은 해 한국여성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2009년까지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여성환경연대 운영 위원, 생협전국운영연합회 이사과 1공동체 운영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어요.

가배울은 2010년에 후원 회원을 모집하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2년간 연구 책임자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지역문화 확산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었어요. 10여 곳의 지역여성문화 컨설팅과 연구 평가를 하던 중, 여성국악인 ‘함 동정월’의 일대기를 연극화했던 프로젝트 컨설팅을 위해 전라남도 강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강진을 자주 찾게 되며 남도의 자연과 오밀조밀 어우러진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이런 지역에 노인 분들만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 답사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연간 10~15회를 운영했어요. 이것이 가배울의 첫 시작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찾았던 마을을 통해 토종농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3년부터 토종 살리기 운동을 비중 있게 진행했어요. 매달 제철 토종농산물을 보내주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고 공공 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토종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원해 왔어요.

임의단체로 출발한 가배울은 2012년 사단법인화 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농산물이 줄어들며 활동의 활력을 잃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강진 뿐 아니라, 이 곳 서초동 사무국에서도 경력 단절과 취약 계층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밥상 강사 양성 과정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 분들 뿐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양한 분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Q : 대표님께서 환경·생태 분야와 함께
문화예술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A : 저는 농사와 음식, 문화예술을 토종 살리기의 세 개 축으로 보고 있어요. 가배울의 처음시작도 농촌 마을 본연의 문화를 바라보기 위한 문화예술 답사로 출발했구요. 그 중 특히 남도의 강강술래는 토종 농사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농촌 공동체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저는 최고의 신명을 내는 이 춤과 문화가 잘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진에서 준비하고 있는 식당도 강강술래를 함께 출 수 있는 식당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Q :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우선 공동육아 활동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안전한 돌봄을 이유로 종일 실내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공동육아는 아이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활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공동육아의 이러한 야외 활동이 일반 어린이 집과 유치원으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자연친화적 보육과 공동 육아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보육 형태를 만들어 냈어요. 부모들이 이사로서 직접 운영에 참여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육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던 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공동육아 활동은 제가 ‘살림여성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인데요. 살림여성주의는 이분법적인 여성 차별을 넘으면서, 유기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지향해요. 제가 공부했던 여성학과 강진 할머니들에게서 만났던 삶 속에서의 실천이 모두 녹아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코페미니즘을 살림여성주의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지요.

그 후로는 가배울에서 진행해 왔던 다양한 활동들인데요. 가배울의 첫 프로그램인 여성주의 문화답사는 지금도 연 2~3회 전라남도로 일대에서 이어오고 있고요. 토종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과 연대하여 토종 씨앗과 농사, 토종 문화를 지키기 위한 식문화를 지속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마을밥상 여성강사를 육성하고, 장사의 '장'자도 몰랐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서 농민들과 다양한 토종 농산물을 발굴하고 상품으로 개발해 유통도 시작했고 9월에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어요.

Q : 강진에 계획하고 계신 식당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세요?

A :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토종식당이 생기기 시작해 현재는 1500여개까지 확대되며 토종 농산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러한 토종식당이 하나도 없어 모금을 진행하며 강진에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예약제로 토종 음식을 제공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문화유산답사도 하고, 주말에는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식당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반기 오픈을 위해 준비 중인데 이 식당을 안착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예요.

Q : 연대와 협력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이 지역에서는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대표 단체로 활동하며 서초넷의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서초단오축제에 참여하며 연대활동을 통해 가배울을 알려가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서 토종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 해남, 횡성, 장흥, 봉화, 강진 등의 생산자들과 거래하고 있어요.

Q :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제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동의보감에서 음식과 약의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 사상이 있어요. 개량 씨앗은 다수확에 초점을 맞추는데 개량 식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에서는 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향이 영양소의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건강한 토종 먹거리를 보급해서 토종 농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강강술래와 같은 강진의 문화예술과 다양한 토종 식품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과제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토종 음식을 만들어 보며 관심을 갖게 하는 음식 교육을 통해 토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마을밥상 수료생 엄마들과 팝업식당과 즉석 식품 제조 사업 등을 해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구요.

장기적으로 토종과 토종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을 살리는 여성 사회적경제 주체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과제지요. 강진과 서초의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잘 엮어지며 수료생들과 다양한 토종 먹거리 연구와 교육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몇 년 더 고생하고요. 여유있게 사적인 삶과 가정을 챙기며,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글 쓰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의 이러한 활동들이 글 쓰는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Q : 올해 출범한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가장 좋은 교육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깊이 있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의 기록을 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에서는 일생 동안 평균 1개 이상의 NGO 활동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직장 인간으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인데 이러한 삶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시민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균형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사회를 위해 시민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한국자원봉사문화 | 정희선 사무총장

한국자원봉사문화 | 정희선 사무총장

시민을 리더로 성장시키는 자원봉사

Q :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대학생 시절 서울 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어요. '우암'이라는 서클에서도 활동했는데, 독서 활동이나 공명선거 운동 등을 주로 했었죠. 그러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부산에서는 남편이 YMCA에서 일했는데, YMCA 시민사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저희 단체 창립 멤버이신 이강현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자원봉사 운동을 하려고 실무자를 찾고 있었고 YMCA에서 저를 소개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강현 회장님과 <한국자원봉사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함께 만들고 91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 해에 삼성이 삼성사회봉사단이 창단하면서 제가 함께 일하게 되었고 95년부터 4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신인 <볼런티어 21>에서 2000년도부터 일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볼런티어21에서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게 되어서 6년간 파견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하게 되었어요.

Q :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셨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지속해오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원봉사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A :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일하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시민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민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중에 자원봉사가 가장 대중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Q : 자원봉사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A : 네, 맞아요. 저희는 그것을 '주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갖게 되면서 서서히 리더십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봉사자로 시작해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봉사자가 활동을 단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를 만드는 일을 지원했어요. 예를 들면 간담회를 열어서 봉사자가 의견을 직접 내고, 정책 결정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도 봉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리더를 정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리더가 성장하면 더 큰 동아리의 리더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또 기존의 봉사자들이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리더 운영 규정에는 자원봉사 리더가 그 역할을 가급적 1년 이상 하지 않게끔, 그리고 2년 이상은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성장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리더로 머물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봉사자가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미 성장한 리더는 발전이 더디게 되잖아요. 성장한 리더들이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센터의 스텝이 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 프로세스를 '자원봉사 리더 재생산구조'라고 부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도 변하고 봉사자도 동시에 성장하는 거죠.

Q : 활동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시나요?

A :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 자신의 재능을 봉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러한 활동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술의 전당에 '브런치 콘서트'라는 게 있었어요. 브런치 콘서트에서 봉사자가 관객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원봉사팀이 관객들에게 프로그램 전단을 나눠주고 또 안내하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서초지역에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봉사자들이 여기서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또 외교안보센터 내에 영사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이 사건, 사고를 당했거나 민원이 있을 때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그 영사콜센터에 안에 홍보하는 봉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사콜센터에 어떻게 연락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는 전단을 만들거나 기타 다양한 홍보 일을 센터와 봉사팀이 함께 했죠. 그리고 가정법원에도 봉사팀이 있어요.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 서식 같은 걸 작성할 때 처음에는 낯설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방문자들을 돕고 안내하는 활동을 만들었죠.

영사콜센터나 가정법원 같은 공공기관에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외국의 경우, 박물관 같은 곳에 봉사자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구요.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공공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시민들이 봉사를 통해 보완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는 곳곳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고, 그것을 프로그램화하는 걸 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술 관련 기관으로, 또 법률 쪽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법조계로. 그리고 홍보 쪽이나 외교안보센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시민이 자신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개발해서 만들어주고 참여하게 하면서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Q : 최근에 활동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의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 최근 저희 단체가 관심을 갖는 이슈는 미세먼지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관심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전에는 구글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를 검색해보면 항상 1위가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만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든지 아주 소극적인 대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작은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큰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하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나 공원에 나무 심기를 진행했어요. 또 미세먼지 저감 식물 화분이나 벽면을 장식하는 모스(이끼) 제작 키트를 만들어서 개인이나 소그룹, 전체 그룹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보급했어요. 키트를 신청해서 완성품을 만든 후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구요. 사실 미세먼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에너지 사용이거든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틀기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화분들도 집에서 쓰던 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종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핑’, 즉 지도 만들기 작업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미세먼지가 어디가 심각한지 측정하고 측정에 따른 개선도 하면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줘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부하고 그만큼을 본인이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움직이도록 하고 저희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하고, 공감하고, 개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모두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의 경우 작년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컨설팅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는 식으로 지원했어요. 올해는 서울에 있는 5개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파일럿 테스트해 보고 있어요. 서초, 성동, 노원, 영등포, 은평 이렇게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각 구의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으로 주민들과 결합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두잉두잉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관련 활동 그리고 실천 키트 목록 등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죠.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클릭해서 바로 할 수 있게 연결해 주고 있어요.

Q : 교육 분야도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주력하고 있는 이슈죠?

A : 교육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서열에 의해 자기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키워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찾아주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진로 사람책’인데요. 현업에 계시는 분이나 예전에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책이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그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소그룹 단위로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진로 사람책 목록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사람 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주력 사업에 따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교와 학생들이 연결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C화장품 회사가 진로사람책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용 분야랑 관련된 고등학교랑 매칭을 해서 임직원들이 청소년들을 만나 직업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강의 형식보다는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실제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을 사람책이라는 이름으로 축적시키고, 학생들은 사람책을 통해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되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는 교육부와도 연계해서도 활동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Q :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이슈, 현상을 늘 관찰하시고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A : 그렇죠. 끊임없이 욕구를 파악하려고 해요. 신문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함께 하는 봉사자들에게도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설문지를 다 돌려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논의도 하구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시민의 역할이 각각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협업이 잘 돼야 하죠. 저는 그중 시민 영역에서 시민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을 자원봉사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혁신의 한 주축이 자원봉사라는 거죠. 이 영역 안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파일럿 테스트를 해 보는 거고, 또 확산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자기주도성을 촉진해 사회의 리더를 양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하려고 해요.

Q : 올해 출범한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동남권 4구를 아우르는 의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권NPO지원센터가 이 권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인 주제의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과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양재천 가꾸기는 서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과천에도 걸려있는 큰 의제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각자의 부분만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뉘는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남권NPO지원센터에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를 다 해결한 다기보다는 모델을 제시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파일럿 활동이라고나 할까요?

또 동남권에서는 각종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단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기존의 단체들을 연결해 주고, 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요. 단체나 활동가가 개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작은 의제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체들이 센터가 있어서 좋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요.



밸류가든 | 신은희 (전) 대표
(현)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벨류가든 | 신은희 (전) 대표 (현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대화와 모임으로 함께 키우는 민주주의의 정원

“자원봉사 활동가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건강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활동이 벌써 7년이 되었다. 벨류가든의 신은희 대표(현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는 1993년 자원봉사 지원조직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한계가 어렵듯하게 느껴지는 지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Q :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원봉사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A : 자원봉사는, 시민이 꿈꾸는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제도화되면서 시민이 자신이 생각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누군가에 의해 제안된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요.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일상의 삶과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까?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하신 봉사자의 일상이 친환경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그 지점이 내 아이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바꾸고 있을까?

Q : 어려운 문제네요.

A :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처럼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건데요, 때로는 현대인의 삶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좀 버거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엔 국민들이 무보수의 노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 관심은 꼭 자원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좋은 시민으로 자기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있어요.

Q :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벨류가든’이라는 틀에서 진행되었잖아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자원봉사 활동가를 하면서 여러 봉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이지만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민성이 크지 않은 분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치 대의명분 같은 정답은 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이게 저에게 위기로 인식되었어요. 동네에 삶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 충분한 소통의 기회와 공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의문이 생겼어요. 많은 대화들이 마음을 나눈다기 보다는 겉돌고,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기에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아요. 벨류가든은 이런 상황에서 대화모임을 열어갔어요. 이런 대화모임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목했던 건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모임과 배움의 자리였어요. 문화예술은 그 안에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속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나의 다름이 문화예술에서는 콘텐츠의 풍부함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문화예술콘텐츠로 자기를 설명하면, 서로가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질수록 더욱 풍성하다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안전하게 자기를 설명하는 주제와 이슈를 만나는 거죠. 처음(2013년)엔 반포의 창업지원공간에서, 그 다음(2014년~2019년)엔 방배에서 그리고 지금(2020년)은 양재에 자리를 잡았어요.

Q : 벨류가든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A : 2013년에 창업공간을 쓸 때는 업무를 하기엔 좋았지만 모임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어요. 다른 장소를 빌려서 모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남지 않았어요. 아지트 같은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배에 공간을 열었어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모임들을 하고, 함께 밥도 먹는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었죠. 인문 공동체 같은...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만나고 싶은 작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활동을 할 때 지역주민도 많이 왔지만, 벨류가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활동가나 기획자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주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른 현장에 적용하고 싶다는 제안도 줬었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활동가와 진행자들을 만났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분들이 벨류가든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벨류가든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의 감수성을 서로 배우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벨류가든이 조금 더 실험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지금 양재에서 ‘책방, 책 읽는 정원’으로 재구성되었어요. 우연히 1층 공간에 책방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벨류가든이 만났던 사람 중에서 책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오픈했어요.

**Q : 벨류가든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3개만 선택한다면요?**

A : 우선 '대화의 식탁'이 있었어요. 낮선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낮선 사람과 만나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식탁이라는 이름이지만 식사를 하진 않고, 대화를 돕는 메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익숙했던 대화의 한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솔직하기 어렵고, 여럿이서 대화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대화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이들과의 대화는 기회조차 만들기 어렵고요. 대화의 식탁이 이런 부분을 보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주의자의 도시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요즘 1인 주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개인이 온전히 자기로서 살도록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자의 도시캠프'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닌 모습 중에는, 내가 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혼자 주거하는 분들 모여서 1박2일 캠프를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밥은 먹는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엔 참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유연하게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됐어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 저녁 식사 후의 대화모임 하나이고, 나머지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안내 정도였죠. 어딘가에 혼자 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선 일단 같이 있긴 한 거예요, 다만 대화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고, 이 측면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벨류가드너 학교'가 떠올라요. 벨류가든이 8년이 되었는데,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진행자로서의 태도, 내 태도로 보여주는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감각화하는 감수성 교육이에요. 벨류가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사람들이 공존하는 안전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진행자로서의 감수성을 함께 만드는 거죠.

**Q :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벨류가든이 남긴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 글썽요. 동네를 기반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 우리 프로그램이 동네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콘텐츠의 퀄리티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주민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나는 걸 좋아했고, 이 공간이 일상 속에 있으니 더 많은 여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시 실험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벨류가든의 문화를 만든 것도 성과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일을 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들,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바꿔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지역에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의 등장을 벨류가든이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책방, 책 읽는 정원'의 대표 책방지기도 벨류가든의 대화모임 진행자로 역할을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원래 역량이 출중했던, 동네의 숨겨진 보석들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일했다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Q : 걱정 같은 건 없으세요?

A : 요즘은 무엇이든 좋은 것들은 잘 확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카피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로 전달이 안되는 지점들이 흉내만 내는 식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해요. 벨류가든은 대화의 모임에 존재하는 문화나 진행자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진행자의 태도는 모임 속에 있는 다른 이의 불편을 감각해야 개선할 수 있는데, 활동가로서의 예민함 같은 부분들은 쉽게 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벨류가든의 프로그램 중 '벨류가드너 학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어린이나 성소수자, 여성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잘 듣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감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초대하지도 않았고, 초대를 한다 한들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복제하려고 하기보다, 이런 일상의 민주주의를 감각하는 감수성 교육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Q : 벨류가든, 혹은 선생님의 '비전'이 있다면요?

A : '책방, 책 읽는 정원'은 함께 살기 프로젝트예요.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해보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의 그 의미 자체를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보는 거죠. 시민참여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경험하기 어려울 때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벨류가든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일단 좋은 경험을 하면 그 기억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려고 애쓰곤 하죠.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벨류가든은 이런 구체적인 현장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민들에게 토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토론은 이벤트에 가깝게 진행되곤 하죠. 안전한 토론이 일상이 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삶의 일부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갖게 하는 것. 잘 사는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좋은 경험을 어떻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만들게 도움 것인가가 벨류가든의 비전이자 고민입니다.



언론인권센터 | 김현옥 본부장

언론인권센터 | 김현옥 본부장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미디어’로의 발걸음

Q : 미디어인권이란 무엇인가요?

A : 기본권의 하나로 우리 모두는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단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수단이에요. 각자가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와 인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어요. 각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미디어는 주로 정보를 전달해요. 정보를 주고 받는 이유는 그 정보가 사람과 공동체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 갈등에 관한 이야기,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아내요. 즉, 사람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향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Q : 미디어 인권의 현 실태는 어떤가요?

A :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요. 가짜 뉴스(허위정보 유포), 음모론, 불법 촬영 공유 등 이런 이슈들의 공통점은, 사용자들이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일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급격이 커졌어요.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훈련받은 기자가 사실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수 차례의 팩트 체크와 데스크킹을 통해 선별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죠. 반면 일인 미디어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검증 과정 없이 내보내죠. 사실상 이들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가까워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그 일인 미디어는 빅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아주 크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는데도 별다른 의심이나 판단 없이 수용해버려요.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소수자, 여성,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더 커지게 되겠죠.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해요. 사회의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 불안 요소들에 의해 국민들이 극단적인 뉴스들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런 심리적 요인을 자극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일인 미디어 매체의 수익 모델 때문에, 일단 빅마우스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겠죠. 게다가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면서 사람들은 편향적인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니 미디어는 사실상 고립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했죠.

Q : 정말 심각하네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A : 나의 표현의 자유는 상대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돼야 해요.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표현들이 오갈 때, 이를 비판하고 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제가 볼 때, 한국의 미디어 이용자들은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혐오 발언은 공격성을 가짐으로써 쌍방간의 소통이 이뤄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서로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건 미디어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Q : 미디어인권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해 보여요.

미디어인권 교육의 현황은 어떤가요?

A :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해요. 사실 저절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하죠. 미디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는 미디어인권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수의 집단에서만 교육을 진행해요.

미디어인권 교육은 시청자재단, 언론진흥재단, 여성가족부, 인터넷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화진흥원, 지자체가 각각 진행했어요. 부처 간 소통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했죠. 현재는 미디어인권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어려워요. 재원이 마련돼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말이죠.

MB정부부터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미디어인권 교육 지원 역시 축소됐어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유일하게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소외계층이었고, 미디어인권 교육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쉽터 거주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어요. 물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미디어인권 교육이 매우 중요해요. 소외와 고립의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어를 통한 소통 경험은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요.

2019년에는 서초구 지역 기반으로 구청과 함께 <서초 청소년 저널리즘 스쿨>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서초구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지형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했고,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의 충돌 지점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죠. 요새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진 않았나, 혐오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Q : ‘미디어 교육법 추진위원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시죠?

A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2007년부터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2017년 본격적으로 추진위를 출범하고 법안 마련, 정책 제안, 공익 사업 추진 등 추진위 활동을 넓혀가고 있어요. 현 교육부 유은혜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위와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마련을 위해 함께 하셨어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의 개념을 수용하고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역량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참여, 접근 기회 강화, 높은 수준의 미디어와 정보 처리 능력 향상, 사회 규칙 준수 및 행동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미디어교육이 보편적 교육으로 전환돼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해요.

Q : 노인 대상의 미디어 인권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계세요. 노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요? 가능한 걸까요?

A : 6-70대 분들의 유튜브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30년 넘게 조간신문을 보고 9시 뉴스를 꼭 챙겨보시는 것이 일상이고 습관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대다수가 신문과 뉴스가 아닌, 유튜브의 구독자로 전향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유는 정부와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는 공감가는 말만 해주다보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늘어난거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인권 교육 역시 아주 시급해요. 그런데 일부 노인들은 배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사실 미디어인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숙지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미디어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고, 기능과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미디어는 노인을 더 고립 시킬 수도 있고, 사회와 더 융합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미디어의 본래 기능은 더 나은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노인들이 미디어를 새로운 경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이 필요해요.

유튜브로 얻은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려야 해요.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가 기존의 매스미디어(뉴스, 신문)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고 알려드려야 해요.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를 유사한 성향의 유튜브에서 확인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죠. 유튜브에서는 자세히 다루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면, 정보의 사실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판단을 유보해야 해요. ‘판단 유보’도 시청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돼요.

Q : 노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란 어떤 모습일까요?

A : 박막례 할머니의 성장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도 영향력 있는 스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구글이 유튜브 시장을 키우고 있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박막례 할머니는 유튜버로 도전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70대에 들어서면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막 살아보기'를 시도하셨죠. 할머니의 여러 가지 도전이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됐고, 남녀노소 모든이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 되었어요.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갈수도, 반대로 닫힌 공간으로 나아갈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Q : 남은 한 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디어인권 교육이 보편적 교육이 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노인 대상의 교육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요. 노인분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돼요. 올해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으로 노인 대상 교육을 준비중인데,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어요. 비대면 교육을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 중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시도할 계획이에요.



푸른나무재단 | 이종익 사무총장

Q : 푸른나무재단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NPO든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존재하는 곳이지요.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곳이기도 하죠. 연구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 문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비영리조직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연구하고 알리며, 교육하고 문화활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예요. 인식개선활동, 장학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오랜 시간 진행하고 있어요.

푸른나무재단이 25년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을 크게 낮췄어요. 1995년에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재단의 이름을 처음 작명할 때 ‘학교폭력예방재단’이라는 말이 용인되지 않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 정해졌던 것에도 같은 이유였어요. 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하는데 앞장섰고, 2001년부터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현황과 이슈들을 연구해오고 있고 이 실태조사가 국내 학교폭력현상의 가늠자가 되었죠.

2004년에는 47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주도했고 학교폭력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발생 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었죠.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는 CCTV 설치,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매년 1회 이상의 예방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등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조차 용인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방안들을 꾸준히 제시해왔죠. 개념을 구체화하고,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달려왔어요.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 재단을 없애자’가 우리 재단의 목표였어요. 이 한 가지 목표로 하향 그래프를 만들어냈다고 봐요.

Q : 2014년 이후, 그래프가 다시 증가하는데요?

A : 네, 증가하고 있죠. 학교폭력의 유형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24년 전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모습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중심의 폭력이 심각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 주목할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폭력이 더 심각

푸른나무재단 | 이종익 사무총장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지역을 살리는 활동가

Q : 사무총장님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푸른나무재단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NPO의 일원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지난 25년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변화에 힘쓰고 있지요.

제가 청소년이라는 세대와 접점이 생긴 것은 IMF 이후였어요. 행정 장교 경험과 민간 기업에서 경영지원을 담당하다가 IMF 기점으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제가 처음 만난 비영리단체였어요. 스스로넷의 운영법인인 푸른나무재단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특별한 사연의 청예단 설립자를 만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지요. 40대가 되어서야 청소년학 전공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대학원을 다녀왔어요.

이후 비영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NPO경영학교, 아산프런티어 아카데미 동문회장 및 N포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NPO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한 비영리 전문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대학원에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과목으로 차세대 비영리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 마을 활동을 해보려고요. 결국 모든 비영리 사업과 기업CSR, 정부사업은 마을의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마을로의 귀환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종익입니다.

해졌어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시 충분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문화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재단은 현 시대에 적합한 방법의 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줄여나가고자 해요. 가장 먼저,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정보 통신 윤리교육, 인성/시민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재단은 카카오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의 일환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전문 강사를 통해 올바른 디지털 시민교육을 받도록 전문 강사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삼성 5개 전자계열사가 참여하는 '푸른코끼리'사업을 시작해요. '푸른코끼리'는 전국 초, 중, 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이에요. 상반기 콘텐츠가 구성되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Q : 청소년들의 창업도 장려하고 계세요. 학교폭력 예방/대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A : 창업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진학, 취업 그리고 창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창업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푸른나무재단에는 매년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아 법정 의무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하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수백명이 방문 합니다. 재단에서는 수강명령 청소년 교육의 하나로 메이커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기술을 교육하고 경험하게 해서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꿈'이 생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꿈에 집중하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3D 프린트가 소개되지만,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곳은 아직 많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아이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20년 전 스스로넷에서 근무할 때 만난 아이들이 지금 사회에서 멋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어요. 스스로넷은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 그 기술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할 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스스로넷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고등학생 때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작품성을 인정받아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어요. 이후 10년간 뮤직비디오 제작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 지금은 유명한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감독으로 성장했어요. 그 친구가 최근 인터뷰 영상에서 "스스로넷은 내 인생을 바꿔준 곳이다. 스스로넷은 나에게 대안학교 같았다. 꿈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는 거점 공간이었다. 스스로넷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사례가 푸른나무재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4차 산업 혁명, AI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등 미래 지향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문기관, 대학들과도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활동가들이 직접 익히고 알아야 청소년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새로운 폭력의 유형이 등장할 수 있고,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나 상담해야하는 시대도 올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게 있어요. 비영리단체로써 기술이 필요해서 배워야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술은 수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NPO는 빅 데이터를 가진 곳이에요. 아무리 AI가 데이터를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폭력에 관한 데이터에서는 푸른나무재단이 단연 최고의 전문가죠. NPO가 기술을 만나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NPO를 만나야 따뜻한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Q : 서초 지역 중심으로도 활동이 많으세요.

A : 네. 푸른나무재단은 서초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지부는 전국에 있고요. 푸른나무재단은 서초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규모 있는 재단이 작은 시설들까지 직접 위탁 운영 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목적은 분명해요.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더 강화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나무재단은 구립 방배유스센터, 교육청 산하 서초교육복지센터, 여가부 산하의 상담복지센터, 서울시와 서초구 산하의 창업카페를 모두 운영합니다. 이 기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청소년라이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상위 기관이 모두 달라요. 한 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상위 기관의 사업을 각자 실행하다보면 연대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워요. 네트워크 자체가 잘 안되기도 하죠. 하나의 운영주체가 시설들의 벨트가 되어 협력지점들을 같이 찾아가는 형태의 모델을 시험해 보고자 했어요. NPO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연대의 현장에 가보면 길도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지역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성을 더 높일수 있을거 같아요. 한편 그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NPO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더 깊게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Q : N포럼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비영리 조직간의 교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A : NPO들은 각자 다른 사회 이슈를 다루지만, 일을 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 문화와 플랫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요. 각자 주제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전 각 NPO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고, 심각성을 알렸으며, 어떤 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는지, 교육과 문화는 어떻게 확산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봐요.

저는 현재 NPO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고 있어요. 푸른나무재단이 학교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는 어떤 곳보다 전문적일 거예요. 또한 수많은 현장 사례를 보유하고 있죠. 우리 재단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산이기도 해요. 검증된 사례를 지역과 사회에 확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NPO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한 지역에 소재했다면 그 교류의 가치는 더 클 수 있어요. NPO의 활동이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든 모든 자원과 노력이 바뀌는 건 결국 어떤 지역이고 마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개인 또는 학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한 동네 아이라는 점, 지역 주민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다는 점 등 이 사건의 무대는 지역인 셈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지역을 위한 NPO의 역할이자 책임이 아닐까요. 서로 자원을 연계하고, 사건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연대와 교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Q :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제가 있다면요?

A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NPO의 걸어야할 길이 무엇인지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사업이 주로 교육, 상담이 많은데, 대면이 꺼려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야할지 많은 NPO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푸른나무재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방부와 함께 10만 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군인도 미래세대 중 일부기 때문이죠. 100여명의 전문 강사들이 매주 군 부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진행해요. 이 교육 사업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NPO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재무적 가치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윤 창출에도 성공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하죠. 저는 NPO도 이런 자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듯하지만 이런 모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 학교폭력예방의 효과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 전문가, 교안 제작자, 전문 강사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이런 사례도 NPO의 공유가치창출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을 위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연결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시대 NPO들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협동조합 모아 | 윤정경 대표

‘사회복지사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 참가를 계기로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원봉사 분야에서 국제교류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로 국제교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고 생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볼런티어21 (현 한국자원봉사문화)>을 설립하신 이강현 박사와 함께 일하면서 국제 협력의 범위를 많이 넓힐 수 있었고 해외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지요.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넘어,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도 확대해나가며 자원봉사의 좋은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기획하기도 했었죠.

자원봉사 협동조합 모아 | 윤정경 대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현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가

Q : <자원봉사 협동조합 모아(이하 모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모아는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참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2017년 창립된 단체로 시민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컨설팅,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240여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중 25개는 서울에 있어요. 각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들과 협업하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센터마다 관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그만 두면 경력이 쉽게 단절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활동 현장으로 돌아와 자원봉사기관이나 시민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배들이 모여, 모아를 만들게 되었지요.

최근 활동으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 중, 고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청소년을 찾아가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모아>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매해 자원봉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장 학습이 어려워져,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포럼이나 웨비나, 컨퍼런스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을 돕고 있어요.

Q: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2005년을 기점으로 공익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개해주세요.

A :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고 일하기 전에 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피로감이 쌓였고, 휴식기를 갖고자 회사를 그만 뒀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양재동에서 열린

Q : 자원봉사의 어떤 면에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A :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원봉사의 기본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원봉사의 궁극적 목표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성숙해져야겠죠. 즉, 개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사회적 변화, 국가적, 세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변화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준비되는 거죠. 그 미래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죠. 이 고민은 각자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사회, 국가로 확장되어야 해요. 시선의 확장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며 빈틈을 발견하고, 그 빈틈을 메우는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저는 이 개개인의 작은 습관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여유 있는 중년 부인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베이비부머 은퇴 시점인 2010년을 전후해서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계층도 다양화 되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지요.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자원을 가진 봉사자들이 ‘개인 중심의 삶’에서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Q: 활동가로서 경험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A :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단체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목표달성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자원봉사자와 협업해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단체간의 협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목표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에는 섬세한 연대가 필요한 거죠. 섬세한 연대일수록, 파워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민관협력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에 대해 독립적이기 어려운 환경이고, 재정의존도가 높다보니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많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봐요. 때로는 촘촘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유연성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Q: 요새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화두는 무엇인가요?

A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워진 가운데, 자원봉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직접 만나 대면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요. 대면의 기회 자체를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겠죠. 이 때, 대면의 방법들이 달라질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의 활용이나, 자원봉사의 규모 등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바뀔 것이고, 이런 변화를 위해 단체들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물리적으로는 언택트의 시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웃과 사회의 안녕함에 예전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성장학클럽 홀씨 | 고일식 대표

여성장학클럽 홀씨 | 고일식 대표

티끌 모아 태산 만들고
남김없이 나누는 활동가

Q : <여성장학클럽 홀씨>는 어떤 곳인가요?

A : <여성장학클럽 홀씨(이하 홀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홀씨>는 회원(383명)의 월 회비 1만원으로 전액 장학금지급과, 일일카페와 기증받은 책과 가방, 소품등의 알뜰매장 수익금으로 교복 지원활동과 운영의 자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홀씨>를 시작해 2007년부터 장학생을 지원했으니 벌써 어언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2019년까지 약 2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했어요.

Q : <홀씨>를 설립하시게 된 배경과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A : 저는 유년시절 극빈자였어요. 7남매 중 여섯째로,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의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강원도 영월이었으니 말 다 했죠. 불우이웃 1번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언니들이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6학년부터 방학 때마다 공장에서 돈을 벌어 학비에 보태며, 중.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늘 불우이웃 취급을 받아서 그랬는지 중 3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집안 사정이 어려운 와중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꼭 돕겠다고요. 그 꿈을 제 나이 40세에 이루게 된 셈이죠.

시골에서 들뜰처럼 살았어요. 잡초처럼요. 잡초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잘 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어디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홀씨 같은 삶'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의 이름도 '홀씨'라고 짓게 되었어요.

2006년 6월, 사춘기 방황하는 아들 방에서 홀로 장학회를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지인들에게 장학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더니, 10월쯤 감사하게도 42명의 회원이 모아졌어요.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점에 서주니 정말 기뻐요. 보다 체계적인 출발의 필요성을 느낀 남편의 도움으로 정관도 만들고, 구립 서초유스센터에서 창립회를 가졌어요. 지금은 회원이 380명 정도 돼요. <홀씨> 홍보를 특별히 하지도 않는데, 소문을 듣고 나눔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삼삼오오 모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르르 하는 다수의 참여보다, <홀씨>의 뜻에 진실 되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소수의 참여가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비록 1만원이지만 개인의 초심을 오래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홀씨>의 오래된 철학이기도 합니다.

Q : <홀씨>의 초심에 대해서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 : <홀씨>라는 장학회를 만든 이유는 공부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열고 싶은 마음 하나였어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거나, 장학생의 수를 최대로 늘리거나, 유명해 진다거나 등의 목표는 일절 없었어요. 어려운 형편으로 지내는 성품이 바른 청소년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고 싶은 분들의 정성 1만원의 마음을 모아 전액을 전달해 주는 일이 <홀씨>의 존재 목적이죠. 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자 해요. 회원의 다수가 주부인데, 주부들끼리 모여 정보교환이나 사교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은 단 하나,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그대로 전달한다'를 강조해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홀씨>만의 문화가 몇 있어요. 예를 들면, 임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할 때, 그 누구도 밥값을 대신 계산할 수 없어요. 누군가 밥을 사면, 빚진 마음이 들곤 하잖아요. 별 것 아닌 듯싶지만, 결국 접대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장학회 활동을 하다 떠나신 분 중에는 회장이 밥값을 안 내주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했어요. 장학회는 순전히 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해서는 금전이나 물품 등 직접적인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반대로, 회원들도 회장인 저에게 뭐가 배운 다거나 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셈이죠.

회원 분 중에는 회비를 더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금지예요. 돈을 더 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얽여 일일이 풀어낼 시간에 장학생을 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강남, 서초지역의 주부들이 많이 참여로 참여자 간의 위화감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에 주의하는 편이에요.

<홀씨>의 사단법인화도 금지했어요. 몇몇 회원들은 <홀씨>를 사단법인화 하여 사업을 더 키우자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일부 동의는 하지만 현재의 <홀씨>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눔을 하는데 굳이 사단법인일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나라 사업비에도 관심이 없어요. 국가의 돈을 쓰려면, 프로젝트명을 자주 바꾸거나, 수강생 만들어내기등 머리를 써야 계속 돈을 탈수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홀씨>는 환경도 살리고 땀도 흘려가며 스스로 운영비를

별자입니다. 이런 고집 때문에 <홀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렇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지만, 상관없어요.

Q: <나눔 북카페-홀씨책가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지 궁금해요.

A: 창립초기에 운영진이 사람들에게 <홀씨>를 소개하고 나눔을 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무실도 없이 일하시는 분 믿고 후원을 하라는 건가요? 회비중에 일부는 운영비로 쓰시는 거죠?” 였어요. 외부에서 볼 때, 사무실 여부가 후원에 대한 신뢰도에 관여된다는 사실이 슬프긴 했지만, 처음부터 돈이 없이 시작한 <홀씨>는 따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소비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밥값은 각자 알아서 내거나 저희 집에서 밥을 직접 지어 대접하면 충분히 임원회 의도 할수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안들이고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임원들도 이런 질문들이 난감했는지 창립 3년후 결국 4명 지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운영비를 회비에서 쓰지 않는 운영원칙 이였기에, 월세는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열심히 회원들에게 의류를 헌 옷을 기증받아 팔았어요. 부자들이 사는 강남 한 북판에서 시작한 재활용매장, 14년 전에는 많은 분들에게 무시를 받았어요.

헌옷 모아 정리하고 판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창립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옷 관리 인수인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에 쌓인 헌옷 먼지 통에서 온 에너지를 불사른 것 같아요. 그래도 헌 옷 사업은 계속 이어갔어요. 2009년부터 시작했고 2019년까지 지속했으니 10년이란 시간 동안 옷을 팔아 운영비는 늘 부족하고 조마조마하게 해결해 나갔어요.

<홀씨>는 일 년에 한 번, 카페를 운영하면서 당일 수익금을 교복 지원비로 사용했어요. 어느 해에는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더니 인기가 좋았어요. 부족한 운영비를 돈가스로 월세를 벌여보자는 의견이 있어, 그 때부터 6년 동안 수제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더니 수익이 좋았어요. 의류 판매금과 합하니 월세와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참 힘들게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어쩌면 그냥 8명이 5만원씩 기부하면 나올 돈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으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1박 2일 동안 모여서 고기를 다지고 돈가스를 만드는 그 마음을 모으는 것! <홀씨>는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결국 이런 봉사자들이 오래 남더라고요.

10년이면 숯장사도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홀씨도 운영이 자리를 잡으면서 먼지 통에서 일하던 봉사자들이 미세먼지가 많아지자 점차 자리를 떠나갔어요.10년간 헌옷 재활용 매장을 그만 닫기로 했죠. 장학회 성격에 맞는 물품으로 책을 선정하고 중고 서적을 3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운영비 보충을 위해서 가방과 소품 기증도 받고요. 그러자 책을 좋아하는 봉사자들이 하나 둘 모였고, 고객 중에서도 마니아 층이 생겼지요. 홀씨의 의류매장이 <홀씨책가방>으로 바뀌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가방은 부족할 정도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반면 책은 판매가 좀 더됐고요. 7평 남짓 되는 공간에 팔지 못한 책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다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분들의 사업장 내 미니공간에 책을 가져다 두고 곳곳에 헌 책방을 만든것이지요. 현재 서울 각 구와 수도권 을 중심으로 8호점까지 홀씨지점이 가맹되었고 운영 중에 있어요. 장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대표님들의 협력을 또 한 번 끌어올린 셈이지요.

Q : <홀씨>의 엄마로서, 기억에 남는 장학생이 있나요?

A : <홀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1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7년간 후원금을 받게 되요. 일 년에 두 번 씩 <홀씨> 봉사자들이 장학생을 찾아가 면담도 진행하죠.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장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회원으로 장학생을 위해 후원금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통화였지만 긴 여운이 남았어요.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길’이 결코 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Q: 리더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A: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가치 있는 일이죠. 때로는 심하게 고독하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초심을 지키고 나눔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에는 반드시 '채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작은방에서 시작한 <홀씨>는 이제 단단한 자생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어요. <홀씨>가 14년 동안 해왔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신적 가치와 성공 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개인 활동가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오랜 시간 <홀씨>와 함께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활동가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와 마인드에 대한 강의와 활동가 인큐베이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산을 만들고, 어떤 형태로 조직을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외로울 준비를 했는지'가 활동가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활동 배경, 환경, 시스템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결심한 일을 꼭꼭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홀로 고독함을 맞을 태도가 필요해요.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교육들은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저도 몇 번 참여해봤지만, 활동가가 아닌 학문으로 파고든 교수나 비영리 전문가가 하는 일반적인 교육들은 활동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제해결의 핵심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일을 한다는 사람들(특히 리더)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고독감과 두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와 닿기 마련이죠.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강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남서울지부 서초지구 | 이은주 지구위원장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나 다양한 먹거리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있던 '생명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생산지를 방문해 체험을 하고,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 밥 선생, 모듬 선생으로 함께 생산지에서 체험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생산지와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지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살림 남서울지부 서초지구 | 이은주 지구위원장

공존을 위한 먹거리 운동

Q : 한살림 남서울지부 서초지구장을 맡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A : 한살림 남서울지부는 관악, 서초, 강남, 동작구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서초지구에는 현재 28개의 조합원 모임이 있어요. 조합원들에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활동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살림 남서울지부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부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 전달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Q : 한살림 활동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A : 제가 원래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는 농활이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저도 시골에서 살기도 했고, 농촌과 연계한 활동에 관심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살림에 관심을 갖고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서초에서 활동하게 된 건 2019년부터예요.

사실 처음에는 나와 내 아이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먹거리에 대한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 모두가 건강할 수 있죠.

한살림은 바른 먹거리와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 새내기 조합원 모임을 열면 한살림 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수업도 하죠. 그리고 '한살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드리구요.

Q : 한살림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점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A :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나면 실제로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즈음에 국내산 옥수수과 밀가루를 재료로 옥수수 머핀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잘 몰라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식품 라벨을 보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국내산 옥수수와 수입 GMO 옥수수로 만든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죠.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하게 되면 평소엔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라벨지를 눈여겨본다고 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장 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중에 판매하는 된장, 청국장 등도 콩에서 기름을 뺀 탈지 대두를 사용한다는 것, 고추장도 찹쌀은 싸고, 고춧가루는 비싸니 라벨에 국내산 찹쌀이라는 말은 크게 쓰여있고, 수입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한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 그동안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부의 강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GMO, 수입농산물 이슈, 우리나라의 식량 조건, 우리나라 농촌의 상황 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슈를 알고 나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소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Q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 고민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A :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되죠. 요즘은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이 가능한 먹거리 쇼핑몰도 굉장히 많고, 햇반과 같은 간편식품도 많은데요. 이런 상품을 찾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편리성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조합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모임이나 교육에 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교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정보를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소모임 등을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알리려고 하죠.

Q :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A :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도 먹거리는 중요한 이슈예요. 서초지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신당동에 있는 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내일은 팔빙수 만들기를 할 예정인데, 우유도 직접 열리고 국산 팥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직접 만들죠. 평소에도 떡볶이나 쿠키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구요.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리 교실을 진행할 때는 생협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 물품들의 철학을 함께 이야기해요. 수입농산물이 왜 좋지 않은지, 공정 무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제철에 나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로만 요리해도 맛있는 먹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신기해해요. 이런 경험을 하면 다음에 먹거리를 구입할 때 좀 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철학으로 재배되었으나 판매가 저조한 먹거리 등을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 공동구매하기도 하기도 해요. 개인이 하려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Q : 먹거리와 관련한 선생님만의 철학이 있나요?

A : 흔히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내가 먹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음식에도 차라리 재료를 조금 비싼 걸 쓰더라도 수입농산물 안 쓰고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하려고 하죠.

Q : 지역에서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하고 계신 활동도 있을까요?

A : 서초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민거버넌스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가배울, 만을재, 한살림이 함께 팀으로 먹거리 분야 활동을 해요. 올가을에는 한살림이 주관하는 막걸리 학교를 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는 굉장히 싸지만, 대부분 수입쌀로 제조를 하고 사카린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식량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쌀 재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첨가물 없이 국내산 쌀로 막걸리를 함께 만들고 시중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한살림에는 논살림 팀이 있는데 논 생태 관찰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농약 뿌린 논과 뿌리지 않는 논의 생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려고 해요. 양재시민의숲 쪽에 논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행해요.

Q : 올해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A : 온라인장터, 온라인 요리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해마다 생산자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서초장터를 열었어요.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현장에서 장터를 직접 여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온라인 카페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되살림 장터를 상반기에 진행했고 수익금은 생산자 자녀장학금과 수해 피해를 입은 한살림 생산자를 위해 쓰려고 해요. 요리 교실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레시피와 함께 공개하고, 참가자들은 영상과 레시피를 보고, 김치는 직접 와서 가져가는 형식으로요.

직접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이 힘든 상황이지만 소규모로 아이들 요리 교실을 열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알리고 옥수수머핀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미니 태양열 전등 만들기도 키트로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만드는 법을 제공하기도 했구요. 얼마 전에는 화상으로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어린아이와 엄마들의 호응도가 높았죠. 텃밭 농사를 하시는 조합원에게 토종 씨앗을 나누어 주는 활동도 했어요. 하반기에는 막걸리 만들기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Q : 한살림 활동을 2007년부터 14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한살림 협동조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 조합원이 많아지고 매출도 많아지면서 영업 면에서는 규모가 커졌는데요. 다만, 예전에는 조합원 개개인의 충성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살림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한살림 제품을 소비하다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기도 하고, 새벽 배송이 가능한 먹거리 쇼핑물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죠.

그리고 햇반 같은 즉석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집에서 밥을 직접 한 후 냉동보관을 하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그 입장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수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돼요. 1차 농산물의 소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이슈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Q : 한살림이 지향하는 사회 변화의상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한살림을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지지기반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한살림에서 쌀을 사는 것이 단순한 소비가 우리 농부들과 농촌을 살리는 일인 거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귀농해서 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될 수 있을 만큼 농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농촌은 일도 힘들고 소득수준도 낮아서 쉽게 귀농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또 지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우리 가족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생활을 할 때도 공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하죠. 저는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나의 노동력을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에 기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마트도 조금만 시간 내서 직접 가면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배달을 시키죠. 자기 책임 아래 소비를 하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쓰레기 배출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낭비를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창작마을 | 김대현 대표

창작마을 | 김대현 대표

예술을 매개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 자치

Q : 창작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A : 창작마을은 1993년도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작가공동체로 출발했어요. 저를 포함한 극작가들과 또 순수문학 작가들이 글도 쓰고, 출판도 하고, 예술적인 주제에 대해 함께 대화도 하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예술 작업도 하지만, 외부의 산업부분에서도 예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그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즈음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내용이 할리우드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가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1백50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예술 산업 기반이 약할 때였으니까 함께 창작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후 서초구로 공간을 옮기고 2009년경부터 주민들 요청으로 서초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풍물과 택견 강좌를 동네에서 열게 되었어요.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마을 축제를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창작마을과 자치위원회가 MOU를 맺으면서 마을공동체 서초창작마을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저는 창작마을을 촌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2008년부터 마을 일에 관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을과 연계해서 창작마을이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Q :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A : 2012년도에 서울시가 방과후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 창작마을에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초청소년주말연극학교'라는 프로그램

을 처음 열게 됐죠. 예산이 다음 해까지 지속되지는 못해서, 연극학교 2, 3, 4기를 자체적으로 열었어요. 아이들은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잖아요. 교육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연극, 풍물, 택견을 배우고 지역 축제나 청소년 행사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했어요. 어린이청소년극단도 만들어졌구요.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요. 연극은 무대에서 함께 하는 약속이잖아요.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상대가 행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구조죠. 저는 연극이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힘. 공동체, 연대 이런 가치들은 연극과 마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서 협동합시다'라고 부러 말할 필요 없이 연극 한 편을 함께 공연하면 자연스럽게 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지위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수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무대에서 만나는 거죠.

어렸을 때 이곳에서 함께 연극을 했던 아이들 중에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공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번 연극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하죠. 청소년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올렸어요.

Q : 중독을 주제로 연극을 여러 편 기획하셨죠? 중독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A : 아이들이 담배, 술, 게임, 약물 중독 등에 취약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연극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대본도 써보도록 유도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담으려고 했어요. 함께 하는 예술 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또 치유했으면 하는 거죠. 폭력과 같은 이슈들도 아이들의 눈높이로 함께 다루면서 연극을 만들어가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문제를 말이나 설명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을을 기반으로, 그리고 청소년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실현하려고 해요.

Q :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과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도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A : 서초 2동에 있는 용허리공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해서 서초 창작마을이 예술 축제를 열었어요. 서초 어린이극단, 서초 청소년극단, 시니어극단 그리고 시민극단 솃대,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공연하는 합동 연극을 올리고, 또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 배우나 무형문화재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연했죠. 청소년 밴드들도 공연을 올리구요. 저희가 '솃대'라는 이름의 시민극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과 '삼태극 풍물'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초의 지역 축제에도 참여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예술로 풀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때 서초청소년축제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Q :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술과 어떻게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요?**

A : 창작마을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서초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서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안에는 약 300개 정도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교육 단체 등이 들어와 있어요. 네트워크 멤버들이 가치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에 늘 부딪히게 되는데 마켓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죠. '함께하장'이라는 장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결합해 주민 모임들이 만든 것을 판매하기도 하고, 서초구 벼룩시장에 나가기도 해요.

마켓은 사람을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물건을 팔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도 마켓을 열지만 사람이 모이고 만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저에게는 하나의 무대이기도 해요.

Q :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지금도 공간을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마치 누구나 오갈 수 있는 동네의 공원처럼,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요. 창작마을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만든 단체이기도 하구요.

저는 창작마을에서는 촌장으로 불려요. 마을에서도 촌장이 하는 역할은 어른으로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지혜를 전달하고, 예술을 통한 돌봄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각자가 가진 잠재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예술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나 각자의 예술적 관심에 따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고립감과 집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Q : 협치와 자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죠.

A : 예술을 매개로 지역에서 협치나 자치를 하고 싶어요. 행정적인 방식 말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협치와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치와 자치는 만남이자 민주적인 활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극 무대는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의 상호 간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마을과 닮아있어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자치와 협치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통해 사소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일상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짧은 연습만으로 일상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BTS를 보면 아이들이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아티스트들의 물과 철학까지 따르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단 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연극, 국악,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해요. 내가 직접 참여하든 관람자로서 함께 하든 뭔가를 경험하고, 보고, 느끼게 되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연극을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행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용하고 또 협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Q : 바라시는 사회상이나 지향점이 있나요?

A : 공동의 소유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것, 커먼스(communs)개념이죠. 사유재보다는 지역의 자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갈수록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유재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유재가 많아지면 환경도 망가져요. 예를 들어 개인이 차를 2대 소유하고 이용하면, 대기가 더 오염되는 거죠. 공기도 공유재인데, 차라는 사유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죠. 덜 소유한 사람은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였으면 해요. 공동의 것을 좀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진 출처_한겨레 2019.11.28]

모두의 거실 | 남영주 대표

모두의거실 | 남영주 대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일상에서 손에 닿을 수 있는 지역 활동을 지향하며..

Q : 대표님과 지역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2011년 '함께 크는 어린이집' 공동육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이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며, 마을이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 싶었어요.

2013년부터 조합원들과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네한바퀴'라는 동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지역 이웃들과 소통하며 마을공동체 공간에 대한 니즈도 생겼어요. 그래서 2014년 '함께사랑채'라는 공간을 대림상가 2층에 마련해 수채화, 발도르프식 그림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서예, 뜨개교실 등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국제컨퍼런스 주최할 자치구를 찾는다 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함께사랑채'와 공동육아 공동체의 롤모델이 독일마더센터였어요. 이 센터를 초청하고 싶어 공모에 신청했고 서초구와 저희 단체가 선정되었어요. 컨퍼런스 운영 방법을 고민하면서 네트워크 통해 진행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밸류가든, 별다방미스타, 마녀손맛, 미디어돌아봄, 가배울 등 지역 활동가들과 연대했어요. 이를 계기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느꼈고, 점처럼 활동하던 지역 단체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컨퍼런스를 통해 만나본 독일마더센터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들은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들을 보며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볼 수 있었지요. 여기에서 아이디어 얻어 '모두의 거실'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활동들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당시 지역별로 단오마당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서초구는 과천에서 포괄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서초단오마당을 진행하면 어떨지 제안을 했어요. 서초단오마당은 자발성이 큰 원동력이 되어 추진이 되었어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예산도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서초구에서도 홍보를 지원해주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가 되었어요. 특히 지난해에는 SH공사의 공모에 당선되어 우수상과 상금을 받게 되어, 올해 5년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되었지만, 상금으로 실뜨기, 컬러링 엽서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꺼리와 단오 레서피를 묶은 체험 꾸러미를 발송해 드렸어요.

이후 모두의 거실이 나비넷과 컨소시엄으로 마을생태지원단 중간지원조직으로 참여해, 교육 담당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지난 해 말에는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고, 서초넷에 합류해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민민협력 네트워크사업 전담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Q : 공동육아가 활동의 뿌리가 되신 것 같아요.

A : 네, 아이를 낳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전에는 내 아이에 초점을 맞춰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공동육아 훈련을 받으며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지요. 공동육아에서는 누구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는데요. 모두의 엄마, 모두의 아빠라는 개념이 좋았어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 모두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죠.

저는 아직 더 배워야 하고, 가치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새내기 활동가인데요. 공동육아 회의, 총회, 운영 체계 등의 조직 경험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Q : 모두의 거실에는 어떤 활동 키워드가 있나요?

A : 모두의 거실은 ‘함께사랑채’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로컬 푸드에 대한 공통적 관심이 있어요. 로컬 푸드와 마켓을 키워드로 축제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고요. 특히 지난 해 활동가들이 힐링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를 통해 ‘돌봄’을 공부하고 키워드로 갖게 되었어요. 올해는 돌봄의 첫 번째 기획으로 내 스스로를 먼저 돌보자는 취지로 ‘내 마음의 안전기지’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이 키워드를 담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Q : 대표적인 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서초단오마당이에요. 모두의 거실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에 대한 불안감도 없이 확장성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있어요. 5년째 활동이 지속되면서 지역활동가들이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고, 멤버십도 강화되어 올해는 특히 팀웍이 훌륭했어요. 또한 열린 운영으로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어 참여 단체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모두의 거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열려있다는 느낌과 따뜻한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서초단오마당은 이러한 점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함께사랑채’의 운영인데요. 20여년을 이어져 온 서초, 강남권의 유일한 공동육아 활동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보통 흩어지기 쉬운데 ‘함께사랑채’는 졸업한 조합원들도 현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하기 원하며 마을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축이 된 어른들 뿐 아니라, 아이들의 호응도 높았던 나눔장터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광진구 아카데미쿵과 연계해 아이들의 대안적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공간을 개방하고,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시 마을활력소 사업을 만나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역 공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배울, 함께사랑채, 방과 후 활동 공간 등 지역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 주체들이 함께 모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Q :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제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로컬에 대한 이슈와 고민이 가장 커요. 광역 단위로 여러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고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로컬에서 먹거리, 지역 활동, 젠더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내고 일상에서 손을 뺐었을 때 닿을 수 있도록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축제는 특정 시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마켓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로컬 먹거리를 연결해보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보고 있어요. 모두의 거실 멤버 중 한 분이 텃밭을 운영하며 잉여생산물에 대한 고민과 판로를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축제를 했던 경험으로 확장하게 된 거죠.

다른 측은 돌봄이에요. 모두의 거실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힐링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돌봄의 확장적인 측면에서 젠더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답답함이 생겼을 때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얘기하고 싶을 때 지역에서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초넷과 함께 플랫폼과 같은 형태로 연결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역 연대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내작은손으로 | 백난숙 대표

내작은손으로 | 백난숙 대표

교류를 통해 만드는 가치

Q : <내작은손으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2017년 신반포중학교 학부모 5명이 시작한 소모임이었어요. 당시 반포 지역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가고 나오는 시기였어요. 이사 준비로 안 쓰는 물건을 대량으로 버리는 집들이 많았죠.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니,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자회를 시작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마침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매달 둘째 주마다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를 시작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면 제대로 된 자리와 탁자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서초구청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봉사단으로 일원으로 등록했어요. 센터의 도움을 받아 참가 신청을 하고, 탁자와 현수막도 지원받으며 이렇게 물품 판매가 시작된 것이죠. 안쓰는 물건을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 100%를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가족 봉사단의 자격이니, 애들 엄마뿐 아니라, 아이들과 아빠도 참여시키면서 의미 있는 벼룩시장 바자회 활동을 이어갔어요. 성과도 좋았어요. 한 번 시장을 열면, 4,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했거든요.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아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 7번 정도 벼룩시장에 참여했어요. 초반에는 참여 가정에서 스스로 헌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점차 이웃들에게 입 소문이 나면서 물건을 내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열 가정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Q :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A :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서초구청 사회적경제 종합센터에서 <내작은손으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과 자체 생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예요.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던 새터민 학생이 미술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 한국 주택이 그려진 테이블 매트를 만들어 해외에 판매해 보기로 했죠. 시험 삼아 제작했는데, 특별한 홍보 전략 없이 인기 좋게 팔렸어요. 주로 다도하시는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씩 제품을 늘려가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사실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은 봉사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헌 옷가지들을 받아 정리하고, 다시 되파는 작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물량에 따라서 봉사 시간이 결정되는데, 주부들이 10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뜻이 있는 분들은 긴 작업 시간도 감수하고 봉사에 참여해 주는데, 좋은 일이니 무작정 봉사를 하라고만은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봉사 시간은 정해두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사실 봉사에 참여하는 주부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없어요. 다만, 서로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마침 동남권NPO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내작은손으로> 식구들에게 나눔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면서, 나눔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선택으로 마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을 얻었죠.

Q : 다문화 가정을 돕기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A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다보니 다문화 가정을 후원하게 된 점도 있고요. <내작은손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저의 개인 관심사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사단법인 <한국 라보>의 연구원으로 활동했어요. <한국 라보>는 1973년 문교부 산하의 청소년 단체로, 현재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단체예요. '언어실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중심으로 다언어 활동을 장려하며, 홈스테이 활동,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한국 첫 국제 캠프 및 홈스테이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 라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홈스테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UCLA 대학의 사회복지과 교수이자, 한국SAT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문애리 교수님과 친분이 있었어요. 이 분의 꿈은, 퇴직 후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일구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 서초구청과 EBS에 다문화 가정 머느리들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잘 안되기도 했죠.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분들에 유독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원할 때는 돈 걱정 없이 본 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Q :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A : 그렇죠. 봉사자들끼리 모이는 것도 최대한 지양해야하는 시기고, 벼룩시장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내작은손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후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에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긴 했지만,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당장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형편이고요.

대신 저에게는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신박한 아이디어가 많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왕성한 성격이 다보니, 아이디어를 내서 온라인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라보> 활동으로 인해 주변에 언어 강사가 많아요.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등 강사들도 요새 강의가 없어지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강사들은 주로 60년대 생이다보니, 온라인 강의 접근성은 낮더라고요. 반면 저는 줌, 구글미트 등의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다루는 건 어렵지 않아서, 몇 몇 강사를 집으로 초대해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강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강생도 직접 모집해줘요. 대신, 수강생 한 명의 수강료에서 2천원은 <내작은손으로>에 후원이 되는 구조로 협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언어 강좌 외에 와인 강좌도 시작했어요. 강의가 줄어든 강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배려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수강료의 일부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되도록 설계하는 모든 과정이 참 즐거워요.

해외에서 아티스트가 내한 공연을 할 때, 티켓이 남으면 주최 측에서는 무료 초대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대권을 받아 공연에 간사람 중에는 '나라도 와주니 고맙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문화는 예술가에게나, 관람가에게나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대권이더라도 공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람 이후 공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봐요. 감사의 의미로 <내작은손으로>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단 돈 만원이라도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모임이든, 강좌든, 연주회든 '가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다문화가정으로 이어지도록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Q : 서초지역 중심으로는 어떤 모임을 조직하시는지 궁금해요.

A : 반포에서 아이 셋을 키웠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았죠. <내작은손으로> 역시 학부모들과 시작한 일이고요. 제가 <한국라보> 활동의 일환으로 언어도 가르치고 홈스테이 활동을 하다 보니,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학원 중심의 사교육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한국라보> 활동은 실험적인 교육으로 여겨졌고, 실험적인 교육에 관심을 둔 학부모들은 저와 함께 했지만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과는 상대적으로 접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철학이 확고한 편인데, 학습의 완성은 학원이 아니라, 경험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학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요. 다만, 독서와 실험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앞장섰어요.

5년 전, 주민센터에 과학책 읽어주기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안했어요. 과학은 스스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이론을 습득하고,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4년 동안 90권의 과학 책을 읽고 학습하며 토론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줬어요. 중학교 2학년들은 습득한 지식을 초등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죠. 매 토론 및 실험 시간마다 교육대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한 대학생이 참관하도록 했어요. 물론, 대학생 선생님이 과학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참관하며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정해주는 정도로만 역할을 부여했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험하면서 완성해갔지요.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지면서, 서초구청에서 교육 지원금도 보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형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한 것도 성과지만, 사교육 문화를 조장하는 강남 엄마들에게 '진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별 것 아닌 듯하지만, 이런 은은한 영향력이 사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남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다시금 만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익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만큼 부모로서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소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싶어요.

강남구

—



[사진 출처_서울시마을공동체증합지원센터]

강남구청 | 박홍순 자치협력관
(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강남구청 | 박홍순 자치협력관 (전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행정 속의 활동가 협치의 실험가

협치의 시대다. 사회문제는 복잡해지고, 시민의 역량은 증대되었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구성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런 거버넌스는 하루 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강남구청의 박홍순 자치협력관을 만났다. 공무원이 아닌 활동가로서, 그가 가져온 문제의식을 들었다.

Q :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A :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부터 해왔으니, 20년을 넘게 했네요. 최근 7~8년간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나 행정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풀뿌리 공동체 운동의 일관성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상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언을 해나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민의 일상이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요. 시민운동의 역할이 시민을 대변하는 전문가로 한정되던 시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Q : 선생님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협치와 관련된 흐름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 초창기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어요. 15년 정도 했네요.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서울민주시민연합과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이 합쳐서 탄생한 조직이죠.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생활 속 민주주의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다보니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 등장했던 거지요.

당시 서울 10개 구에 시민회가 있었어요. 제 역할은 본부 사무국의 기획실장, 사무처장, 공동대표 이런 것이었죠. 주로 지역 시민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모어나가고 토의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사업이 있어요. 바로 주민자치센터죠. 99년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전환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풀뿌리 공동체 운동의 바탕은 민간에서 동료 시민들 간의 활동이겠지만, 행정이 가진 공공성 안에 들어가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으로 치면 거버넌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했죠. 1회 때는 행정자치부가 후원을 했고, 2회엔 성남시랑 같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했죠. 제가 관여했던 건 10회(2010년)까지였고, 그 후론 후배들이 맡았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스스로는 초창기에 이런 흐름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2004년부터는 마을만들기에 결합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풀뿌리시민운동.. 이런 것을 하다보니 시민역량강화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시민교육분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풀뿌리공동체 운동을 할 때 크게 3가지 실천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 민주시민교육, 마을만들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Q : 강남구나 동남권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A : 제가 강남구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갔던 게 2012년 전후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강남에 살고 있지만 강남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이죠. 마침 그 때가 직접 현장 풀뿌리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라 활동가들의 모임에도 나가고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면서 강남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마을넷 활동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아마 그 즈음일 거예요. 지금 강남에선 마을넷이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꽤 활성화되어 있어요. 2014년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지역의제를 제기하고, 갖가지 참여적인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강남서초권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강북에는 시민청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강남에 없다는 건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강남에도 시민청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성숙한 시민운동과 자원봉사,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협력하고 인문적인 교양이 쌓이는 기회들이 이 공간에서 펼쳐지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강남구청에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치구의 행정과 사전 신뢰가 없었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허브 공간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은 가지지 못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된 거죠.

Q : 이젠 강남구청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A : 민선 7기 선거에 즈음해서, 소박한 운동을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상의 의제를 모아 각 선본에 전달했는데, 각 선본들과 협약을 맺었죠. 그 후 현재의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실행이 되었죠. 민선 7기를 함께 설계하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하면 되는데, 결자해지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과 안에서 공무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자치협력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오픈하고, 주민자치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 실제로 행정에 들어가셔서 바라보는 협치는 어떤가요?

A :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지역사회혁신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을 강남에서도 해보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TF를 만들고 몇차례 논의를 해왔죠. 지역사회협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조례도 살펴보고, 행정내부의 기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서 의제를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올해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신뢰감 있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어요. 또 행정상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선 과정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여러가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어떤 성과를 남기셨다고 생각하세요?

A : 2005년경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문가나 행정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할지 논의하도록 조직하고, 설계와 반영 단계에선 전문가들을 결합시키는 활동들이 당시의 '마을만들기'였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과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라는 것도 했었죠. 처음엔 진안군에서 개최했는데,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네요. 전국의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 500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죠. 당시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큰 틀의 행정도시 같은 실험을 했지만, 우리는 작은 단위에서 마을만들기를 해서 주민들의 풀뿌리 역량이 강화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과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2010년엔 활동가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이어가자라는 생각에 모임을 부활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박2일 대화모임을 했었죠. 지방을 순회하면서요. 당시에 저는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저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이 일에 헌신했던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50회를 넘겨 했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모태가 되어서 마을만들기가 확산되었고,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죠. 지금은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Q : 마을만들기에선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A :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과 신념은 있는데, 이런 흐름이 경쟁중심의 사회라는 물길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을만들기가 주민모임 활성화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마을만들기가 발전하면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되게 되거든요. 일본엔 그런 사례가 많죠.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설득력, 시민적인 공감의 토대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하는 분들과 꾸준히 모임을 갖고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꼬리표 예산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민자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믿음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해 불균등한 자원을 이동시키고 효과성 있게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Q : 끝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 모임과 공부. 결국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해요. 그저 과거의 담론과 가치관을 무너뜨린다고 새로운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다 같이 찾아 나서야 하니 모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열린 연대가 필요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향에 대해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이런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의지해야 하고, 약한 사람들끼리 힘도 줘야죠. 정서적인 지지도 해야 할 거예요.



생명미디어센터 | 최성주 대표

생명미디어센터 | 최성주 대표

시청자는 미디어의 주인 미디어의 주인을 양성하는 활동가

Q : 1990년부터 시작된 대표님의 공익 활동 이야기가 궁금해요.

A : 본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시민사회에 관심이 생기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가입했어요. 경실련 초창기라, 회원들 대부분이 지인 손에 수동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가입 당시부터 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간호사를 그만 두고 쉬기 시작한 것이 1990년이었고, 방송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다고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언론 분야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중매체 역할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시민이 주도적으로 각 전문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기도 했거든요.

대중매체란, 방송이란, 감시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등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경실련 미디어워치>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단순 비평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고자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교육을 통해 활동 회원들이 확보되기도 했어요.

1996년 쯤,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특별활동 선생님을 모집한다며, 저보고 특별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간곡한 요청에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독서반과 영어회화반을 맡았는데,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 하는 분야로 아이들과 소통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송 바로보기' 수업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도,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도 전무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실련 미디어워치>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에게 꼭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학계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원론만 이야기 하고 있었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없어서 정말 개척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뉴스 바로보기', '드라마 바로보기', '다큐란 무엇인가', '오락 프로그램 바르게 이해하기' 등 장르별 콘텐츠를 만들기 도 했어요. '내가 PD라면 어떤 방송을 만들까', '(특정) 드라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기' 등 심층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었어요. 총 16강 정도로 1년 간 진행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죠. '방송 제작진에게 편지쓰기'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한 뼘은 자라나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의미 있고 즐거웠어요. 무엇보다도 성과가 눈에 보이니 참 가치 있는 교육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 등도 추가해서 굉장히 탄탄한 교육 커리큘럼과 교안을 완성했어요. <한국미디어교육학회>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요청했고,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 - 깨미동>에서도 저희 교안을 참고해 자체 미디어교육 교재를 만드시기도 했어요.

이후 <언론인권센터>로 자리를 옮겨 교육과 비평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미디어교육도 인터넷과 모바일, ucc 제작 교육 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미디어교육은 민주 시민 교육이거든요. 10년 간 일하고 퇴사해 <생명미디어센터>를 시작했어요. <생명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했어요. <경실련 미디어워치>, <언론인권센터> 등 오랜 시간 동안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해온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육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강생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미디어 관련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교육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디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자나 PD가 돼서 강사로 와주기도 해요. 학창시절 때 미디어 교육을 받고 올바른 미디어관을 정립하거나 언론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해줄 때 정말 뿌듯하지요. 누군가의 성장을 보는 일은 정말 기쁘고 보람된 일이거든요.

Q : 현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도 역임 중이시죠.

A : 공동대표가 된 지는 3년 됐어요. 경실련 시절부터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했었어요. 힘센 언론을 상대하려면 힘을 합쳐야 했거든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아니라 언론 현업 단체들과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께 미디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거든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언론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부의 언론 장악에 저항하다 피해를 당한 언론인도 많았어요. 그 시기에는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인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했어요. 미디어 관련한 법이나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집중했지요.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언론을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미디어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말은 방송이라는 공적 도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수신료를 내고 있는 거고요. 방송사와 신문사는 매체의 성격이 달라요. 신문사는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지만, 방송은 공적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의 매체라 자본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부와 권력을 증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열렬히 저항했어요.

이제는 종편, 유료 채널의 확산 등 매체 환경이 달라졌고 방송과 언론 자체가 자연스럽게 자본에 잠식된 상태가 되고 말았죠. 방송사도 생존과 이윤 추구를 먼저 내세우고, 시청자가 소비자로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당히 '시청자 주권'을 외치던 때보다 언론운동이 많이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Q : '시청자의 주권'과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스스로 방송의 주인인 시민, 즉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겠죠. 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도 하고, 비평과 칭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사는 사람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안 사면 그만인 거죠. 주인 의식이 있을 때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 마련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입장에 서게 되죠. 소비문화가 만연해지면서 방송과 시청자 간의 관계의 본질을 흐뜨리고 있어요. 최근 가짜뉴스 문제도 성숙한 주인의식이 있으면 가짜뉴스가 발붙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악플이라도 조회 수만 높으면 최고인 세상,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오로지 클릭 수와 시청률이 더 중요해졌어요. 시장 논리가 보편화 된 거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해요. 미디어가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해주어야 나와 사회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미디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사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시켜줘요. 그래서 소비의식이 아닌,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자체도 재정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최근 <미디어 개혁시민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매체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연대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미디어 환경은 무엇이 옳은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빨라요. 젊은 세대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적응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도를 쫓아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정부 역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않아요. <미디어 개혁시민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언론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미디어 전반의 개혁 방향은 무엇일지 등이요.

Q :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A :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올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영화나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역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해요. 사실 저는 봉오동 전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휘한 故최운산장군의 손녀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 봉오동전투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故홍범도 장군이 전투를 지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아요.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의 사료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 학계에서 사료 발굴이 어려웠던 탓에 왜곡된 기록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사실처럼 되어버렸죠. 영화나 책에 보면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소규모 게릴라 독립군이 완전무장한 일본 군대를 기적적으로 무찌른 것으로 소개되는데, 사실 봉오동 전투는 잘 훈련된 독립군이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 큰 승리를 거둔 '독립전쟁'이었거든요. 할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사료도 찾아냈고, 직접 봉오동에 방문해 전투 현장을 확인하고 기존 역사서술의 잘못된 점을 짚어내기도 했어요. 역사학자들을 만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료들을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2016년에 <최운산장군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고 역사를 바로 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정리한 역사를 뒤집는 일이라 앞으로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새로운 사료들을 제시하고, 독립군들의 진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익 활동이니 30년 이상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내공으로 최선을 다 해보려 합니다.



강남지역자활센터 | 안수경 센터장

Q : 민중신학을 공부하신 계기가 있나요?

강남지역자활센터 | 안수경 센터장

**여성, 신학, 지역을 잇는
궤적**

활동은 과정이며 정체성이다.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안수경 센터장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거쳐왔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교회개혁, 여성운동, 지역운동, 사회복지를 고민했고,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 풀어왔다. 교회 속에서 여성을, 여성 속에서 지역을, 지역 속에서 복지를, 혹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운동의 주제를 고민하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안수경 센터장의 활동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있지만 분리된 적은 없다. 짧은 인터뷰를 통해 여러 층의 시간을 압축해봤다.

Q :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활동가이지않아요.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사회복지를 하기 전에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안병무 선생님께서 민중신학을 사사했지요. 선생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교회에 가서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신학도로 살았지만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교회 목회보다는 기관목회로 NGO활동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광주YWCA였어요. 그 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민중신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민중신학의 저변화와 대중화에 대해 고민했죠. 그 당시엔 사회복지가 제도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라 민중교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민중신학을 토대로 민중의 현장으로 들어가 탁아소(현재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공부방도 운영하고, 주민조직도 하고 했었어요. 우리 연구소는 민중교회의 현황과 실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중교회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광주로 전학을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고 1때 5·18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때는 철이 없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모범생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가방 싸서 강당으로 다 모이라고 했고, 스쿨버스로 집 근처 외곽에 내려주면서 다시 연락할 때까지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대로 했죠.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고 5.18과 연류한 학생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5.18후 거의 3달 후 학교에 갔을 때 역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칠판에 미친사회(crazy society)라고 쓰시면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짧게 얘기 해 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었지요. 그리고 대학 때 다니는 교회가 5·18을 주동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이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당하셨고, 저도 선배들과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데모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조금씩 가담을 했지요. 교회 선배들이 감옥에 가기도하고 휴학을 하고 노동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5.18의 최후의 증언자인 선배가 감옥에서 신앙체험을 하고 출옥 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저도 4학년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찌 살아야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끌고다를 향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을 했지요. 그러나 선배들처럼 공장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지라 신학을 통해 사회변화에 공헌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기장교단의 목사님들이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활동과 헌신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지요. 87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그 해 4월 호헌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고, 6월 6·10 민주항쟁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평생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 '꼬방동네사람들'의 주인공들이 살고있는 하월곡동 산동네로 가서 허병섭 목사님이 빈민목회를 하고 계신 동월교회에 가서 중고등학생을 전담하는 전도사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3년간을 봉사했지요. 결혼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면서 동월교회를 떠난 후로 평생 기관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잘 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Q : 선생님의 활동 속엔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A : 민중신학을 공부하다 민중여성을 만나고, 여성민중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직장을 5.18의 산 증인 역할을 했던 광주YWCA로 정했었고, 서울로 올라와 민중신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여성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에 여성운동의 대모이셨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이우정 선생님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만들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셔서 그 곳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활동이 본격적인 NGO여성활동가로서의 삶의 시작점이었죠. 2년 반 정도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 여성평화의 집(지금의 여성미래센터)에 여성의 전화, 민우회,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여성문화교육원 등 진보적인 여성단체가 모두 모여있었죠.

평화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집회를 주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활동가로서의 일상이었어요. 이후 기독교여성단체인 한국여성학자협의회로 이직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서 다양한 여성운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군가산점 폐지 운동, 일본 교과서 왜곡 반대 운동 등이 기억에 남네요. 진보적인 기독교성들이 87년에 만든 기독교민회 활동을 함께 해 오던 중 2001년에 스웨덴 '민들레회'(기독교민회를 후원하는 단체)의 초대를 받아 스웨덴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활동가 11명이 견학을 하고 왔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지요.

Q :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었죠?

A : 한국의 교회 개혁과 사회개혁에 무척 관심이 많았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더딘 변화로 슬럼프에 빠져 있던 중 스웨덴 사회복지 현장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됐죠. 유럽교회는 죽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유럽에 가보니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고, 돌아오자마자 사회복지대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민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것이죠. 졸업을 하고 나니 희년의 집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여성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죠.

2005년, 광진구 희년의 집에서 복지사역을 시작했고, 민중 여성과 아동, 청소년과 홀몸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죠. 희년의 집에서 했던 일은 푸른꿈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지역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공부도 시켰어요. 국고 지원도 없던 시절이네요. 그런데 푸른꿈공부방을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갈 곳이 없다며 오곤 했어요. 다행히 SK의 1318해피존에 제안을 해서 청소년센터를 시작했죠. 광진구에서 희년의 집 역할을 고민하던 중 지역자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상담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침 저는 한국여성학자협의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을 이슈화하면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여성상담소를 시작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광진구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상담으로 이어졌어요.

이 시절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희년의집 건립이에요. 당시 10억원을 모금해서 허름한 건물이 있던 자리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희년의 집을 세웠죠. 여러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2012년에 서울시 마을 사업이 시작되었고, 마을넷에서도 재미있게 활동을 했죠.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져서 쉬과 회복을 위해 2013년 7월에 그만뒀어요.

Q : 지금은 강남에서 강남지역자활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A : 쉬고 있던 중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사회복지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강남구지역자활센터를 위탁하면서 다시 사회복지를 강남에서 시작했답니다. 강남구는 광진구와 많이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자활센터 참여자나, 직원들이나 공동체 개념이 광진구와는 다르더라고요. 그 때부터 협력, 상생,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미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넷 활동은 헌신적인 활동가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부모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끝나면 다 흩어져 버리더군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프로젝트로 모인 사람들이 계속 커뮤니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Q : 강남지역자활센터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A : 저는 희년의집 활동까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했었어요. 그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었는데, 센터는 거의 모든 예산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에 활동가로서 소신껏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이것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직원들 입장에선 이미 배정된 사업단 운영을 하기에다 벽찬데,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해야 하니깐요.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성과를 평가받는 것은 주로 자활사업에서 선생님들을 잘 케어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공익형 사업인 사회안전망 사업이나 혼밥죽을 위한 요리나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직원들이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일을 하나 더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인가, 취약계층이 서로 윈윈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하니깐요. 마을 활동과 관련해서는 양극화가 가장 심한 강남구에 살고 있는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이 강남마을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A : 이제는 전국단위의 활동이든, 지역에서의 활동이든 활동가들의 이슈파이팅보다는 지역과 마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과 뭔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 만나고 참여하는 활동들이요. 나의 작은 몸부림이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변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라도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큰 비전이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내 실천으로 누군가 행복해 질 수 있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Q : 동남권NPO지원센터는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요?

A : 강남에 대해서만 한정해본다면, 공동체성을 갖는 사업과 교육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언가를 내놓아야 공동체가 되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가 있는데, 자주 만나고, 활동 기회를 만들어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 이해경 대표

여성문화예술기획 | 이해경 대표

여성의 삶을 깨우는 문화예술운동가

Q : 여성문화예술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A :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아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고, 음악도 많이 들었죠. 집에서 사람들과 합창, 연극 놀이를 꾸준히 했어요. 특히 연극을 조직하는 것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하고 싶어 했고, 연극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죠. 그림을 그려 친척들에게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장만했어요. 기획하고 창작하는 활동이 그냥 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책과 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시몬 드 보바르의 '제 2의 성'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책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사회로부터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떤 불편함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회 분위기가 여성으로서 한계가 많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비로소 '아, 이거구나. 내가 여자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답답했던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중, 고등학교 때는 실존주의를 다룬 책을 주로 읽었다면, 대학생이 되어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죠. 책을 읽으면 세상이 명료히 이해됐어요.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197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문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게 아주 큰 영향력을 준 비평 문학이었죠. 문리대 연극판 활동을 했는데, 연극부장을 맡아 사회 비판적 시선의 작품들을 가지고 연극을 시작했어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연극은 남학생들에게 어떤 로망을 선사하는 공연이었는데, 사회비판적 시각의 연극 작품들이 시작되면서 연극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공연이 쉽지 않았어요. 정보부에서 우리 연극을 감시하러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대학 연극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역사를 다시 쓰고 싶었죠.

한국 사회에 맞는 작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대 연극은 교수들에 의해 작품이 선정됐는데, 주로 영국과 미국 문학 중심이었어요. 연출가도 교수님들이 직접 섭외하셨고요. 이대 연극에 학생 중심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연극부니, 대학생인 우리가 직접 작품을 고르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변화였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독일 작품인 막스 프리쉬의 <안도라>는 직접 우리가 번역해서 작품을 올리기도 했고요, 농촌순회공연도 시작했어요. 한국 연극사를 공부하면서 신파연극부터 다양한 작품을 다루었습니다. 민중계몽을 다루는 신파 연극 <연의물결>, 이강백 선생의 <파수꾼>, 그 외에 <혈맥>, <만석> 등의 작품이 기억나네요. 이대 문리대 연극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소설가 황석영, 김지하 시인, 최희완 시인 등 많은 예술가 분들도 함께해 주셨어요.

독일에서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함께 고생하며 목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즐거웠어요. 민우회에서 연극을 비롯한 전시,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던 당시, 한 후배가 지각을 자주 하더라고요. 왜 지각을 했냐고 물으니, 돈이 없어서 봉천동 집에서부터 서소문까지 걸어오느라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왕복 차비도 없는 상태로 여성 문화 운동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처음으로 우리의 운동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가 주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지요. 대학로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성 문화 예술 운동을 하더라도, 돈을 받고 공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수익금을 단원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심했죠. 유료 연극을 한다는 것에 겁도 났지만, 대학로에서 이 연극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도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감행했지요.

1990년, <여성문화예술기획 - 판>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함께하는 개방적 방식의 <열린 음악회>를 기획했어요. 트로트부터 클래식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음악이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죠. 이후 KBS가 이 <열린음악회>를 가져갔고, 저희는 연극에 더 집중하고자 대학로로 돌아왔죠. 당시 정신대를 위한 문화 행사도 저희가 처음 시작했어요.

1992년, <여성문화예술기획>이란 단체명을 가지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어요. 여성미술제, 여성의 경험 읽기, 생태적 음식축제, 영화제 등을 진행했어요.

‘자기만의 방’은 ‘본격 페미니즘 연극 선언’ ‘여성들이여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라’ 라는 연극 포스터 카피와 함께 연극 자기만의 방이 대학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 있죠. 학생, 생산직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또 많은 주부들이 연극을 보러 왔어요.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극장에 작은 놀이방도 마련해서 공연 내내 아이를 대신 봐주기도 했었거든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연극이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일한 부류 노동이 바로 가사 노동입니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여성들의 삶을 장악하죠. 버지니아 울프가 문학으로 풀어내는 문제의식을 한국식으로 번안해 연극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관객들은 환호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이 연극을 기다려 온 사람들처럼요. 매 공연이 여성들의 토론장이자, 더불어 눈물바다이기도 했습니다.

연극은 흥행을 이루다가 <아마존에서의 꿈>이라는 작품을 할 때부터 적자가 발생했어요. 연극 자체는 잘 됐지만,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모두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때가 199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장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시작했어요.

당시에 ‘세계화(Globalization)’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본이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본은 저렇게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여성 운동은 왜 이렇게 폐쇄적일까?’ 연극도 일 년에 한 편정도 밖에 못 만드니 아쉬움도 컸어요. 여성문화 운동도 개방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영화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되요.

1995년부터 준비해서 199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 1회 서울여성영화제를 개최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 상 문화단체의 성격으로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문화예술기획>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국가와 협업의 지점을 만들어 가기로 생각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했어요. 많은 여성들의 열성과 열정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Q : 그렇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시작됐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제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A : 여성영화제를 시작으로 상업화된 영화 시장에서 대중문화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봐요. 여성의 눈으로 사회를 읽고 해석하여 그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돈 있고 힘 있는 기득권 세력만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영화를 제작하고, 문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통로가 됐지요. 여성의 존재를 가시화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대를 열기 시작했어요.

대학로에 있는 동숭아트센터에서 제 1회 여성영화제를 열었어요. 한기가 남아있는 4월쯤 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누고 느끼는 관객들의 그 자유로움과 뜨거움의 시간들을 잊지 못해요. 어떤 자본이나 이데올로기의 개입 없이, 오롯이 영화를 보며 그 감동을 집단적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장면에 있어서 여성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웃기도 하고, 야유를 던지기도 해요. 여성영화제만의 독특한 풍경이죠. 여성들이 느끼는 결핍이 채워질 때 집단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하죠. 사실 IMF로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제 2회 영화제 개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행복감을 누리던 여성 관객들의 장을 단아버려선 안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 영화제를 이어갔고, 2020년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네요.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된 세계를 영상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저항’의 의미로만 봐선 안돼요. 공감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인 것이죠. 사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첫 여성영화제는 아니었어요. 첫 여성영화제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였어요. 거기서 마를린고리스의 <A Question of Science>란 영화를 보게 됐어요. 한 여성이 옷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옷을 훔치는데, 주인인 남자가 여자에게 모욕을 줘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모여 두 사람을 에워싸고 옷걸이로 남자를 때려 죽여요.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는데 여자들이 묵언을 수행해요. 이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잘 지내는 겉보기에 문제없는 아내, 엄마이거나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재판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웃음을 터뜨려요. 왜일까요? 여성들의 불편한 삶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가부장 사회 속 여성의 삶을, 영화는 인물들의 표정으로 보여줘요. 관객들은 그 표정을 집단적으로 한 순간에 캐치하고 함께 폭소해요. 이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것이 여성의 삶이고 문화입니다.

<영화평론가협회>에서 만든 심포지엄, ‘왜 영화제가 필요한가?’에서 여성영화제의 가치를 극찬해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관객 로열티가 높아요. 한 번 왔던 관객은 꼭 다시 오죠. 좌석 점유율이 높아요. 관객층, 지지층이 아주 확실하죠. <부산영화제도>도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했잖아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도 성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22회를 마친 현재, 협찬과 지원금이 10배 규모로 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여성 영화제로 자리매김 했지요.

Q : 지금은 영화제를 떠나, 서초 지역의 생활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A : 영화제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키고, 2019년 <여성문화예술기획>으로 돌아왔어요. 여성 미술제, 음식축제 등 다양한 소재로 여성문화운동을 이어가고자 해요.

강남, 서초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 사례로, ‘엄마는 큐레이터’라고, 지역에 사는 3,40대 주부들, 활동가들과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했어요. 엄마들이 동네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 어떤 전시를 어떻게 할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바를 예술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과 지식을 길러야 해요. 굉장히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인지가 필요하죠. 표현할 바가 생기면, 전시를 직접 열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직 그리고 분배 작업도 직접 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연극을 기획하기로 했다면, 이 연극의 배우는 누구로 섭외 할지, 어떤 이웃을 초대할지, 그 이웃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은 돈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해요. 실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부들이 문화를 만들어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할 때,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토론했어요. 이런 종합적 기획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와 강의를 시작했지요.

강남, 서초 지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사람은 주민들 중에서도 단연 주부예요. 주부들이 지역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이 지역을 누비며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소재로 하여 메시지를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필요해요.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소통 도구는 없으니까요.

성추행, 성폭력 교육이 많아졌어요. 양적 성장이 두드러져요. 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면 강사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는 못해요. 교육이란, 교육을 듣는 자의 변화를 이끌어야만 효과가 있는거잖아요. 많은 강사들이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수강생으로부터 비아냥과 분노의 삿대질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변화는커녕 갈등의 씨앗만 계속 만들어 가겠죠. 이럴 때 문화 예술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성교육 강사들의 교육 방법론을 바꾸기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죠. 너무 좋은 변화라고 봐요. 마을공동체 현장 탐방을 나가보면, 여전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남자더라고요. 여성들은 중간지도자나 일꾼으로 일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만드는 영웅적 스토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성 의사결정권자도 종종 만나지만, 문화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문화예술 역량 보다는 사회의식은 투철해요. 대학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의식만 강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운동은 ‘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문화기획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소통 방식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성문화예술기획>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역과 소통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최선을 다해볼게요.



숲여울기후환경넷 | 박상인 공동대표

숲여울기후환경넷 | 박상인 공동대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강남구를 꿈꾸다

Q : <숲여울기후환경넷>은 어떤 곳인가요? 활동 계기가 궁금해요.

A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서울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했어요. 서울에는 19개의 하천이 있고, 강남구에는 탄천, 양재천, 세곡천 이렇게 3개의 대표적인 하천이 있어요. 이 세 개의 하천 역시 복원 작업이 필요했고, 지역 주민으로서 하천 생태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에 <양재천 사랑환경지킴이>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2003년부터 10년간 회장을 맡아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태 교육과 참여형 활동들을 이끌어 왔어요. 2014년부터는 <숲여울기후환경넷>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시작했지요. <숲여울기후환경넷>에는 3,40대의 생태교육 양성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이런 환경을 토대로 청소년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강남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이어왔어요.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환경 지킴 운동의 출발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연 체험형 교육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Q : 청소년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 : 강남구 중, 고등학생이 모여 <청소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할 일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시작한지 5년 정도 되니 청소년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육을 듣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 참여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청소년 모니터링단>은 맹꽂이와 도롱뇽 생물을 중심으로 2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으로 강남구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개체 수가 늘어났어요. 자연적으로 강남구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개체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관찰한 친구들이 웅덩이를 파고 탄천에서 물을 길러와 물웅덩이를 만들어 도롱뇽 서식지를 만들었죠. 일명 '손바닥 습지'라고 불러요. 그 옆에는 도롱뇽이 서식지 '발바닥 습지'를 만들었어요.

생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대개 밤 10시 전후라, 모니터링단 친구들도 밤 10시에 활동을 시작해요. 늦은 시각인데도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탄천에서 직접 물을 퍼서 웅덩이에 부어주었어요. 모니터링단 친구들이 밤마다 물을 기르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호소했는데, 서울시가 학생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강남구청과 협업해 펌핑 시설을 마련해줬어요. 실제로 도롱뇽이 습지 내에서 산란을 시작했고, 개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지나가는 강남구 주민들도 '강남구에 도롱뇽이 사네?'라고 놀라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Q : 강남구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공간도 부족해요. 자연과 더불어 성장해야, 자연의 귀함을 알고, 더 보존하고 살피려고 할 텐데 그럴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생물들이 서식지를 찾지 못하면 결국 도시로 나와요. 삶의 터전을 잃은 생물들이 도시로 나오면 큰 위험을 겪게 되고 결국은 사라져요.

아주 오래전부터 강남구에서 서식하는 동, 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앞서 말한 손바닥, 발바닥 습지 조성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강남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노력도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올해 처음으로 양재천에서 바이오블리츠(Bio Blitz)를 진행했어요. 생물다양성탐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생물(준)전문가와 청소년 모니터링단이 함께 양재천과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를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문가와 준전문가 스무 명이 바이오블리츠를 진행했고, 양재천에 식물 200여 종, 그 외 생물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생물들이 양재천에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Q : 양재천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A : 두꺼비와 도롱뇽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자전거 도로 축소 및 자동차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탄천 바로 옆에 양방향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서식하던 두꺼비들이 사라졌어요. 하천 둔치를 따라 자전거 길을 만들다보니 로드킬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 거예요. 문제제기를 했고, 자전거 길을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현재 탄천 옆 자전거 도로의 상행은 좌안, 하행은 우안에 배치될 수 있었어요. 이후 양재천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어, 자전거 도로 일방통행 안에 대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 의원을 설득했어요. 다행히 양재천의 자전거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전거 길은 하천 옆이 아니라 자동차 도로 여에 두어야 해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일명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강남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접근하고 있어요. 강남구청과 이야기가 잘 안될 때, 서울시와 이야기하는 통로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탄천은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송파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탄천 일부 지역에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나 봐요. 송파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지역은 고라니 서식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낼 수도, 내서도 안 되는 곳이지요.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됐고, 송파구 측에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Q : 강남구 녹지 공간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공원과 도시숲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A :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면서, 기존의 녹지 공간도 사라질 위험에 놓였어요. 다행히 서울시가 사유지였던 강남구의 돌산공원을 매입하면서 녹지 공간이 유지됐어요.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건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의 녹지 공간을 지키는 것이 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녹지 공간만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중심'의 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없어요.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은 어떤 종들인지 파악하고 생물들이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하천 주변에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백일홍, 핑크 물리 등을 심어두는 것은 무의미해요. 하천에 어울리는 식물이 아닌 거죠. 공원을 조성할 때도 조경수를 들여오는데 이걸 인간중심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지역에 사는 자생종을 심고, 오래전부터 강남구에 서식했던 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Q :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 〈서울하천네트워크〉,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주로 하천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하천은 행정이 관할하는 구역이다보니 행정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청장에 따라, 때로는 담당자에 따라 협력이 잘 되기도, 안되기도 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하천에 나가 체험 교육을 할 때,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아이들과 소통해야 했어요. 우리 활동에 굉장히 호의적인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탄천 방문자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담당자와 구청장이 바뀌면서 공간 사용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 앞으로 더 집중하고자 하는 의제나, 계획이 있다면요?

A : 강남구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정말 좋아하고, 직접 보고 싶어 해요. 사실 가능성은 낮은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전주시가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에 성공했어요.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환경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반딧불이 애벌레를 강남구에 풀어놨어요. 9월 말쯤이면 성충이 돼서 세상으로 나올 텐데, 만약 실패한다면 도시 가로등 불빛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해당 지역의 일부 가로등을 소등하거나, LED등으로의 교체를 제안했는데 어렵다고 답변 받았어요. 이 애벌레들이 가로등 불빛을 이겨내고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요.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서식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생물들이 스스로 살아내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 김영란 (전) 대표
(현) 광명시기후에너지센터 센터장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 김영란 (전) 대표
(현 광명시기후에너지센터 센터장)**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실현하는
공존의 가치**

Q : 환경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A :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중앙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의제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환경 분야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도 있었고,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정치, 국민 주권,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이 주류였던 운동이 여성주의, 문화, 환경 부문 등 의제가 구체화 되고 세분화 되던 시기였는데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는 여성 활동가들이 많았어요.

이후 결혼과 육아 후 공백기를 갖다가 2000년에 다시 단체로 복귀했어요. 당시에 활동가들이 개별적인 지역으로 나뉘 들어가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 운동을 해보자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강남 지역에서 동네 작은 산 지키기 운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반대 운동, 장바구니 들기 운동 등을 했어요. 이후 <환경운동연합>이 강남구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이라는 지역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 활동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소속을 옮겨와 활동을 하게 됐죠.

Q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A : 초기에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등을 조직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가 약 15년 전에 강남구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현재까지도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매년 지정하는 20곳의 환경보전시범학교에 기후 에너지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교내에 꽃밭이나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환경 개선도 돕고, 환경 보호 관련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구요.

서초구의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해주고 싶어 하는 일부 학교들에 강사를 파견해주는 형태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단위로 신재생 에너지 체험 수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에는 동아리를 조직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요. 교육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 철학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에너지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석면을 비롯한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생활 속에 더 밀접하게 들어가 먹거리 운동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도곡동에 에코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생협을 열기도 했구요. 임대료나 활동가 부족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에 좋은 먹거리를 소개하고 도농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도들을 했었죠. 그리고 학생, 어머니들과 연대해 양채전, 탄전을 지키는 활동도 했는데, 하천가에 식물을 인위적으로 바꿔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보존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Q : 말씀하신 대로 석면 문제 등을 다루시면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생겨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오셨죠.**

A : 2006년 즈음 반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먼지, 소음 등으로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또 재건축과정에서 석면도 검출되었구요. 그래서 학부모들과 연대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했어요. 행정 소송도 하구요.

이후 재건축 시 석면 철거를 미리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 재건축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는 무조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중학교는 선택할 수 있구요. 그래서 착공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죠.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가 되었구요. 정보공개도 의무화 되어서 구청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강남 서초지역은 이후로도 계속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인근을 둘러싸고 재건축이 되는 곳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죠.

**Q :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이자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A : 이전에도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긴 했는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고 나서는 조금씩 절약하자는 수준에서의 운동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운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2013년 1월에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현재까지 햇빛발전소가 총 7곳 지어졌죠. 현재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품질실험소, 강남구의 탄천물재생센터, 관악구 신림중학교, 구로구 개웅중학교, 광진구 건대부속중학교, 강서구 등원중학교, 송파구 신천유수지에 햇빛발전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인근으로 공급되지만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고 한전을 통해 무작위로 인근에 공급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쓰는 전기 공급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쓰고 싶지 않은 개인이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일본처럼 그것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거든요.

Q :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은 없으셨나요?

A : 서초 강남 지역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환경에 대한 민감도나 권리 의식도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나 소음 등 개인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저해하는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것이 바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환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죠.

동시에 이 지역은 고도로 상업화되고 발달된 곳이라 전기를 많이 그리고 편하게 쓰고 있어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들도 있고, 차를 2, 3대씩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도 많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건축을 해야 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면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한다거나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지 않고 도리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나 신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들이 에너지 생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고, 또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구조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가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 운동에 있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해요. 첫째는 줄여가자는 것이에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음 세대도 생각하면서 오염을 줄여가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

게 환경 운동을 하며, 친환경을 문화로 확산시키자는 거예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연대하고 캠페인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보기 싫다고 반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대안적 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강남에서 쓰는 전기는 항상 저아래 밀양이나 경주에서 올라와야 하죠. 그곳 사람들은 송전탑 세우느라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고향을 떠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구요. 본인이 누리는 것에 대해 본인이 가격을 치른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편의 때문에 타인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환경 운동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 강남마을넷을 조직하시게 된 경험도 말씀해주세요.

A : 무상급식 이슈로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난 후, 각 구마다 마을넷이 생겼어요. 지역에서 특정한 이슈로 연대하고 또 선거까지 치러보니 단체와 사람들이 연합해야 목소리도 낼 수 있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강남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분명한 반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강남 지역이 가진 보수성에 반하는 다른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단체와 활동가들을 모아 강남에서도 마을넷을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공간 임대료를 충당하는 문제도 있었고, 사람이나 단체도 당시에 많지 않았죠. 그래도 이곳저곳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단체들을 연결하고 키워보려고 노력했어요. 구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와 비교해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리고 동남권NPO지원센터도 구 단위의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져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Q : 활동하시면서 지역에서 함께 교류하고 연대하셨던 단체들이 있나요?

A :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권, 환경 교육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했어요. <한살림>, <강남아이쿱생협>과는 환경, 먹거리, 유해화학물질 등의 의제로 연결되어 함께 했구요. 녹색당, 정의당 등의 소수정당들과도 비정규직 문제 등 관련된 사안 있을 때마다 결합해요. <탈핵연대>에 저희도 함께하면서 밀양의 송전탑 반대 등 탈핵 운동 지원하고 있구요.

환경 이슈의 경우 구와 같은 지역 단위에서 생겨난 문제들도 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큰 틀 안에서 나오는 조례나 제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짜인 후에야 구에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강남, 서초를 넘어 좀 더 넓은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Q :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보려는 의제가 있을까요?

A : 올해 5월까지 해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저희 전 조합원들이 쓸 만큼의 전기에너지 생산량을 달성했어요. 20년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1단계 목표에 도달한 거죠. 2단계 목표는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또 '내가 쓸 전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것'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전파하고 싶어요.

올해도 햇빛발전소가 두 곳이 완공되었는데 연말이나 내년에 한 곳 더 만들고 싶어요. 햇빛발전소의 발전량은 1MW 정도 돼요. 햇빛협동조합들이 늘어나 원자력발전소 1기의 에너지 생산량에 도달한다면 그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아요. 원전반대운동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럼 당신이 쓰는 전기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생산에 직접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이 더 필요하고 또 역량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조합들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어요. 산업자원부 같은 관계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려고 하죠.

에너지 카페를 내는 것도 계획하고 있는 일 중 하나예요. 한 공간 안에서 에너지 관련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말부터는 조합원들과 함께 몽골에 에너지 나눔을 하려고 해요. 몽골은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전기 수급이 어렵고 요금도 GMP 대비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지향하는 바나 바라는 사회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A :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 여자들이 더욱 취약해요. 그만큼 피해를 보기도 쉽죠. 그렇게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어요. 환경권도 인권이거든요. 약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싶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저도 계속 활동을 해나가고 싶어요.



[사진 출처_서울경제 2017.05.04]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김명신 (전) 대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 김명신 (전) 대표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함께하는 시민 활동을 지향하며

Q : 교육 시민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와 진행해 오신 활동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1982년 결혼 후 저는 광주와 부산 등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게 되었는데, 6년 후 서울에 다시 돌아와 보니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던 노원 지역도 교육열이 높아 엄마들이 모이면 “강남 지역을 어떻게더라”라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한 독서모임을 만들어 매주 활동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가보니 교육부 말만 믿고 선행학습을 안 한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교육은 학교에 맡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이름과 1부터 10까지 숫자만 가르쳐 입학시켰는데 올바른 교육에 대한 부모만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요. 당시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박혜란 선생님을 만나 학부모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홍보 출판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잠시 살다온 후 강남구로 이사 와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교육에 주는 영향을 경험하며 교육이 부모들의 과업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저도 부모다보니 불안함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요. 개인적으로 교육 운동을 하면서 그 힘을 빌려 이러한 불안함을 잠재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99년 지역 교육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서초·강남 교육시민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의 참여 요청이 많아져 2003년에 단체 명칭을 변경했고요. 1990년 초반 노무현정부 당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보성초등학교 서교장 자살 사건 등의 주요 현안이 불거졌을 때 여러 단체들과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적극적 활동을 진행했고요. 교육 이슈가 가장 두드러지는 강남 지역에서 활동한 만큼 교육 불평등과 고교등급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 확대를 위한 중점 의제를 만들어 왔어요.

이러한 활동에는 ‘함께 교육’의 세 주체였던 교사, 시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가 바탕이 되었어요. 회원의 70%는 교사와 학부모, 30%는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참여했는데 학부모 운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 뿐 아니라 교육 운동의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많아 조직의 활동성이 뛰어났어요. 서초 지역의 특성 상 초기 구성원들의 1/3 가량이 법조인들로 구성되기도 했어요.

저는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학부모운동에 참여하며 정책대응과 더불어, 현장성 있고 실질적인 지역 운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동덕여고 교장선생님, 서초강남지역 교사 등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 화장실에 비누 걸어주기 운동 등을 계획해 회비와 지역 지원을 받아 진행하기도 했어요. 학부모들의 큰 부담이 되었던 학교 교복 공동 구매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서초, 강남, 동작, 송파의 13개 학교에 확대하기도 했어요.

특히 ‘함께 교육’은 정보 보조금 프로젝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 인건비는 지원받지만 고유목적사업은 오히려 진행하기 어려워졌거든요. 대신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등의 지역 단체와 양재천 탐사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의 체험학습을 기획해 진행하기도 했어요.

Q : 강남 지역에서 전개하신 교육 시민 활동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A : 강남은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육 불평등의 불합리한 구조들과 문제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지요.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이 교육의 결과를 본인의 경제적 배경, 본인 탓으로 생각하기 쉽고, 전체적 구조의 문제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강남지역 입시결과를 보니 특목고, 강남지역 학교, 비평준화 지역선발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에게 수치적으로 알 수 없는 공식이 적용되어 대학 입시에서 우대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을 가까이에서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교육은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의제화시켰던 거지요.

Q : 교육 이슈가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나 연대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 외부에서는 강남 좌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시선도 있었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오해도 있어 서초·강남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해 단체 명칭도 변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SNS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비판보다는 우리단체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시선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아쉽게도 강남 지역에서는 연대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마을 사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강남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 이슈를 집단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아, 조직화가 어려운 지역 특성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접점에서 갈등을 하면서도 제 관점을 버리지 않고 운동가로 성장해 20여년을 이어왔는데요. 참고할 수 있는 롤 모델이 현장에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입시교육에 유리한 선행학습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교육 운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지요. 여전히 교사들은 스스로 전문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의 지역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활동 조직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요. 하지만 발언권을 가진 지역주민과 주류가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의 영향력은 한계가 생기거든요. 정교한 지역 사회의 분석과 지역 특수성에 맞춰 주민들의 힘을 잘 모을 수 있는 활동들의 개발이 필요해요.

최근 제가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을 하며 조례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남자 아이들의 화장실에 칸막이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처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공감대와 신뢰를 얻고 내 아이들의 삶의 개선과 공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들을 늘려 가야 해요. 의제를 잘 선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며 추진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Q :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교복 공동 구매 운동>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했던 핵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를 조직화하면서 중산층 주민들의 에너지를 잘 끌어낼 수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당시 고가 교복에 대한 이슈로 school09.org 라는 교복공동구매 사이트가 있었는데 첫 아이가 다녔던 진선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실수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를 원점화시키고, 매뉴얼에 진행해 맞춰 어느 부모도 불만이 없도록 했어요. 17~18만원이었던 교복을 10만 5천원까지 인하시켰고, 학부모들이 직접 제조시설에 방문해 원단을 교체하고, AS문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진행했어요. 중간에 잡음이 생겼을 때는 민변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조율해줬고, 13개 학교까지 확대되었어요.

이러한 성과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며 적극적인 상호 소통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어요.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편의성에 적응되어 그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속하며 추진했던 활동들의 효과가 무뎠던 것이 안타까워요.

Q :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 해결 의제가 있으신지요?

A : 강남구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0억 정도가 있어요. 다른 구에는 평균 40~50억 수준이라 모두 부러워하지요. 이 보조금의 성공적인 사용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힘을 잘 조직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관심이 낮아요. 주민자치 참여위원회 등과 결합해 단계별로 훈련할 기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관료주의를 깰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해요.

또한 강남은 지대가 높아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한계예요. 활동가들은 열심히 하지만 행정적 운영 과정에 치여 유지 이상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핵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남마을넷 | 김시홍 사무국장

강남마을넷 | 김시홍 사무국장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주민의 주권과 권리를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활동

Q : 국장님에 대한 소개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저는 79학번인데 당시 많은 학생들이 겪었던 것처럼 데모를 하다가 학교가 휴교되기도 하고,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을 했어요. 1987년 대학을 중퇴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진통을 겪는 30대를 보냈지요.

2008년 광주병 촛불 시위 현장에서 중학생,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집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시민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주권 확보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정권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시스템을 보고 80년대의 항쟁이 아무 의미 없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윗세대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를 계기로 강남 촛불이라는 모임을 통해 강남지역 회사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등 정책 실책, 민주주의, 시민권, 노동권 등의 이슈와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니던 외국계 회사가 2010년 철수했던 때가 제가 50세가 되던 시기였는데, 강남서초환경연합의 권유로 직업체험과 환경교육 등 지역 NGO 활동을 2년간 하게 되었어요. 2012년엔 시민단체들과 보궐선거를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역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Q : 강남마을넷이 설립된 배경과 과정은 어떠했나요?

A :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을 펼치며, 정책연구 시민그룹들이 강남 마을 활동을 권유했어요. '마을회의'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주민들이 모여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단체와 주민들이 무슨 활동을 함께 할지 연대활동들을 만들어 냈어요. 이용 가능한 자원과 방법을 찾고 공모 사업도 연결했지요.

처음엔 임의단체로 시작해 3년 간 활동을 이어오다, 매달 25개구에 광역 회의를 하며 강남에 단체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고, 비영리단체 임대 공간 이용 등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해 2016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어요.

Q : 활동 주제와 영역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강남은 시민사회와 주민조직이 없어 공익적이고 이로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었어요. 민주시민교육, 나눔 사업, 마을 공간 사업, 축제 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확대해 나갔어요.

마을공동체 활동이 찾동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혼동하지만, 복지 활동은 아니에요. 마을공동체는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이상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해주는 대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권과 권리를 찾도록 경험하고 키워가는 활동이지요.

Q : 대표적인 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강남에서의 마을 활동은 정치적 특수성이 있었어요. 단적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역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5개구에 안내 현수막이 걸렸는데 강남은 제외가 되었어요. 마을넷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2018년까지 강남 안에는 마을넷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NPO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지만 확산이 어려웠어요.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지난 해 구청장이 바뀌면서부터이니 1~2년에 불과해요. 이전까지 구의 지원도 없고, 사업을 가져올 수도 없어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내는 활동비로 6년간 사람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고 지난해에야 마을센터 사업을 수탁 받을 수 있었어요.

2013년부터 매년 30~40명씩 주민들을 모아 연 10회씩 마을주민 회의를 지속해 온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놀라는 활동이에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행정에 동원되고, 결국은 기존 관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 불만과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공간 이전 이슈로 회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지속했던 활동이 신뢰와 애정의 토대가 되고 지역에 필요한 단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근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인 회비를 통해 이 전 공간에서는 더부살이를 했던 강남마을넷이 이제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의 작은 단체와 함께 나눠 쓰게 되었고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2년 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회의를 마을테이로 바꿔 의제를 모아 공동 실천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논의와 공유 회의 외에 강의, 정책교육 등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어요.

Q : 마을회의를 오래 지속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초기에는 한살림, 아름다운 가게,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들 10여 분이 모였고, 마을공동체 정책과 마을 자원을 소개했어요. 강남서초환경연합, 예코허브, 비전학교, 강남구자활센터, 한살림 강남지부 등 지역단체들을 운영단체로 묶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지역 단체들이 모인 모임에 주민들이 조금씩 결속하기 시작한 거지요. 세곡동이 개발되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마을 활동을 찾다가 조인하며 확대되었어요.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역마다 마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찾아 다녔고 이를 통해 6개 복지관들도 결합하게 되었어요. 아직 사회적경제 분야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초기 마을회의에서는 회의 시간의 절반을 참여자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어요. 참여 단체들은 준비하는 사업을 알리며 동참을 요청했어요.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연대 활동을 통해 성과를 얻으며 가까워졌는데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흩어지지 않고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어요. 또한 친분과 신뢰가 쌓이며 점점 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는데 5~6년간의 이러한 경험이 기반이 되어 민민 협력기반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Q :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의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A : 강남마을넷은 지역에서 1년 이상 마을 회원으로 활동해 온 9개 단체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은 마을넷이 수익사업이나 정책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비영리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강남 지역 활동가들이 성장해 분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을 키우고 지역 NGO를 인큐베이팅하는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 마련의 고민이 필요해요.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3년 사업인데 올해 2년차는 코로나에 따른 지장이 있었지만, 마을 회의를 활발하게 하면서 민민 협력활동을 단단하게 하고, 활동가를 확대해 마을공동체와 마을을 이해하는 저변의 폭을 넓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NPO 공익활동의 역량 확대와 활동가 육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강남 지역은 주민들의 역량에 비해 지역 의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의 NGO, NPO 경험과 시민사회 참여 경험이 아직 부족한데 교육, 협치, 자치조례, 인권조례, 혁신교육지구 선정,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 등 의제가 넘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소화하고 정리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행정적 지원 외에도 제도적 측면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이 지치지 말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허브 | 김소라 대표

Q : 10여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활동 주제와 환경에도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A : 처음에는 도곡중학교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심이었는데, 강남구청과 협력해 강남 전역으로 활동을 확대할 수 있었고, 이 활동들이 광진구 등 인근 지역에서 양천구, 강북구 등 서울 전 지역 까지 확대되었어요.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 순환이라는 다양한 활동 주제를 갖고 사업과 참여자가 확장되며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지역사회 복지활동으로 넓혀 가고 있습니다.

Q : 활동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과 지역에서도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A : 활동 시작 시점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야를 확장해주고 싶었어요. 강남권은 중학교 시기 부터 성적에만 집중하게 되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더욱 날카로워져요. 이 시기에 외부 활동을 하고, 다른 환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현장 활동을 하며 환경오염 문제와 사라지는 생물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알게 되고, 함께하는 엄마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별장의 뒤섞여진 쓰레기들을 힘들게 분리하시는 선별원들의 현장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 자원 재활용 방법들을 고민하고 깨끗한 분리 배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지요. 현장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공모 사업으로 연계해서 홍보와 실천 활동들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Q : 에코허브의 대표적인 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2014년부터 서울시 에너지절약 실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직거래 장터로 시작한 에너지 슈퍼마켓은,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들(LED, 절전 타이머, 창호, 방풍시설, 절수기, 미니 태양광 등)과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참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직거래 판매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성과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상시 상담과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지면서, 비영리단체들의 사무실 한편, 주민센터 한편 등에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마켓이란 뜻이 담긴 ‘에너지 슈퍼 마켓’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에코허브 | 김소라 대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을 통한 따뜻한 나눔

Q : 에코허브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에코허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큰 딸이 사춘기시기에 접어들며, 학교생활과 공부 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계기가 되었어요. 마음 맞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 ‘초록자전거’라는 지역 환경 동아리를 2010년에 만든 것이 시작이었지요. 지역 벼룩시장 장터에 참여해 수익금과 기부금을 모으고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환경교육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봉사활동 중에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녹슬어 버려지는 것을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녹슬어서 고물이 되기 전에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 준다면 자원도 아끼고 나눔도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에 방치된 자전거들을 모아서 깨끗이 닦고 벗겨진 곳은 칠해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이러한 자원의 선순환이 에코허브 활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에코허브는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이 알려지며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상도 받게 되었고, 인근 지역 중학교부터 서울전역까지 20여개의 동아리로 확대되었어요. 동아리로 시작했던 활동이 이렇게 이어오게 된 건 동역자였던 엄마들의 힘이 커요. 힘들었지만 끈끈하게 함께했던 경험과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동력이 된 거죠. 엄마들의 십시일반 기부로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었고, 시작을 함께했던 엄마들은 지금도 여전히 회원으로 에코허브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현재 117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있는데요. 기존 회원들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킨 후 돌아와 다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에너지 슈퍼마켓은 제품을 전시할 공간과 상담을 담당할 단체 회원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여러 단계에서의 논의와 설득,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에너지 절약”이라는 가치가 단체 운영진들과 회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에너지 슈퍼마켓이 에너지 절감 뿐 아니라 운영하는 단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5년 10개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자치구들과 동사무소의 참여로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주민센터 3곳을 포함 10군데가 더 오픈되어서 총 20개의 에너지 슈퍼마켓이 서울시에 있어요. 각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에너지 정책을 알리는 “에너지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관심 갖고 사용해 보시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시는 모습을 볼 때나, LED등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구매 기준을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가격에 교체하게 되어 고맙다고 할 때, 설치 후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에너지 사랑 나눔’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자치구-단체-기업-기관의 <에너지 사랑나눔단>네트워킹을 통해 전통재래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열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한 것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세대를 찾아가 여름철에는 열차단 유리페인트를 시공해 드리고, 겨울철에는 뽕뽕이와 문풍지 붙이기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것입니다.

아끼던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나눔통에 넣어 기부해준 청소년들, 아까운 공간을 내어 슈퍼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 에누리 참여 단체와 활동가들, 까다로운 전통시장 조명에 맞는 밝기를 맞춰드리려고 수 백 개 점포를 일일이 사전 조사한 기업 관계자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잡한 행정적 지원을 해준 서울시와 자치구 및 기관의 각 담당자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에코허브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나눔’이라는 큰 “가치”에 모두가 “같이” 한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에너지 설계사와 가정에너지 클리닉 경력자들을 재교육하여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중소 상가들을 찾아가 에너지 절감 컨설팅과 에너지 절약 상품들을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445개 가게가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착한 가게로 선정되었고, 총 14%의 에너지를 절감했어요. 올해는 참여 가게가 1,000여개로 확대되었고요. 인식을 변화하는 캠페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녁에 정수기를 꺼놓는 간단한 방법이나 실외기 차양막 설치만으로 7%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미 있어요. 각 가게마다 맞춤형으로 에너지 절감 방법을 알려주니, 최근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상공 상점들도 비용을 줄여줘서 고마워하고요. 절감효과를 직접 체감하면, 주변 가게에도 알려줘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니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활동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이었어요. 총 60명의 실내공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후 관리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시민들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원과 실내공기의 중요성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서울시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실태 조사를 하며 공기정화장치 사용에 대한 안내도 하였어요. 많은 시민들이 집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구로구와 서초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 800세대는 직접 방문하여 필터교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어 올바른 실내공기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어요. 현재까지도 아파트 관리소와 시민들의 문의가 계속 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4기째 진행되는 ‘에너지 JOB GO’ 프로그램도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에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직업을 폭넓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3, 4학년의 대학생들에게 에너지 관련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고 1:1 진로 상담과 취업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경쟁률이 5:1 경쟁률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고, 취업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Q : 지역에서 함께 교류하고 연대하시는 단체들이 있으신지요?

A : 활동 초창기에는 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없는 줄 알았죠. 에코허브가 단체로 등록하면서, 강남마을넷과 강남서초환경연합을 알게 되었고 사무 공간도 함께 사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을 하다 올해부터 공간을 분리했어요.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환경사랑실천단, 송파주부환경협의회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토대가 되어, 봉사자 모집이나 관리, 복지시설 연계 등 각각의 역할 분담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Q :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보려는 의제가 있을까요?

A : 올해부터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의 중간지원 역할을 맡게 되어, 기후변화 관련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구요. 광역으로 확대 중인 재활용플라자의 자문을 통해 마을 단위로 재활용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알리고 있어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종료되고, 자치구와 마을단위로 에너지 절약, 태양광 확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지역은 에너지 소비양은 많지만 에너지 실천 활동이 지속적이지 않고, 참여도 많지 않아요. 강남구청 환경과와 협력해 강남구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사례들을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연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과 지원 사업, 실천 방법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활하며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은 매립과 소각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반입총량제'는 지자체별로 반입량을 할당해 제한하는 정책으로 각 지자체들은 2018년 대비 10%의 쓰레기를 감축해야 합니다. 쓰레기양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내후년부터 쓰레기 반입 등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현실인거죠.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및 재사용, 재활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의 실천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이를 알리고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요.

Q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 일반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역 활동에서 시민단체를 출발했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한 활동들이 많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단체 중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의 지원 토대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강남아이쿱생활협동조합 | 김은정 이사장

Q :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강남아이쿱생활협동조합 | 김은정 이사장

'모두의 좋은 삶'을 지지하는
에코페미니스트

Q : 강남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하 '강남아이쿱')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아이쿱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어떤 요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을 통해 그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쿱생협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왜곡되잖아요. 이윤을 위해 첨가물을 넣은 먹거리나, 우리 건강을 훼손시키는 해로운 음식을 반대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쿱이 처음 생긴 해가 1997년이니 그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당시에 6개의 작은 협동조합이 모여 의기투합해 만들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국에 99개의 지역조합이 있어요. 지역조합은 독립법인으로서 존재하고, 이것이 연합회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전국에 27만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먼저 결사체적인 성격이에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이 나눔, 배려, 민주주의, 평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소리를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조직이에요.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며 수익구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경제 조직인 거죠.

강남에서의 아이쿱은 사람들이 잘 상상하지 못했어요. 강남이라는 소위 부자 동네에 지역조합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강남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바른 먹거리, 건강, 환경에 대한 지향과 욕구에 기반해 강남아이쿱은 소중한 첫 발을 던지게 되었죠. 당시 단 1명의 활동가로 출발했던 불모지였지만 지금은 11명의 이사들이 서로 지지대가 되어 활동하는 어엿한 조직이 되었네요. 1인 활동가시절, 매장이 먼저 들어왔고, 저와 다른 활동가들이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16년 7월에 강남아이쿱을 설립했어요. 강남아이쿱 조합원은 현재 약 1,800명 정도 되구요.

A :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졸업 후에는 '시민의 신문' 등 진보계열의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신문을 다녔지만 업무 피로도와 언론 운동의 한계를 느껴 충동적으로 신문을 그만두면서 오랜 기간을 쉬었죠. 그때는 10여 년 이상을 쉴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늘 막연히 돌아가야 한다거나 일을 다시해야 한다는 빗진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여성 운동을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서 어렵풋하게 저항감을 느꼈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대학시절,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모든 것이 나를 흔들었지요. 머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자유가 그리웠죠. 그래서 무작정 지역에 있는 여성민우회를 찾아갔지요.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느날 환경애의 '여울목'을 듣는데 사정없이 눈물이 쏟아지는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 꿈이 있거나 했을까? 생각하면서 내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후 잠깐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지내다 왔는데, 그때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공부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과 출신인데,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일단 신영복 교수, 김수행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아이쿱생협과도 연결되었죠. 아이쿱생협에서 장을 보다가 인문학 동아리 모임에 대한 공고를 우연히 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활동가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학원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의를 선택해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유레카! 아, 이거다!"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역시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대안적 경제 모델을 발견한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있으면서도 자본가의 의도만으로 되지 않고, 조합원들의 요구와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이요.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유럽의 대규모 협동조합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제 3 섹터, 사회적경제라는 충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유레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후에 그 분야의 강의도 더 열심히 듣고, 아이쿱생협의 제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다가 결국 강남아이쿱생협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한거죠. 강남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몇 분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함께 준비했구요. 그때 그 멤버들이 아직도 아이쿱생협 이사진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초창기 멤버들이 5년 차까지 함께 온 거죠. 여성들의 사회적 우정을 깊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단위로 지금까지 같이 온 거예요.

Q : 강남아이쿱생협이 하고 있는 지역의 활동들도 소개해주세요.

A : 아이쿱생협의 경우 매장은 주식회사인 공동 사업법인으로 운영되고, 지역 조직은 활동에 집중해요. 일단 생협의 물품에 대해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왜곡된 먹거리에 대해 알리며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죠. 여기서 공공성을 더 확장해 GMO 완전표시제를 제도적으로 요구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죠. 더불어 먹거리뿐 아니라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요. 대중 강연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구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협이 단순히 좀 더 좋은 유기농 먹거리를 파는 곳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들도 다양하게 진행해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시민성장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서 1년에 8~9회 정도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공정무역을 주제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통해 토론도 하고, 직접 홍보물도 만들어 외부에 나가 캠페인도 하는 거죠. 그동안 공정무역부터 탈핵을 비롯한 기후, 에너지 문제, 유해화학물질, 난민, 여성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이런 활동을 진행해왔어요.

강사양성도 직접 하고 있어요. 유해물질, 공정무역 등 관련 이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키워서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하죠. 공교육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슈들, 예를 들어 공정무역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노동 문제, 아동 인권 문제들을 다루게 돼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불공정한 무역 체계의 그늘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약자와 소외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수익사업과 별개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먹거리 왜곡도 단일한 이슈가 아니라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먹거리 문제를 넘어서 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해야,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회를 바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도권 교육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알리고 공유하겠다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면서 GMO 관련 홍보 활동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 마을과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기도 하고, 저도 일종의 지역 연대 활동으로 강남마을넷 대표를 맡고 있구요.

취미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아리 모임 또한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영화, 뜨개질, 요리, 드로잉, 와인, 바디버튼 줄이기, 클래식 기타 소모임 등을 운영해요.

Q : 공익활동단체들이 대부분 물적인 기반이 취약해서 늘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아이쿱활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여요. 공익활동을 지속할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을까요?

A : 저희 운영 구조는 안정적이에요. 다른 조합과 달리 아이쿱생협은 다달이 정액으로 내는 조합비가 있어요. 다른 생협의 경우 물건을 판매해 이익을 내어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아이쿱생협은 물건 판매에 대한 이익을 낮추고, 다달이 조합비를 걷어 운영비를 대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의 판매 수익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조합비를 걷으니 조합원은 아무래도 물품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충성도도 더 높아졌구요. 그래서 조합비 중에서 약 50%는 연합회로 가고, 50%는 지역의 운영비로 지출돼요. 운영비로 공간의 임대료, 활동비, 운영비 등 충당하고, 조합원들의 욕구, 문화적 니즈를 반영한 사업을 운영하죠.

Q : 사업 계획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성원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나요?

A : 기본적으로 회의 체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저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지점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또 구성원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이견이 있을 때는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크게 의견이 부딪혔던 경험은 없었어요. 창립 이후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오갔던 주제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공간 이전 문제였어요. 관련해서 각자의 욕구와 이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이전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합의하자고 했죠. 그래서 공간도 많이 보러 다니고, 검토하고, 추려서 또 회의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결정을 하지 않고 재고해보는 거죠. 물론 늘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리더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주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구성원들에게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쿱생협에 활동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 주부들이고, 이전의 활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활동의 동기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활동의 의미도 퇴색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동가들에게 제안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이야기해 줘요. 지금 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나중에 상황이 변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가 보완할 테니 부담 없이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활동가 개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늘 고민해요.

Q : 강남아이쿱생협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신 건데요. 이 시간 동안 이사장님의 관점이나 활동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 개인적 계기나 사회적 사건이 있을까요?

A :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 전환의 지점은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원 시절 들었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레카!”를 외쳤던 그 지점이에요. 두 번째 지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2018년에 발간했던 1.5도 특별보고서를 읽었던 시점이에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는 위협해지고 임계점에 곧 다다른다는 거예요.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했을 경우 2도 상승과 비교해 환경 파괴의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텐데, 산업혁명 이후 불과 2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벌써 1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고작 0.5도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읽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심상치 않은 문제임을 그때 실감하게 된 거죠.

강남아이쿱은 작년부터 매년 큰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사업 외에 ‘더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그해의 의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지속 가능한 지구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강남아이쿱생협’이라는 이름으로 ‘더 플러스’ 의제 사업을 진행했구요. 일회용 비닐 장바구니 저감 캠페인, 우유갑 수거, 친환경 물품 포장재 연구, ‘세바개’(세상을 바꾸는 마개) 캠페인 등 환경운동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어요. 올해의 ‘더 플러스’ 의제 사업은 ‘STOP 지구 가열’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후 위기 공동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1.5도 특별보고서예요.

Q :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또 구체적인 활동으로도 참여하고 계시죠.

A : 네. 저는 생활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연대는 아이쿱생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공공적인 가치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 제도로서 반영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후보에게 정책공약도 요구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조합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공유하기도 하죠. 주로 환경 의제와 관련된 정책들, 예를 들면 유해환경이나 급식 문제, 생협법 위주로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죠.

Q : 강남아이쿱생협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져온 변화나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지역사회에 개입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 아닐까요? 마을넷과 연대해 총 8개 단체가 모여 기후 위기 공동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각자 사업을 했다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의 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익활동을 함께 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슬들이 꿰이고, 연결된 거죠.

매장만 존재했던 강남에 아이쿱생협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변모했다는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동아리로 모이고 함께 어울리며 뭔가를 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능동적인 '조직'으로서의 생협도 인지하게 되었고요. 조합원들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뭔가를 요구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동의해준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Q :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는 네트워크에 속해 계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강남아이쿱생협을 포함해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한살림, 공감플랫폼, 이소마음연구소, 숲여울기후환경넷, 강남마을넷, 세자울된장맘 이렇게 총 8개 단체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죠. 네트워크의 또 한 축으로는 강남마을넷이 있는데 제가 대표이자 운영위원으로 있기도 하고, 지역의 공통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Q :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A :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에 환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교수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매료되었고 큰 영감을 받았어요. 목사이시기도 하면서 불교의 범명도 가지고 있는 환경 교수님은 종교, 신, 생명 등의 개념을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시는 분이예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라는 곳에 가서서 살풀이 곳을 하셨던 분이죠. 환경 교수님이 말했던 개념이 '살림리스트'예요. 여성이 살림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의 '여성성'은 남성에게도 필요한 것이구요.

제가 에코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 위기의 문제도 젠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살림'의 문제, '공존'의 문제, '평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어요. 이것을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구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림리스트'로 만들어가며 남은 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이건 흥기빈 씨한테 들었던 표현인데요. 저는 '모두의 좋은 삶'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모두의 삶이 좋아지려면 사회 안에서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죠.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싶어요.



두잉사회적협동조합 | 장연주 부이사장

두잉사회적협동조합 | 장연주 부이사장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재진행형 페미니즘

Q : <두잉사회적협동조합>(이하 두잉)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두잉>은 2017년에 1월에 페미니즘 멀티카페 형태로 문을 열었어요. 당시 대표셨던 김한려 일 님이 계속 여성주의 공부와 활동을 해오시면서 오프라인 공간의 필요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의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갈망하셨다고 해요. 곳곳에서 외로운 경험을 하는 페미니스트 개개인이 네트워킹하고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아지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두잉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하죠. 김한려일 전 대표님이 초기에는 공간에서 특강도 주최하고, 도서관처럼 개방해서 사람들 만나 얘기도 듣고, 카페도 운영하셨는데 1~2년 정도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게 개인사업으로 계속 가져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공간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운영을 이어나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방식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두잉을 통해 교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자자를 모았고, <두잉>은 2019년 5월 1일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운영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활동하던 이사진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면 지금은 2030 페미니스트 5명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 김한려일 전 대표님이 이전부터 계속 이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1,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나 환경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2030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두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 공간을 기존의 페미니즘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그리고 좀 더 에너지를 가진 2030 페미니스트들이 지키고 유지해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현 이사장님도 삼고초려를 끝에 힘겹게 같이 하게 된 거고, 부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합류하게 됐어요. 지금의 이사진을 보면 이전에 두잉에서 특강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멀리 있다가 두잉에 결합하게 된 경우도 있고, 각자의 배경이 다양해요.

Q : 운영진이 바뀐 후 두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A :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로 운영진이 구성되었고 이전에 <두잉>에서 해왔던 페미니즘에서 영역을 약간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전에는 비중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동물권과 환경권이예요. 지금은 친환경을 넘어선 필(必) 환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운영진 중 몇 분은 실제로 비건을 지향하고 계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요. 이전의 카페 메뉴들을 보면 우유를 포함한 동물성 성분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운영진이 바뀌면서 카페도 전반적인 개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메뉴도 전면 비건화 되었지요.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원재료들을 찾아서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커피도 공정무역 원두를 쓰고, 과일 같은 경우도 <언니네텃밭>이라는 여성 농민공동체를 통해 가능한 한 직거래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성 농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위주로 메뉴를 전반적으로 바꿨어요.

Q : 페미니즘이 생태, 환경의 문제로 확장되고, 지향하는 가치를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A : 아무래도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진이나 이사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잖아요. <두잉>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진들이 기본적으로 이전에 계속 동물권이 나 환경권에 관련해 활동하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일터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곳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아지트의 개념이니까요. 저 역시 비거니즘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계속할 계획이기에 이러한 변환과 확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동물의 착취를 통해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재료를 굳이 사용할 이유도 없었죠. 이런 가치들을 지속해서 얘기하다 보니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 같아요.

Q : 두잉의 활동 주제는 여성과 환경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A : 넓게 보면 인권, 동물권, 환경권으로 축약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단은 페미니즘이고, 저희 작은도서관 서가에 책을 분류해 둔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철학, 사회, 성노동, 성매매 등 다양한 키워드로 나뉘져 있어요. 사실 <두잉>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페미니즘 영역의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거니즘, 동물권, 환경권 관련해서도 앞으로 연속 특강이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Q :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주체들과 네트워킹이나 연대를 하고 있나요?

A : 저희가 위치한 강남구의 지역네트워크인 강남마을넷과 연대하고 있어요. <여성주의 상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두잉>과 함께 하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과 여성주의 관점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하고 있구요.

Q : 두잉의 대표적인 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올해는 한국여성재단 지원을 받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네트워킹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인데요. <두잉>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과반은 이미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부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오세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두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인지하고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트위터를 비롯해서 많은 답변이 오가는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고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거나 페미니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어디서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잉>이 그 역할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소위 페미니즘 입문자라고 할 수 있는 2030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각자의 페미니즘에 대해 공유하고,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사업이에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두 시즌으로 나뉘서 진행하는데요. 시즌 1의 1, 2차는 페미니즘 인식론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현장에서 듣는 즉문즉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3~5 차시는 조별로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에요. 매번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즌 1의 참가자들이 시즌 2까지 계속 참가하고,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속된 강의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후속 모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두잉>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요즘은 페미니즘 학당 사업으로 진행하는 특강, 워크샵 등에 주력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잘 알려진 강사, 유명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섭외해서 학당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두잉>이 올해 3월 개편을 하면서 공간 내부 인테리어도 좀 더 아지트처럼 아늑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큰 규모의 현장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두잉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는, 첫 시도를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와 워크숍들을 해보고 있죠. 페미니스트 여성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도 섭외 하면서요. 이번 달에는 여성 재즈 가수 딸로와 함께 하는 재즈싱잉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즐기는 모임이죠.

이러한 시도들이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래, 그림, 글쓰기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강사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소규모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내 얘기도 하고 체험해보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형태로 학당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북카페로서의 <두잉>이라는 공간을 친환경 지향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책을 매주 온라인으로 소개를 하고 리뷰도 올리고 있어요.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거나 <두잉>이 직접 기획한 독서모임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Q :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져온 변화나 결과물이 있을까요?

A :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아무래도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메뉴를 전면 비건화 한 이후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생겼고, 이전에 두잉에 지속적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비건 실천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된거죠. SNS로 후기도 종종 올라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건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죠.

Q : 올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나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A : 일단 앞서 말씀드린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하반기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잉>에서 비중 있게 해보려고 하는 일은 '에코페미니즘 학교'예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개념에서 자기 돌봄, 필(必)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가치들이 교차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연속적인 흐름 안에 담아 참여형 프로그램 혹은 워크숍 형태로 계획해보고 싶어요.

Q : 두잉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바라는 사회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요즘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종종 의견 대립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소위 진영과 노선을 확인하고 편 가르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선불리 답을 내릴 수 없고, 또 확신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잉>이 지향하고 담아내기 노력해야 할 가치들은 어떤 특정한 노선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두잉>을 방문하고, <두잉>과 함께 활동하고 일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페미니즘이에요.

'Doing'이라는 영문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저희는 특정하게 정해진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움직이는 페미니즘을 지향해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변화할 의지가 있는 페미니즘이 <두잉>의 중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존재이든 착취당하지 않고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가장 큰 지향점이에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앤스페이스 | 정수현 대표

앤스페이스 | 정수현 대표

**공통적인 것, 커먼즈(common)가 구현된 도시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Q : 대표님을 소개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밸류업 컴퍼니 NSPACE의 대표 정수현입니다. 저희는 도시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소셜벤처입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크리에이터(스타트업 청년, 작가, 기자 등) 그룹들이 주택을 사거나 가게를 내는 비용, 업무환경 등 도시에서 머무르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많은 공간이 활성화되어서 적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획들과 콘텐츠가 펼쳐질 수 있게 돕는 걸 저희는 도시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해로 7년을 맞이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지금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중심으로 약 85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시간이나 안 쓰는 공간들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어요.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시작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도시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주택과 창의적인 공간들이 결합한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등 사업들도 도시혁신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앤스테이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 안에 공유오피스, 멤버십 서비스인 인디오피스, 저는 이런 독특하고 유니크한 로컬브랜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도시기획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기획자라는 영역이 정말 다양한데 건축부터 부동산 개발, 커뮤니티 빌더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기획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도시혁신을 만들어가는 플레이어 중의 한 명입니다.

Q : 2013년 처음 NSPACE를 설립하게 되셨을 당시 계기가 궁금해요.

A : 저는 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던 캠페이너였어요. 20대는 캠페이너로 보냈고, 30대는 소셜벤처 기업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리·비영리로 직종은 좀 달라 보이지만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사회를 유산으로 줘야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목표는 같아요. 2013년, 29살에 창업했거든요. 창업의 첫 번째 계기는 캠페이너로 활동할 때 공간에 대한 부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교육을 열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공간을 빌리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비싼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간을 좀 쉽게 찾을 수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주위에 건물들은 늘 임대 포스터가 붙어있고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고 지표나 자료를 보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왜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예요. 임대나 공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공간들의 정보를 소개해 주는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다가 사업이 된 게 스페이스클라우드입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의식을 IT 서비스로 구현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조그만 프로젝트형 공유 공간들을 운영했거든요. 공간을 어떤 특정한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만 공유를 해도 공간 안에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경험을 '스페이스모아'라는 코워킹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했었어요. 이걸 IT 사업으로 구현하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NSPACE가 주목하는 '공유'의 확장이 곧 사회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고, 이것이 쌓이면 사회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가요?

A : 저희 회사는 부동산과 도시공간 등을 다루는 부동산 서비스업이에요. 다루는 것은 공간이지만 사실 주목하는 건 그 공간의 가치를 올리는 주체가 누구인가예요. 그 공간을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행복한 공간의 특성을 제공하는 이런 콘텐츠를 가진 기획자들, 저희가 말하는 도시기획자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는 호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위를 하는 유저들,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용자들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이 지금의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을 바꾸고 있다고 저희는 계속 주장하거든요.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데 있어요. 건물주가 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가 생기고 임대료에 따라서 물건값이 정해지는 이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유자 중심의 시장이 필요해요. 저희는 사용자들이 뭉쳐서 건물주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들을 건물주가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계약방식부터 그 건물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다 사용자에게 의해서 바뀌는 거죠.

저희는 도시혁신에 관심이 있어요. 플랫폼 서비스나 사회주택 등의 혁신적인 모델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시장체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드웨어적인 파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로 부동산시장을 리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건물주, 그리고 공급자, 소유자의 관계가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전문화된 용어로 부동산 영역에서는 ‘commons’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사용자와 건물주의 관계에 사실 우위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평한 관계로 도시를 합리적인 관계로 구성해나가는 것, 이런 힘을 주는 어떤 노력을 우리는 커먼즈라고해요. 커먼즈가 구현된 도시를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Q : 대표님은 사회문제를 인식하면 직접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실제로 저도 20대는 캠페이너로 비영리에서 정책이나 무브먼트 등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촉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30대에 7~8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공익활동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거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사실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설문을 돌리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는 게 실질적인 변화에 얼마큼 기여를 할까를 측정하지 못한 채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열정에 기인한, 또 주변 사람의 평판에 기인한 어떤 직업적인 만족도가 있었어요.

사업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해서 말씀드리면 수만 명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변화나 공익활동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약 100명, 내 서비스를 쓰고 만족해하는 100명을 위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페인포인트라고하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나 어려움을 서비스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서비스를 100명이 사용하고 “너무 좋았어”, “짜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어.”, “좋은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어” 등 이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즉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무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사업이라는 솔루션이 좋죠. 공익활동과는 다르게 좀 더 미시적이거나 이해관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양쪽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저한테는 서비스가 주는 혁신이 좀 더 방법론 적으로 체질과 맞는 것 같아요.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면서 비즈니스 하는 팀들도 정책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Q : 이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영리기업이 추구하는 공익활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 공익활동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소셜벤처랑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영역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핵심은 기업을 통해서 사회가치를 구현하던지, 사회가치 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이용하던지 결과적으로 이 두 조직의 장점은 변화를 촉진하고 소셜임팩트를 내며, 사회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비영리라는 도구가 있고 영리라는 도구가 있는데 사회혁신가들한테는 두 가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둘 다 소셜임팩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Q : 대표님의 경우, 영리가 비영리적으로 활동하고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영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혹은 제안도 좋습니다.

A : 정책대안이나 연구, 캠페인, 무브먼트,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행위들,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행위들, 이런 게 공익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액션이라면,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같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무 괴로운데 100명을 만족시킬 때 빠르게 성취를 달성하는, 작은 성취를 많이 달성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예요.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즈니스적인 방법론으로 소셜임팩트를 낼 때 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례로 딱 떠올랐던 팀이 있었어요. 그 조직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함으로써 목적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비영리적인 공익 서비스를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열린옷장'이란 곳이었습니다. '열린옷장'은 정장이나 안 입는 옷들을 기부받아서 급하게 비싼 옷을 바로 마련하긴 어려운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옷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개인적으로 그곳의 한만일 대표님이나 김소령 대표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영리의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쓰이는 자원을 쓰이게 만들었으니까 공유를 잘 활용하기도 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수익형이 아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후원금이나 어떤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린옷장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라도 대여료를 받으면서 관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장점이지요. 저는 이런 단체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영리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열린옷장이라는 팀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Q : 요즘 스페이스클라우드나 앤스테이블의 경우, 주 고객층이 청년층인것 같은데, 청년이 가지는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에 비해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 자기의 기반을 마련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기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핵심 문제는 자산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도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거도 그렇고 가게를 내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반이 없으면 너무 고생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도시의 정주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시에 머물기 위한 부담인 거죠. 머물기 위한 비용을 낮춰주는 게 반대로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기반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나 인프라,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 할 청년들에게 사회문제는 바로 도시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큰 대도시도 당연히 집값이 비싸거든요.

'런던과 뉴욕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칼럼 제목이 생각하는데, 큰 도시들이 고비용 도시 부담 때문에 인재가 못 들어오고 포틀랜드 등 자꾸 외곽이 뜨는 게 그런 평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 도시의 리더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도시가 정주 부담이 너무 높아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못 들어오고, 도시가 늙어가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낡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회주택이나 커뮤니티하우스, 공유오피스 같은 걸 많이 공급해서 정주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똑같아요. 서울이 너무 비싸져서 청년들이 서울에 머무를 수 없어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도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청년이 다른 세대와 인식하는 사회문제에 차이가 있다면, 혹은 인식하는 사회문제는 같으나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한걸음 좁혀서 얘기하면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청년세대, 한국의 지금의 20~30대는 아파트 키즈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어서 이들은 창업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콘텐츠 중심으로, 브랜드와 기획력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자기 자산으로 하는 세대예요.

기성세대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요. 건물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 물리적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던 세대입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그렇게 될 수 없기도 하고 자기가 평생 일해봐야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청년들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나면 이제 지적인 것들, 자기 브랜드, 기획, 콘텐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적인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서울에서 꼭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 지금 제주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거주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버추얼스페이스가 중요한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 충분히 뭐든지 자기의 일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 기반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 자산을 획득할 수 있고 도시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룰앤매너를 완전 벗어나서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어쩔 수 없이 바로 청년세대일 수밖에 없죠. 지금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주도성은 청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될 테지만 제가 청년세대 때 만들고 도전했던 룰앤매너가 있음에도 다음 세대는 또 새로운 룰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청년이 보고 있는 가능성이자 해결 방식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두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사회에 변화를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변화를 바로 즉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청년들 때문에 부동산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신원.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 파람북, 2019.

**Q :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 공유’ 등을 제외하고
관심 갖는 의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은 장기적으로 해결, 또는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사회문제나 의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핵심은 다양성의 규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언젠가는 저희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의 규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단일민족이란 신화에 빠져있기도 하고 “20대에는 뭐해야돼, 30대에는 결혼해야돼, 아이를 낳아야돼.” 여전히 이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아직도 크게 작동하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소수자들로 등장하는 비혼, 1인 가구, 여러 가지 소수자들의 형태가 있잖아요. 다양한 주체들은 소수성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파워가 약해요.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소수의 목소리는 당연히 묻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선진사회들은 이런 맞춤형 정책들이 잘되어있고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존중이 되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천국인데 우리나라처럼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원’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이와 세대, 결혼의 여부, 아이의 유무, 그다음에 사회의 다양한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요. 저는 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친구이고,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동물도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서는 약자잖아요. 뉴욕에 제가 잠깐 여행 갔을 때는 동물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게 편했어요. 카페에 갔을 때 동물을 위한 가이드가 정말 잘 되어있고, 어디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동물과 더불어 삶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죠. 다양한 라이프가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을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다 도시문제긴 하죠. 나중에 저희가 다 풀어갈 문제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다양한 개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저희 서비스나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보려 합니다. 또 공익활동도 다양하게, 사실 제가 공익활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언론부터 정부, 기업, 이런 주류 사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이나 비교적 소수자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익활동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의 불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업인으로서 살지만 제가 이런 공익활동가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을 기업인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혁신가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들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Q : 새로운 문제 인식, 변화를 꿈꾸는 의제가 생긴 청년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하고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A :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자기 업으로서 맞는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 30대 때는 최소한 자기한테 끌리는 주제가 분명히 두어 개가 있을거예요. 동물에 끌릴 수도 있고, 환경, 뷰티, k-pop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관들에 기회가 닿으면 한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인턴부터 프로젝트, 종사자가 되는 것까지 경험을 쌓아보시는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관심이 많은 교육과 부동산 분야에 활동가분들과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존경하는 분들을 알게되고, 읽어야하는 서적들, 만나야하는 사건들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20대때는 큰돈을 벌지는 못했죠 비영리활동가들이 큰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실존하는 사회적 자본, 신뢰의 자본, 진짜 자본의 힘을 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29살, 창업 이전까지 비영리활동가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 5년정도하니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인정해줬어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는게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산이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할 때 저를 지지해주고 든든한 지지대들이 되어줍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끌리는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쌓는 걸 추천해드려요. 끌리는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찾아봤는데 어디 들어가고 싶은 기관도 안 보이지만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팀, 친구들을 모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형, 특히 비영리스타트업의 형태로 창업을 하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지원책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문제를 열린옷장처럼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돼 버리는 이런 케이스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진로 코스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임팩트커리어'라는게 있어요. 저희는 4년 전부터 임팩트커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채용을 해요. 루트임팩트라는 회사가 여러 곳에서 펀딩을 받아서 약 2주 정도 소셜벤처, 비영리스타트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경영과 운영에 대해 교육도 해주고 기업들과 매칭도 시켜줘요. 루트임팩트와 다음세대재단 등에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육성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기반들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시동남NPO지원센터에서도 이런 공익활동지원사업 많이 하실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체들을 만나보고 자기주제를 찾는 경험들이 중요해요. 소셜벤처와 비영리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게 일반 기업들이나 단체들과 좀 다르거든요. 이런 다름에 대해서 스티디하고 오고, 자기랑 비슷한 꿈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을 동료로 얻을 수 있어요.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군데 더 말씀드리면, 언더독스라는 회사가 하는 창업스쿨들이 있어요. 여기는 창업을 아주 강경하게 사관학교 스타일로 가르쳐주는 곳인데 사회혁신에 관련된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스토리와 미션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장점은 회사의 미션과 자기의 미션이 같으면 엄청 시너지가 나요. 저희 팀원들이 20명이 조금 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있어서 컬러풀하고 정말 좋아요.

송파구



위례시민연대 | 임근정 공동대표

지역 운동조직이 필요함을 느껴 위례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 임근정 공동대표

가난한 시민과 동행하는 지역사회운동

Q : 대표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근정입니다. 저는 1986-88년 아시아게임, 올림픽 등 국가적인 큰 행사로 서울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던 시기에 가락지구에서 살던 철거민으로서 개발 지역의 주민으로 철거 반대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문제 등을 접하면서 의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거민 당사자로서 조금씩 운동의 영역을 수행하며 지역 안에서 책임을 맡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서 키워진 운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Q : <위례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A : <위례시민연대>는 2001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지역 안에서 각자 활동하던 다양한 성격의 운동 단체, 노조,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민중생존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지역의 연대체로 시작되었어요. 연대체 안에서 각자 주거, 통일, 민주화 등 의제가 다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현장과 삶, 지역이 바뀌는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자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체를 만들기 전인 90년대 말에도 지역에서 함께 연대하여 운동을 열심히 해오긴 했어요. 의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치과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등과 연계해 주민을 만나면서 '함께 돕고 사는' 활동을 연대하여 진행했죠. 그러다가 주거 또는 노조, 노점 등 각각의 문제를 분리해서 볼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2001년 위례시민연대가 출범했죠. 그 시점에 각각의 노조와 자체적인 단위 조직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민이 직접 회원이 되어 만들어가는 주민

Q : 위례시민연대 초기 역사를 보면

풍납토성 보전활동,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 전입 운동 그리고 개미마을 등 어린이, 청소년 공부방 개설 지원이 주요한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A : 그 활동들은 이미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위례시민연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승계해온 것들이에요. 정부가 풍납토성 복원이나 올림픽 경륜장 건설 등의 사업을 실행할 때 그 곳 주민의 주거 문제나 인근에서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연대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접하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기울어져 있다.',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그래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방과 후 방치되는 아이들을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판단과 인식 하에 강동꿈나무학교, 송파꿈나무학교라는 이름으로 공부방을 열었어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이죠.

비닐하우스 주소지 전입운동의 경우엔, 지금의 법조단지에서 가든파이프 쪽의 복정동까지가 예전엔 모두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촌이었고 사람도 꽤 많이 살았어요. 개미마을이 대표적으로 200 가구 정도 거주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주소지가 없어 학교를 화곡동까지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주민들의 거주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주소지 찾기 운동을 시작했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같이 유대하여 결과적으로 송파구청을 상대로 승소했어요. 이후 개미마을 등 수많은 비닐하우스가 주소와 땅 지번을 갖게 되어 고지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인근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죠.

Q : 역사가 오래된 만큼 <꿈나무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 위례시민연대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A :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사례가 많아요.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현 구립오금동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던 시기에, 이 아이들을 위한 <1318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가 자연스럽게 그 옆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위해 또 청년문화센터인 <즐거운가>를 설립했구요. <즐거운가>에서는 청년들이 자기들의 진로를 탐색해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해요. 음향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자생단에 들어가서 주민자치 활동도 함께 하는 청년들도 있었죠. 졸업하고 돌아와 다시 <즐거운가>나 <1318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구요.

**Q : 위례시민연대는 송파주거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A : 제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라는 철거민 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던 2010 - 11년 경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에 기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고, 지원이 성사되어 시범적으로 6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에 만들어졌어요. 그 중 중앙 지역의 센터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한 바 있어요. 10년간 했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를 2008년에 그만두고 지역으로 돌아온 후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송파구청에 제안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마침故박원순 시장이 이런 사업을 서울 전체에 해보고 싶다고 해서 2012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죠. 위례시민연대는 2014년에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송파는 원래 거의 신도시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잠실은 동네가 조성되어있었지만 가락, 문정, 장지, 오금 이런 곳은 구획정리 사업만 되어 있고 당시 주거환경자체는 매우 열악했죠. 이 지역에서 가난한 조건으로 살게 된 사람들. 즉 비닐하우스, 옥탑, 지하방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 사당이나 성동의 금호, 행당이 80년대 말에 재개발되면서 밀려난 분들이에요. 80년대엔 이곳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비닐하우스가 갑자기 많이 생겼죠. 지금 경찰병원 자리 가락시장 인근 성원상떼빌, 개미마을, 장지마을 등 파인타운 뒤쪽, 성동구치소를 중심으로도 다 비닐하우스 같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곳에 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서울 외곽 성남이나 부천, 하남 이런 곳들로 밀려나갔구요.

그나마 나중까지 계셨던 분들 중에는 임대아파트라는 제도가 90년대 이후 조금씩 생겨나면서 2000년대 정도에 정착한 분들도 꽤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가 어려웠고, 아파트가 주어져도 못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분들은 파인타운이나 거여동6단지, 마천동 임대아파트가 생기면서 많이 수용되었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비주거주택에 사시던 분들의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거여, 마천, 삼전, 석촌, 풍납의 옥탑방, 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힘든데 이분들이 저희 주거사업의 대상이에요.

매입임대, 전세임대, 긴급주택 등 다양해진 임대아파트 제도와 주거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주민센터 등에서도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상담하고 만나서 주거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그곳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분들이 옥탑방에 살다가 서울이나 LH가 매입한 빌라에 가니까 주거 상태가 나아지는거죠. 임대료를 못 내거나 연료비를 못내서 가스가 끊기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일이 찾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Q : 주거 문제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의 의제가 있을까요?

A : 제가 이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는 지역정치를 확실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가 절실하죠. 위례시민연대에서 실제로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을 배출한 바도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공들이는 것은 활동가 교육이에요. 청년들에게 경제학, 역사 이 두 가지를 주제로 6개월씩 교육을 진행 중이죠. 내년에는 환경 의제도 다뤄보려고 하구요. 이렇게 교육받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을 하거나 직접 정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권을 젊고 참신한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활동의 시작점은 철거였고, 이걸 결국 가난의 문제인거죠, 그런데 가난의 대물림은 어른들 사이에서 협동조합만 한다고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부터 교육을 통해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의식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내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유입으로 뜻을 맞춰 연대하고, 구의원도 몇 더 배출하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정구 의원과 함께 있었는데, 실제로 정치에 들어가서 바꿔낸 것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방식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역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치로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키우고 싶어요.

Q : 위례시민연대에서 다루는 정치, 청년, 환경, 주거복지 등의 의제 외에 지역에서 좀 더 부각되어야 할 의제, 지역의 문제로 보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이 지역의 문제라고 국한될 수는 없지만 다문화 의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건강가정다문화 센터를 수탁하려고 하면서, 예전에 어설프게 희미하게 알고 듣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생각하게 된 것이 많아요.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용어를 없애는 운동을 시작해야 하려고 해요. 7월부터 공식적으로 수탁할 예정이어서 '다문화'라는 말을 없애는 운동을 지역의제로 꺼내보고 싶어요. 송파에도 다문화 가정이 거의 4,000세대 정도로 꽤 많죠.

Q : 그 밖에 송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오신 시민활동의 경험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잘 되지는 않았지만, 가락시장을 도매시장의 역할과 더불어 품물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추진했었어요.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인데, 현대화 과정에서 좌판을 깔고 하시는 분들 중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현대화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송파노점상연합회와 함께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것이,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역할을 하면서도 품물시장(전통시장)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노점상 부스를 새로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락시장에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을 두 차레나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검토단계죠. 그나마 조금 발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의뢰한 상태이구요.

시장에 경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도 하고 있어요. 시장도매인제도라는게 있는데, 현재는 한국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같은 법인들이 전체 농수산물을 가져다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종의 통과세를 받는 것인데 생산자들은 온전히 자기 제품의 권리를 법인에 맡기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주는대로 받아서 소비해야 하죠. 그래서 개인이 각자 산지의 물품을 받아서 시장에 풀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려고 해요. 강서시장은 이걸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시장현대화도 좋지만 거래의 형태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통관해 온 농산물을 또 경매세 4%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정가수매제, 시장도매인제도 등을 추진하려고 해요.

Q : 함께 하는 활동가는 어떻게 조직하고 모으시나요?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송파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과 따로 또 같이 필요할 때 만남.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송파 지역에서는 송파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모임이 있고, 우리도 필요에 따라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하기도 해요.

저는 철거현장에서 주민운동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주민운동교육원이라는 조직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민운동교육원은 1969년 시작된 운동인데요. 월드비전의 오재식 선생, 박형규 목사, 허병섭 목사 등이 미국의 슐 앨런스키라는 시민운동가가 만든 지역주민조직운동이론을 가지고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를 통해 교회가 엄중한 시기에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주민운동교육원 1기에는 제정구, 손학규, 전 기독교방송 사장 권호경 목사 등이 있고, 광주(성남) 대단지 사건 시 활동했던 이해학 목사 등이 2기예요. 주민운동교육원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활동가 교육기관으로 저는 작년까지 운영위원을 맡았어요. 이렇게 활동가를 훈련시키는 조직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젊은 활동가들을 새로 만나고 연대를 하고 있어요.

함께 결합하고 연대하는 단체는 송파시민연대예요. 송파시민연대의 김현중 씨는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송파에 들어왔어요. 저는 철거 쪽에 있었다면 김현중 씨는 야학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30년째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이예요.

Q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앞으로 정치나 청년, 환경 등의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잘 하고 싶고, 그래서 회원을 1,000명까지 늘리려고 해요. 2017년 1년간 비전워크숍을 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학교도 해봤죠.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 시민 각자가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찾아서 교육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올해 세워놓은 계획이 4개 정도 있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어 늦어도 8월달엔 시작하려고 해요. 또 교육을 통해 회원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회원이 있고 단체의 규모가 커져야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그렇게 힘이 있어야 주장하는 바가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Q : 활동가로서 온전히 집중해서 했던 운동과 또 그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A : 제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가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예요. 당사자인 제가 가난했고,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 인간적인 대접을 못받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해왔던 거죠. '이 가난을 어떻게 이겨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혼자 하거나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엔 철거반대 투쟁을 하다가, 철거민과 함께 옷도 만들어보고, 협동조합 달팽이건설이라는 건설사도 운영했어요. 같이 잘 살아보려고 어른들이랑 여러 시도를 해보았고 그러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공부방 등의 운동도 하게 된거죠. 일관되게 가난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주거기본법과 최저주거기준도 만들어지고, 임대주택 제도도 다양해졌구요.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나쁘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송파시민연대 | 김현중 운영위원
(현) 송파연대회의 의장

송파시민연대 | 김현중 운영위원 (현 송파연대회의 의장)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

**Q : 현재 <송파연대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단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송파연대회의>의 정식 명칭은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서 지역에서 진보적 흐름을 함께 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예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빈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만들게 되었어요. 월 1회 회의를 통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의 현안이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기획하며 실행합니다. 주로 구정 감시, 의정활동 감시 등을 하고, 연대가 요청되는 사안이 생길 때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연대하며 같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Q : 연대체가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A : <송파연대회의>는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각 구의회에서는 의정비를 구민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인상을 해요. 당시에 송파구 의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의정비 책정을 했는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의원 세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주민들 15,000명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 제출했어요. 송파구 인구가 그때 60만 명이었는데, 15,000명에게 실명으로 서명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주민의 힘에 기초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 일을 계기로 의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주민 발의가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때 운동을 같이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김에 지역 문제를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연대체를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게 <송파연대회의>예요.

Q : 시민사회 활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A : 제가 활동을 시작했던 86년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대중단체라고 하면 야학, 교회와 성당의 청년회 이 정도였고 저는 야학으로 거쳐, 마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다산 야학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들과 5년 정도 함께 생활했는데요.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5.18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야학 활동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 야학에서 5년 정도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도서관을 만드셨죠.

A : 당시 노동자들이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이었는데 야학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 성장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이웃사랑도서관이에요. 89년에 도서관을 만들고 제가 초대대표를 맡았어요. 책을 매개로 문화적인 소모임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렇게 5년간 운영을 하다가 시민단체로 전환했어요.

**Q : 이후 송파시민연대를 만들게 되셨지요.
평화,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A : 94년에 송파사랑주민회를 만들었고, 2000년에 송파시민연대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도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화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 자치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의정 감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나눔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송파희망세상 지역아동센터>라는 병설지역아동센터를 2005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Q :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평화통일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A : 통일 이슈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광역 단위에서도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6.15나 8.15등 통일 관련해 의미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거나 저희가 참여를 하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진보연대 등의 단위와 협력해서 매년 '통일 한마당'을 개최하는 거죠. 다양한 부스를 차려놓고 통일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요. '통일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알리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구요. '통일 아카데미'는 통일과 관련된 현 정세와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과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진행을 했어요.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통일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큰 번곡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4.27 선언도 그렇구요. 이 선언들만 지켜도 통일의 과정이 진일보할 수 있어요.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통일 문제로 연결된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의 나라 중에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고, 이외의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통일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중재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다른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남북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해요.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통일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실익이 된다는 거죠. 통일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선언을 통해 정해진 내용들을 힘있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자가 신뢰 안에서 서로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해요.

Q : 의정 감시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나요?

A : 구 의정활동은 상시로 모니터링 해요. 그리고 3~4년에 한 번씩은 송파연대회의 이름으로 구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정식으로 하죠. 의원들의 임기 말 즈음에 활동을 분석해서 1등에서 24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요. 5분 발언의 내용, 발언 횟수, 출석률, 조례제정 수 등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예요. 구의회의 주요 활동은 조례제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조례를 얼마나 만들었는가 그게 가장 배점이 높죠. 그리고 발언 내용이 얼마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반영해왔는가 등 자료를 모두 받아서 단위별로 분석을 하면 순위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때 되면 구의원들도 긴장을 하구요. 의원들을 초청해서 시상도 하고, 백서도 발간해요.

그리고 구청장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해야 할 구청 활동은 방대하고 저희는 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쉽지는 않아요. 새 지방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는데, 임기 말 전까지 공약 이행도라도 반드시 평가해보자는 게 지방자치와 관련해 현재 저희가 가진 자그마한 목표예요.

**Q :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회의를 꾸려서 현재 활동 중이시죠?**

A : 가락시장은 1986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의 공영시장이에요. 개설자가 서울시장이고,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면서 우리나라 먹거리의 30%를 책임지는 곳이죠. 여기에서 정해진 경매 가격이 대한민국 1차 상품의 가격 기준이 돼요. 이러한 가락시장이 사실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고 도매와 소매시장이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상태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의 개선을 위해 2008-9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현대화 사업 계획을 해서 오세훈 시장 때 공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시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의 고민이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겉모습만 보기 좋게 하는 것에 공을 들이려고 했고, 그것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민사회 50개 단체가 연대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전면재검토를 위한 대책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때 위원장을 제가 맡았죠. 6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현대화 공사가 2029년에 끝날 예정이니 현재도 진행 중인 활동이죠.

시장에는 그 시장을 함께 만들었던 주체들이 있거든요. 가락시장에서 30년 동안 유통상의 역할을 해왔던 노점 상인들, 하역 노동자 등 가락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대화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세금을 투명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문제였죠. 무허가 상인들이 지속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리는 일, 시장 안에서 생산자인 농민, 유통 상인 그리고 소비자 이 세 주체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대안을 계속 내어놓고 있어요.

저희도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다 보니 교수들을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사례 분석을위 해 외국도 직접 자비로 다녀오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어요. 건축사를 직접 섭외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 서울시 관계자에게 제시한 적도 있죠. 공사의 큰 부분이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계획을 전면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대책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시장의 운영 면에서도 일정하게 성과를 낸 측면이 있다고 봐요.

Q :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A : 예전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가 법제화된 것이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서울시가 보편적 아동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키움센터를 만들게 되었구요. 키움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죠. 키움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돌봄이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이 있어요. 서울시가 올 7월 1일부터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법인에만 적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적용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약자의 아이들은 집에서의 돌봄이 힘들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차별시키는 거예요. 차별적 단일임금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6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에만 430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4,000여 개가 있어요. 서울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이게 기준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조직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저도 TF에 들어가 모임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죠.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A : 제가 직업이 뭐 줄 아세요? 저는 사실 전업 활동가가 아니고 생업이 따로 있어요. 택차를 몰고 있는 25년 차 트럭 운전사예요. 저는 저 스스로가 노동을 해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돈이 나온 일이 없거든요. 제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나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5년째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Q : 시민사회 활동가로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시면서 바라는 사회변화의 상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각자 자신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래에서부터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초들에 의해 이루어서 촛불로 이루어서 정권교체라는 선물을 지금 여당에 안겨준 거잖아요. 여전히 털거덕거리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역사의 진보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시대 사람,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생활인 중에서도 그래도 같이 가는 사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들과 문제를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문화살림 | 오덕만 대표

문화살림 | 오덕만 대표

한성백제 역사를 잇는 지역공동체를 꿈꾸다

Q : 사단법인 <문화살림>은 어떤 곳인가요?

A : 우리 문화재를 보존, 교육,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문화재는 공공재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국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문화살림>은 시민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어요. 1999년도 위례역사문화연구회로 시작했고, 2013년에 문화재청의 비영리 법인단체 승인을 받아 현재의 문화살림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가장 우선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제가 사십 년 전 송파지역에 처음 들어와 보니 소중한 백제 초기의 유적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구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혼자 힘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도 시민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 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지킴이 활동, 노인 중심의 시니어 지킴이 활동, 가족 중심의 가족지킴이 활동 등 활동하는 대상층이 다양해요. <문화살림>은 송파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송파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문화재를 돌보고 있어요. 성균관지킴이, 창덕궁지킴이, 한양도성시민순성관, 송파한성백제유적지킴이 등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예요. 사실, 송파구 주민들은 여기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 보다 송파라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전입한 이주민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송파의 오래된 역사와 단절되어 있어요. 주민들에게 한성백제유적에 대해 알리고, 보존과 활용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999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다른 봉사와는 달리 문화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 위촉 교육, 문화재 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문화유산교육사 양성교육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에 소재하는 국외소재문화재 인식을 개선하고자 '국외소재 문화재 서울시민아카데미'와 '북한문화재바로알기 시민교육'도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 문화재를 다루는 이유는 특히 고려, 고구려 유산은 북한에 많아요. 문화재를 통해 단절된 남북민의 동질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는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에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개방해두면 훼손도 심각하고, 사람에게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폐쇄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다보니, 오히려 자연적인 문화재의 부식과 훼손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보존을 위한 활용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문화재를 개방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문화살림>도 이에 발맞춰 파주에 있는 반구정(황희정승이 관직에서 물러나 지내던 곳), 파산서원(조선시대 서원), 송파의 석촌동고분군, 풍납토성 등을 활용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Q : 어떤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게 되셨나요?

A : 송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마침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했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문화유적답사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의 친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들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현장체험 주말학교를 여러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고, 매주 주말은 우리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으로 보낸 거죠. 이렇게 문화재 교육 활동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석촌고분역 등 지역 문화재의 이름을 사용하는 역 이름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올림픽 공원에 가면 백제 유산들을 볼 수 있어 백제 역사에 익숙해 졌죠. 1980년대 중반만 해도, '한성백제'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송파 지역은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475년까지 총 493년 동안 백제의 터전이었어요. 공주는 63년, 부여는 122년 정도였으니, 송파구가 백제 역사의 메인 터전이었던 것이죠. 1980년대 전에는 교과서에서도 이런 사실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어요.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문화재 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시굴조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백제의 고도화된 문화재들이 발견됐어요. 당시 송파구청 김성순 구청장이 언론을 통해 '한성백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송파구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성백제'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게 됐죠. 다음세대와 지역사회에 한성백제의 역사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문화재 보존과 교육, 활용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했고 그렇게 문화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Q : 풍납동이 역사문화특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어요.

A : 현재까지 송파구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풍납동만 하더라도 지하 6m 정도만 내려가면 백제 문화권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 추측해요. 현재 풍납토성에서 발굴된 유물만 보아도 경주보다 더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물려주고, 가르치려면 보존과 교육, 활용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개발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는 단순 걸림돌로 전락했고, 불편함과 지역의 낙후를 우려하기도 해요. 송파구는 경기도 광주의 일부였고, 1975년 서울시 강남구가 되었고, 1979년에 서울 강동구로 분구가 됐어요. 그리고 1970년에 강남권이라는 새로운 도시(송파)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시작됐죠. 7~80년대 도시계획에 의해 많은 아파트들과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풍납동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풍납토성이라는 문화재와 토성 안에 재건축으로 인한 발굴에서 나타난 유물 때문에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 권역이라는 제약에 걸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나고 타지역에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마련 등 이런 것들이 풍납동 주민들에게는 울분이 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 서툴렀다고 생각해요.

문화살림은 이 갈등에서 문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마을이 아니라, 문화재로 인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화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마을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지원과 기반마련을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도시재생사업에 풍납동이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반가움이 앞서지만 제대로 만들어 갈지에 의문이 앞서기도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문화살림은 일찍부터 풍납동에서 문화재보호활동과 생생 문화재라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Q : 문화살림이 꿈꾸는 역사문화특화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인가요?

A : 도시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면 지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슬럼화되죠. 그런 도시를 슬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면 돌아오도록 조치가 필요해요.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문화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자리를 잡아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송파는 한성백제 역사 500년과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풍납동에는 국내 최대의 고대 성벽인 풍납토성이 있고, 백제 오백년의 왕도지이며, 이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풍납동에 가면 백제가 보이지 않아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토성벽 밖에는...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백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8~90년대 풍납동은 알아도 2천 년 전, 천오백 년 전 아니 불과 1~2백 년 전의 풍납동에 대해선 들은 바도 없고 그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죠.

현재 풍납동은 5권역으로 나누어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요. 1권역은 성벽, 2권역은 왕궁지로 추정되는 위치상의 지역, 3권역은 유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4권역은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많은 문화재가 이미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 5권역은 성벽 밖이에요. 우선보상 대상 지역인 2권역과 3권역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정부는 이 지역의 건물들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어요. 건물을 차례로 매입 중이기 때문에, 매입된 건물은 주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역의 전 건물 매입이 끝나면 그 지역은 문화재 발굴이 시작될 수 있겠죠. 다만 해당 지역의 건물이 모두 매입될 때 까지는 부분부분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문화살림〉은 이 스포팅 공간들이 주차장의 역할을 넘어 사람들이 정착하고 모이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매입된 공간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송파 지역에 정착하고 예술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송파 주민들이, 특히 송파의 문화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연대하고 교류함으로써 송파만의 역사문화특화 도시가 되었으면 해요.

Q : 문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송파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A : 문화 소비도 중요하지만, 생산 축의 라인이 튼튼해야 결국은 고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문화 생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생산자들의 힘을 키워줘야 해요.

송파는 강남 3구라는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송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개발과 신도시’에 관심을 갖다보니 송파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지역이란 인식이 커요. 그러다 보니 지역 공동체성이라든지 지역문화 발전이 타구에 비해 어려웠어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지역은 공동체성이 강한 반면에 배타성이 강한데, 여긴 공동체성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배타성이란 게 없어요. 송파의 문화정책은 관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역의 예술인, 문화인,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에 의해 문화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깐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요즘 들어 마을공동체사업이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지만 이 또한 관 주도의 하향식 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문화살림>은 지역의 문화 소비자를 문화 생산자로 세우는 역할을 조금씩 해왔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Q : 문화포럼 ‘송파만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A : 맞아요. 지난 3-4년간 송파의 문화예술인들을 꾸준히 만났어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며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예전부터 늘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송파문화예술문화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운영했어요. 2019년까지 3년 동안 해오다가 작년에 송파구에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됐고, 올해 재단에 네트워크 운영을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문화포럼 ‘송파만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송파만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인재 발굴이 중요했어요. 어디서 어떤 분이 활동하시는지 찾아내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지역 문화 진흥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봤거든요. 송파만파를 통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며, 지역의 문화단체나 젊은 예술가,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풍요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 물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자 해요.

송파가 가장 이상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역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송파구가 세계인들에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백제 문화가 담고 있는 조상들의 정신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시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송파의 문화에서 아시아의 문화, 더 나아가 세계와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송파만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요. 지금 모인 회원들 대부분이 지성과 문화적 소양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이예요. 전직 대학 교수, 역사 관련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해요. 이들이 힘을 모아 창의적으로 유산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전한다면, 그리고 세계에 우리 백제 문화의 정신을 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Q : 송파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전 세계에 백제문화를 알리기까지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 : 정말 많은 기관, 단체, 개인과 연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문화재를 보존, 교육, 활용하는데 각각 네트워크를 두고 참여자와 활동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죠. 네트워크는 너무나 중요해요. <문화살림>은 20년째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각개전투, 각자도생은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해요. 사실 우리 NPO들과 정부는 상생을 해야 하는 관계인데, 현재는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려면 우선은 NPO들의 역량이 커져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퍼스트페이지 일상문화협동조합 | 공유선 대표

퍼스트페이지 일상문화협동조합 | 공유선 대표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이 연결되는 환대의 공간을 꿈꾼다

Q : 대표님과 현재 하시는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협동조합 퍼스트페이지의 이사로 일하는 활동가이고,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송파협동조합협의회,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지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동남권NPO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커뮤니티허브공감의 상임이사와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시민,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교육과 책을 매개로 다양하게 풀어왔고 현재는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에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가 거대하지만 단순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치와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했지요. 그 시대에는 집단, 국가 같은 담론에 개인은 중요한 존재로 인정되지 못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개인의 선택권, 행복권이 무시되는 것에 질문이 많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란 문장을 만났을 때 흥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대부터는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어요. 기후 위기,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 노령화와 양극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적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Q : 30여년간 다양한 공익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활동의 여정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1989년 대학 졸업 후, 노원구 하계동의 양돈마을 공부방 실무자를 시작으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현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 시민회 활동을 하면서 삼양동(현 미아 2동) 산동네에 ‘책읽는

마을’이라는 도서대여실을 만들었어요, 주로 동네에서 청년들과 독서모임을 하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지역 활동을 했지요..

시민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고 큰 아이를 낳으면서 1995년에 친정 근처 송파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책읽기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강동송파시민회로 책읽는마을 활동을 옮겨와 10년 간 ‘함께크는우리’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시민회 사무실에서 출발해 저희 집 가정도서관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1997년 잠실시영아파트 1층에서 3년간 품앗이공동육아와 어린이도서관을, 그리고 풍납동으로 이전해 7년을 운영했습니다. 많을 때는 150명의 회원이 월 1만원씩 후원해서 임대료와 책 구입비, 반 상근 활동비를 충당할 만큼 활동이 활발했어요. 당시에 격월로 내는 소식지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활동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앞서간 거죠. 송파지역 놀이터에서 놀이터축제도 하고 인형극 엄마들의 찾아가는 공연, 가족나들이, 품앗이공동육아, 부모교육강좌와 어린이독서클럽, 다양한 엄마 모임들을 진행했어요.

2000년대 전국에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급속하게 많이 생겨나면서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현)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라는 비영리단체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2007~2008년 사이에는 도서관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작은 도서관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고, 상일동으로 이전한 후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강동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주체가 되었지요.

저는 시민회에서 위탁한 강동구립작은도서관 ‘웃는책’의 관장을 2년하고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상임이사를 하면서 전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 안식년을 가지던 중에 우연히 옛날 풍납동 도서관 시절부터 함께해 온 엄마들과 공동체 공간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지역운동, 공동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왔었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건강하고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했거든요. 8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초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에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비용을 지원받아 마을카페 ‘퍼스트페이지’를 5년간 운영한 후 2018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어요.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2015년 송파아이쿱생협의 이사장을 맡게 되었는데, 임기를 마친 후엔 생협과 협동조합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퍼스트페이지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어요. 3년 반 가량 두 활동을 병행하다보니 퍼스트페이지의 초창기 멤버들과 마을 공간으로서의 비전을 고민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거든요.

Q : 대표님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A : 첫 번째는 활동과 육아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활동비라는 개념도 없었고 독박육아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었어요, 공동육아가 막 시작되었지만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중심이었어요. 저와 같은 여성들이 당면한 공동관심사가 육아, 건강한 부모 되기였고 이런 욕구를 함께 해결하면서 여성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사교육과도 거리를 두고 엄마들이 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보고 놀아주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위해 회비를 내는 조직을 만들었지요. 개인적으로는 큰 아이는 7살에 3개월 잠깐 유치원을 다닌 것이 전부고 둘째와는 6,7살 2년을 함께 보냈지요. 대부분 가정과 도서관에서 키웠어요.

두 번째는 책읽기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책읽기를 사회적 행위로 만들어주는 곳이 독서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알게 된 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 없다면 책은 쓸모없는 지식과 아집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하면서도 독서모임을 계속 만들었고 지금도 퍼스트페이지 한 코너를 작은 서점으로 만들어 책을 소개하고 독서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제가 어떤 일을 하던지 저의 일상이 되었고 열려있는 학습자이자 소통과 공감을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Q :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개인적으로 저는 ‘각 개인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해왔습니다. 사회적 의미로 보면 마을 운동이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공간으로 시작한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활동들이 공공도서관의 의미, 역할, 책무성에 영향을 주며, 더 많은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만들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함께 진행했던 도서산간벽지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이 기억에 나요. 전국 100여개 학교에 좋은 책 꾸러미를 보내며 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운영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어린이책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이 아이들을 만나며 작가로서의 소명감을 더욱 깊이 가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어요. 제일교포들이 지켜낸 조선학교(우리학교) 책보내기 교류 활동도 작가, 출판사, 서점, 문화 기획자들과 10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 7년간의 퍼스트페이지 활동에서는 지난 20년의 변화와 맛먹을 만큼 빠른 시대를 보냈는데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점검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공동운영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나름의 성과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협동조합이기에 도전해보는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역할을 2년째 하고 으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고, 나눔교육사 양성과정을 통해 시민성, 세계시민교육,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아리 모임이 탄생했어요. 특히 올해는 서울시도농상생공동체 네트워크사업, 동남권NPO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해 역할을 하는 운영진들이 다양해졌다는 것이 보람이네요.

Q : 지역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느끼셨던 연대와 협력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지역 네트워크 조직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데요. 송파지역은 시민사회의 역사적 뿌리가 깊고 활성화되었지만, 각자의 영역들이 협력하는 구조들에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단체들은 회원 구조나 사업 목표를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과의 융합이 힘든 지점이 있고요. 협동조합협의회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에서는 규모화를 위해 연대밖에 방법이 없는데 민주적인 운영 경험이 취약하고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네요.

송파지역 네트워크의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타까워요.

오히려 송파구는 민관협력을 관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어서 민민 네트워크 기능을 더 잘 해야 하는데 말이죠.

Q : 하반기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제가 있으신지요?

가장 큰 이슈는 올해 10월 퍼스트페이지 공간의 임대료가 만료되기 때문에 공간의 지속과 이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퍼스트페이지가 협동조합이 된지 2년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새로운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커뮤니티허브공감의 상임이사로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과제인데 서울 지역 민주시민교육 디렉토리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또한 동남권NPO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Q: 올해 출범한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시민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모색하고, 실험하고 제도화되도록 전방위로 활약해주길 기대합니다. 송파구는 송파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데 건강한 네트워크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센터가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교육들이 단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재원이 투입되다보니 필연적으로 평가가 뒤따르고 정량적인 결과에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압박이 현장에 오면 일이 되고 중복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해 기획한 것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고, 너무 서둘러 성과 중심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강남향린교회 | 김경호 담임목사
(현) 송파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대표

교회 부설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통일촌에 있는 아이들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함께 돌봐줬어요. 나중에는 역시 비닐하우스촌인 개미마을에 송파꿈나무학교를 세우기도 했구요.

그때 송파구에 비닐하우스촌이 4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화훼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1999년에 여기에 화재가 나면서 거기 있던 비닐하우스 117세대가 전소되었어요. 한겨울인데 400여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당시 강남향린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기에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호소했고, 그곳 주민 대표와 제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주변 교회나 사회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3개월 동안 주민들의 먹거리도 책임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5천만원의 복구비등을 비롯해 기타 단체의 성금으로 6개월에 걸쳐 117세대 전체를 복구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연대해 송파구를 상대로 투쟁도 하고, 이 사건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렸죠.

송파구에서는 이분들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근거가 없다고 계속 지원을 거절했어요. 사실 주민등록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주민등록법에는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소유와는 상관없어요. 세입자도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주민등록을 받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남의 땅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을 받지 않아 무적자를 만드는 것이죠. 당시에는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약 60만명 정도가 전부 불법거주자가 되어 주민등록 없이 살게 되니 이분들은 복지나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거권 회복 운동도 함께 했었어요.

비닐하우스 주민 중에 개미마을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주민 두 분을 설득해서 송파구 문정동사무소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행정재판을 했어요. 일심에서 승소하고 고법까지 승소했는데 송파구에서 승복하고 송파구 내의 비닐하우스 주민들만 전부 주민등록을 내주었어요. 아마 행자부에서 대법원까지 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듯해요. 우리는 내심 대법 판결을 받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전국의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 60만 명 전체가 주민등록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송파구가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구내의 비닐하우스 주민들만 우선 주민등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투쟁 끝에 동네에 그동안 없었던 수도와 전기 시설도 들어오게 됐지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민사회 활동이자, 보람이 컸던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강남향린교회 | 김경호 담임목사 (현 송파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대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생명을 돌보는 작은 교회

**Q : 1989년故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을 계기로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1987년도에 명동에 있는 향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향린교회는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에 늘 앞장섰던 교회였어요.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활동하던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1989년도故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예요. 그때 방북 사건이 언론에서 매도를 당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 향린교회 담임 목사셨던 홍근수 목사님이 91년에 TV 토론회에 나오셔서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해 하셨던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죠. 북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곳이고, 북녘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북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의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당시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셨던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나 평화 그리고 민중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후 송파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 93년에 송파 지역에 강남 향린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되셨죠?

A : 네. 강남 향린교회는 향린교회 40주년 기념 교회로 송파지역에 세워지면서 제가 이곳의 담임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 근처에는 통일촌이라는 비닐하우스촌이 있었어요.

송파는 88올림픽 이후로 갑자기 개발된 곳이어서 지역의 시민운동이라는게 없었어요. 93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오면서 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향린교회를 아니까 교회를 자주 방문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마침 그해 송파에 올림픽때 쓰던 시설을 국민체육공단이 경륜장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경륜반대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투쟁했는데 그것이 송파에서 일어난 최초의 시민운동이었어요. 주민들과 더불어 경륜장반대 시민연대를 조직해서 강남향린교회에서 결성식을 갖고 저는 대표를 맡았어요. 일년 정도 경륜반대 시민모임을 하면서 지역에서 행진도 하고 집회도 많이 했죠. 그 때 함께 했던 단원들이 경험을 가지고 강동, 송파에 시민단체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아서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94년도였어요. 지금 위례시민연대 대표이신 임근정 선생이 계셨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가락시장 상인 노조, 노점상연합회, 아산중앙병원 노조 등 17개의 단체가 모이게 됐어요.

Q : 2000년도에는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지역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셨죠?

A : 네 총선시민연대라는 연대체를 만들어서 2000년 4월에 낙천낙선운동을 벌였어요. 당시에 우리가 지역을 조사해서 낙천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김중위 의원이에요. 5선 의원이었고 보수정당의 터줏대감이었죠. 그분의 행적을 조사하니 권인숙 씨 성고문사건 등에 반인권적 행동 등을 국회에서 옹호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서 제1호 낙선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죠. 연대의 지역 대표는 제가 맡고 참여연대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파견되어서 둘이 공동대표를 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김중위 의원은 결국 민주당 심재권 후보에게 밀려 낙선됐죠. 그 이후에 강동송파 시민단체협의회는 회원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발전해서 상설기구가 되었고 강동시민연대, 환경단체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송파나 강동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어요.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서 이후에는 누구를 반대하는 운동은 못하고 시민 대표를 추천하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었죠.

Q :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검증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이 정당에는 상당한 부담과 긴장감을 줬을 것 같아요.

A : 2000년대 낙천낙선운동으로 보수 세력이 대대적으로 판갈이 되고, 전국적으로 그 여파가 굉장했어요. 낙천낙선운동을 통해서 거의 100석 정도가 움직였던거 같아요. 그렇게 파급력이 크니 그다음에 보수정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낙선한 김중위씨가 저와 故박원순 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죠. 자기가 월등 앞서있는 선거판에 두 사람이 뒤통수를 놓아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저와 故박원순 씨는 공동피고가 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5억을 걸었는데, 결국에 종합적으로는 낙선운동이 낙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은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었어요.

Q : 종교인이자 성직자가 교회 밖으로 나와 시민사회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A : 종교인의 활동을 교회 안에서의 일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사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정치범들을 사형시킬 때 쓰는 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이 종교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요즘으로 치자면 사회 변혁 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치범 취급을 받았구요. 종교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공의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선되는 원칙인 거죠. 전체적인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더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 종교가 사회적인 선(善)을 실천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A :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약 1/3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사회 전체가 정의롭게 갈 수 있도록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 관심이자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지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종교인들이 나와서 비판하고 선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양심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게도 한국 기독교가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위치에 있죠.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비판받을 건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는 자성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건지 한번 다시 보자는 운동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교권을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아주 끈질기게 정의, 공의,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시민단체나 사회 운동이 없었던 독재 시기나 유신정권 때 재야에서 운동을 하며 국가에 대해 맞섰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인이 많았어요. 특히 기독교의 박형규 목사님이라든가, 故문익환 목사님 등은 통일운동, 기독교 운동, 반 독재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홍근수 목사님도 그 중 한 분이구요, 밖에서는 집회를 위한 장소들이 허락되지 않으니 온갖 집회들이 향린교회에서 열렸어요. 김근태, 박노해 씨도 향린교회 교인이었지요. 교회를 통해서 운동할 수 밖에 없는 시대였거든요.

Q : 2009년에 목사님이 세우신 촛불교회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억압이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2007년 즈음에 그동안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던 기독교가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전국을 다니며 숨어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이듬해인 2008년에 '예수살기'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생겨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죠. 예수살기는 그 때 저항운동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09년에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촛불교회를 세웠어요. 촛불교회 출발과 더불어서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촛불교회는 용산 현장에 상주하며 매주 기독교인들이 예배로 함께했어요. 예수살기2는 조직으로, 촛불교회는 현장 교회로 함께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무차별 연행과 진압, 원천봉쇄로 해산당했을 때, 끝까지 시청 광장을 사수하면서 촛불집회를 이어갔어요. 결국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행당하고 재판받고 짧은 기간이지만 구치소도 다녀왔죠. 그 이후 용산참사, 쌍용차 노동자, 재능교육, 세월호 사건 등 고난받는 민중의 현장에 함께 했어요.

당시에는 정부 집회가 원천봉쇄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 해고된 노동자들끼리 집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종교 집회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기도회를 열고, 노동자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 현장 증언을 하고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발언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어요. 자기들이 겪은 억울함,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매 예배 때마다 증언하고 또 연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지원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수백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집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촛불교회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Q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A : 보인고등학교 역사동아리에서 우리도 소녀상을 세워보자 라는 제안을 송파구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걸 보고 구청장도 동의를 하고 시민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보수활동을 해오신 분들까지 이 취지에 동의해 함께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이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참여했다는 점이죠. 위례시민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당,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활동을 했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 위원회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함께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뛰고 서명도 받으시면서요. 저도 그런 방식의 운동은 처음 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연대해서 평화의 소녀상과 그 주변 평화공원을 조성했어요.

작년에 소녀상을 세운 뒤 2020년 8월 14일이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날 이런 경험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소녀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평화운동, 민주주의 운동, 환경, 생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같이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을 결성했죠. 전 추진 위원회에서도 공동상임대표를 맡았었고, 이번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에서도 상임대표를 맡았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사체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민주, 사회정의, 평화를 위한 시민활동과 교육, 체험등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죠.

Q : 올해 또 계획하신 일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의제가 있나요?

A :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전처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운동들이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평화의 소녀상 설립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연대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삶의 권리를 획득해 가기 위한 이슈들을 함께 공부하고 또 활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평화운동이자 사회정의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배제하는 문화가 이웃사랑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신앙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생명,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사회운동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이주연 사무총장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이주연 사무총장

50년의 맥을 이음과 동시에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다

Q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하KACE) 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KACE>는 1969년 설립 됐고, 전국에 30개 지부를 두고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이어온 비영리 단체예요. 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좋은 학교, 활기찬 지역사회가 필수적이에요. <KACE>는 가정,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조화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주로 지역사회교육에 관련한 조사연구, 전문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KACE> 부설기구로 부모리더십센터, 아버지다움연구소, 학교안전센터, 인문교육원, 차세대리더십센터, 시민리더십센터, 도서관센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정과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한 시민 의식과 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왔지요.

Q : <KACE>는 50년째 지역사회교육 운동을 이어가고 있군요. 지역사회교육운동이란 무엇인가요?

A : 1968년, 동아일보사와 미국공보원이 속리산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 "Community Action in A Changing World" 에서 미국의 다큐멘터리 "To Touch A Child"가 국내에 소개됐어요. 미국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이었어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은 분들이 한국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육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미국이라서 가능한 교육이 아닐까?'라며 반신반의 하는 분들도 몇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후 미국 문화원 부원장님의 집에 교육계, 행정계 전문가, 기업가, 비영리단체, 기자 등 40 여 명이 모여 지역사회교육 후원회가 결성됐어요. 故정주영회장님께서 초대 회장으로 시작해, 그때부터 지역사회 교육의 이론이 보급되기 시작됐어요.

이 운동을 가장 힘 있게 이끄신 분이 바로 故정주영회장님이세요. '있을 것도 없는데,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학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당시 단양에 시멘트 공장을 세우셨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단양 주민들이었고 이들에게 회사를 개방하셨다고 해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인 점을 고려하면, 회장님을 주축으로 모인 지식인들의 교육 운동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나 생각해보게 돼요.

Q : 지역사회교육운동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A :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꼭 행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편애가 불편했어요. 소외받는 친구들을 보면 죄책감이 들곤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전교조 출신의 교사 두 분이 오셨고, 이 분들 때문에 가끔 경찰들이 학교에 찾아왔어요. 당시 학생회장이던 저에게 1학년 학생이 찾아와 그 두 선생님을 지켜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두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두 선생님을 내쫓으려던 다른 세력의 선생님들을 몰아내는데 가세했어요.

그 이 후부터 학교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입시도 힘든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원하는 학교의 전공을 선택해 지원 하려는데도,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서울 대학교 진학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대학의 원하는 전공을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우선 서울 대학교에 입학해서 재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학교와 선생님들의 실적을 위해 내 인생이 이용당해야 되는 건가?' 저는 학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육학이 학교의 행정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고, 상상도 안하던 교육학과를 지원해서 입학했어요. 물론, 학교에 다니다보니 교육학과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긴 했지만요. 교수님과 선배를 찾아 상담을 받았어요. 주로 행정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추천해주시긴 했는데, 당시 백명희 사범대학장님께서 <KACE>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민간이 주도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렇게 1991년 <KACE>에 입사했어요.

Q : 부모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죠?

A : 1989년 故정주영회장님께서 우리사회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교육운동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부모 교육이에요. 지금은 부모교육이라는 개념이 대중화 되어 익숙하지만, 1990년대 초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죠. 교육에 관련된 많은 지식인들과 교수들이 모여 아이와의 대화법, 학습 지도법, 부모의 교육 가치관 정립, 성교육 등의 교안을 개발했어요. 故정주영 회장님도 직접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 교장 선생님 등을 모셔놓고 교육하시기도 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지금보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각했는데, 학부모회장님들 중 아이를 낳고 학교로 복귀하지 못한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120시간 정도의 교육을 1년간 진행하기도 했죠. 사실상 대학원 석사 과정보다 어려웠다고 해요. 부모교육에 대한 이론적 공부뿐 아니라 교수법 지도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부모교육 강사가 되면, 학교에 나가 15-30시간의 수업을 직접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KACE>는 온라인을 통해 탄탄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느낀 건,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이하다는 거예요. 송파, 강남 지역에서는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많아서, 교육 참석률이 높아요. 반면, 어떤 지역은 강의를 열어도 수강하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이 있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이런 교육을 더 받기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Q : 홈빌더운동도 궁금해요.

A : 부모교육의 연장선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지역사회교육회관이 송파구에 있다보니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으로 우리 부모교육 강사님들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부모교육과 청소년 진로지도, 자기주도학습법, 성교육 등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웃음을 찾고 아이들과 부모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보람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무지개빛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봉사활동 경험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만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가족들의 상처를 희망으로 채우고 절망속에서 꿈을 찾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100가정을 만들어보고자 했죠.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100가정의 변화 샘플을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예산을 마련했어요. 부모·인문교육 강사와 기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멘토단을 이루고 100가정에 1년간 방문했어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를 지원했죠. 강원도의 한 다문화가정이 기억나요. 남편이 아내를 집 근처 컨테이너 박스에 매일 가두는 가정이었어요. 평소 다툼과 학대가 잦았는데,

혹시라도 아내가 도망을 갈까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가 부모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홈빌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은 훨씬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가 확산되면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연이 이어졌어요.

홈빌더 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통대가 항공체험캠프를 매년 열어주셨어요.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기도 하고, 모의비행훈련 체험 기회도 갖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홈빌더 멘토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시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세요. 교통대에게도 늘 고맙지만, 헌신적으로 함께해주시는 많은 봉사자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이런 홈빌더 운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 사무총장이 되고 집중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본의 아니게 몇 해간 소송을 진행하느라 참 바빴어요. <KACE>는 민간단체였고, 우리 자산은 재단법인이 관리했어요. <KACE>의 운영진이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야 투명하고 건강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요. 출범 당시에는 이런 구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KACE>의 임원과 재단법인의 이사진 구성이 이원화됐어요. <KACE>가 시작될 때, 故정주영 회장님께서 지역사회교육의 확산을 위해 송파구 방이동에 거점 건물을 자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법적으로는 재단 소유였기 때문에 <KACE>는 임대료를 안낸 채무기관이 된 거예요. 소송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을 잃었어요. 이 과정에서 <KACE>의 30개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그 가치를 이어가자는데 힘을 모아 <KACE 연합>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30개 지역협의회가 뭉친 <KACE 연합>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려 7개층이나 되던 자재 건물에서 진행되던 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협소한 공간에서 나누어 하려다보니 어려운 점은 많지만, 이 운동의 시작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구성원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이 더 의미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Q :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소송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요?

A :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자산이 늘어나면 자산 관리도 그만큼 더 철저해야 함을 깨달았어요. 당연한 소리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역사회교육운동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에 집중했지, 조직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했어요. 조직이 오래될수록 운영의 민주성을 잃기 쉽다고 봐요. 50년 전 故 정주영 회장님과 지식인들이 모여 이 운동을 만들 때만 해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독재적인 의사결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기관의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요.

기관이 크던 작던, 활동 기간이 길던 짧던, 기금 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해요. 관리자든, 활동가든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NPO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새로운 NPO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NPO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오래된 곳일수록, 비움과 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KACE 연합〉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조직이에요. 또 다른 성장을 앞두고 있죠. 오래된 조직이라고 해서, 보수적이고 퇴화한 곳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싶어요. 〈KACE 연합〉는 젊어지고 싶은 조직이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위해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해요. 각 지역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구성원들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젊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현재 변화 지점에 서 있어요.

Q :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고 싶은 의제가 있을까요?

A : 장년층의 건강한 사회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송파구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때,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나래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림책 읽기를 배워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책을 읽어주는 장년층 활동가 분 50여 명을 3년 동안 양성했어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까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활동비도 교통비 수준 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간 교류가 생기고 마을공동체 회복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역의 어른이 미래세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의 자원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해요.



[사진 출처_사레뉴스 2019.11.18]

한빛청소년대안센터 | 최연수 상임이사
(현) 송파미래교육센터오금hub관장

한빛청소년대안센터 | 최연수 상임이사
(현 송파미래교육센터오금hub관장)

**송파 청소년들이 마음껏 모험하며
 수많은 가능성을 탐험하는 플랫폼을 꿈꾸며**

Q : 관장님에 대한 소개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영산포 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았어요. 의무 발령이 되어야 했지만 학생 때 전교조 간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였지요. 1992년 4월 결혼 날짜를 잡고 아내가 국민은행 마천동 지점으로 발령이 나, 함께 상경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울 생활이 너무 낯설고 힘들어 복직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요.

그러다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 시작 시간 전에 다니던 송파청소년 독서실에서 관장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지역 판자촌에 5000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되는 아이들에게 1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2명이 되었어요. 가르치던 학생 중 하나가 보이지 않아 궁금해 집을 찾아갔더니 지붕에서 떨어진 장마 비로 물구덩이가 생긴 좁은 방에 6~7명의 아이들이 모여 본드와 가스에 취해 있었어요.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이 있는 집을 동네 형, 누나들이 아지트로 삼아 모여 있었던 거였지요. 그 라인에만 이러한 아지트가 5~6개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당시 같은 교회 권사님이 떡집을 운영했는데 팔리지 않은 떡을 음료와 함께 아이들에게 가져다주었고, 지속적으로 가다보니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겨 제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들을 그 아지트에서 빼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을 그만두고 YMCA 청소년회관에서 영어, 수학,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청소년회관도 일반 가정 아이들이 와야 운영을 할 수 있어, 기존 어머니들이 아우성이 커지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버티다가 결국 한빛 길거리 상담소를 시작했어요. 무지개장애인재활센터에서 여유분의 라면과 시장에서 얻은 단무지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0여명의 아이들을 학교로 복학시켰는데 한 학기가 지나니 6명만 남고 다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 아이들의 가정을 보니 엄마는 집을 나가 지각하기 일쑤였고, 학교에 가면 맞으니 견디려 결심했다가도 중간고사가 끝날 즈음에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학교를 또 다시 그만 둔 아이들이 복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야학을 시작했어요. 특강을 나갔던 강남 사랑의 교회 청년단이 자원봉사로 도움을 줬어요. 지역사회 큰 교회들에 요청해 토요일마다 먹을거리를 마련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이들의 아지트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빈속에 술을 먹고 취해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김밥과 샌드위치를 나눠주곤 했는데 처음엔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도끼눈으로 쳐다보다가 배낭에서 음식을 꺼내며 속 버리니 안주랑 같이 먹으라고 나눠주면 자연스럽게 무장 해제가 되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지역사회 병원과 경찰서를 연결해 도움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함께 기도해주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중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 센터 옆에 월세방을 얻었는데 6호까지 늘어났어요. 이 곳에서 거주하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저녁에는 센터에서 식사도 하고 야학에 참여하게 했어요. 자매나 남매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엔 적응에 성공했지만, 마천동과 오금동을 오가며 여러 차례 집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전동 LH 전세 임대를 얻어 한빛마을이라는 그룹홈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한빛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치열한 입시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고 한빛 사랑의 학교로 오겠다고 부모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졸업장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위탁형 대안학교인 세움학교를 만들어 운영했어요. 2015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의 위탁을 받게

되어 야간에 운영했던 사랑의 학교는 주간화해서 왕따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만들고, 꿈드림에는 검정고시 야간반을 마련해 연간 300~400명의 학교 밖 아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던 중 구립청소년내일찾기센터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업 플랫폼을 계획하다 초등, 중학교 아이들의 체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팹랩 미래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Q :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A : 송파구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 상담, 교육하고 자립 시스템을 만들어왔던 것, 정부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아젠다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했던 점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음 미션은 후기 청소년들의 자립 문제이고요.

Q : 후기 청소년들에 대해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24세로 보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지원 체계에서는 만 18세까지의 지원만 있어요. 고등학생은 입시가 중심이 되니, 지역 사회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험을 서포트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사각지대가 19세부터 24세까지로 보는데요. 대학생이 아니거나 군대에 가지 않으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 돼요. 이 시기의 청소년을 통상적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대학 진학 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이 시기에 전환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창업, 해외 경험 등을 하며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서면 대학을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지지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상담하고 교육해 보호하며 최종 목적은 자립인데 검정고시가 끝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 때부터 성인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대학을 가면 숨 쉴 구멍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막한 상황인 거지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을 위해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플랫폼이 지원되어야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센터에 청년 창업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마련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체험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메이커스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Q : 새롭게 계획해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요?

A : 우선, 미래센터가 송파구의 창작 공작소와 미디어 역할을 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검정고시를 마친 고졸 아이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역할과 대학을 자퇴한 청년들이 멀리 보고 강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비전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했으면 해요.

최근 청년 제자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요식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미얀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우선 기반을 만들고 미얀마 현장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미얀마에 요리 직업학교를 만들어 교류하며 양 쪽에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Q : 오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시면 연대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혹은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도시형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협의체와 함께 협력을 해왔고요. 송파에서도 대안학교 협의회, 지역사회 청소년 협의체, 협치위원회 네트워크와 수련관, 복지관 등과 다양하게 연합해 왔어요.

한 지역에서 오래 버티다 보니 이제는 찾아와 주는 그룹도 많아졌는데 젊은 그룹이 좋은 아이들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고 찾아와 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맨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에 대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 지대에서 많은 쪽은 자발적으로 나누며 보람을 느끼고, 적은 쪽은 적대감과 분노감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가진 쪽과 적게 가진 쪽의 파이프 통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의 의제가 있으실까요?

A : 송파 아이들이 주거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지 않고 자기 강점을 가지고 송파에서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해요.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등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다른 지역과 해외로 이전해도 송파 지역과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청년들이 위험이 오더라도 도전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각 지역과 해외에서 많은 가능성들을 탐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역동성을 막아버리는 교육 현실이 답답해요. 지역 안에서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밑에서부터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Q : 현재 염두하고 있는 부분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 2011년 안면마비가 오고 나서 '내가 멈추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시스템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까지는 결함을 원하지 않았던 공적 시스템도 염두하며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한빛에서 28년 간 '독재'를 해 왔는데 이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후임 그룹에 리더십을 이양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곳을 그들에게 맡기고 저는 후기 청소년이나 초기 제자그룹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제자들을 만나, 가정을 살펴보고 갈등 구조를 완화해주는 상담을 하며 인생 2막을 이어가고 싶어요.

판자촌의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성장해 엄마, 아빠처럼 갈등이 있을 때 극단적으로 깨지지 않고 좋은 부부로, 부모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검정고시를 마친 제자들이 정비나 설비 분야, 가락시장 등에서 고생하며 10여 년간을 버텨 사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은 했지만, 부부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갈등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이를 끊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제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 유은진 센터장
(현) 구립오금동지역아동센터

Q : 그 당시 개미마을 아이들이 주소지가 없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다고 들었어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소지 찾기 운동도 함께 참여하신거죠?

A : 네. 위례시민연대와 함께 소송을 통해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를 찾게 되었죠. 당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도로도 정비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 발이 진흙에 푹푹 빠질 정도였고, 횡단보도도 없어서 교통사고도 잦았어요. 전기는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집집마다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죠. 아이들은 주소지가 없다 보니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영똥한 곳에 학교를 배정받기도 했어요. 동네에 친척 또는 아는 사람 집에 주민등록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근처로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없었어요.

주소지 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좋아져서 7년간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간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 2006년에 터전을 옮겼죠. 그 때 이 곳에 살던 주민들도 모두 흩어졌어요. 보상을 받아서 성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장지동 쪽 임대아파트를 받아 나오기도 하고, 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도 관리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집들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하구요. 저희 아이들 중에도 형편이 안좋은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없으니 거여, 마천동 쪽으로 가서 반지하 등 더 열악한 집을 얻기도 했구요.

Q :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면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건들이 안정화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고민도 생겨나구요.

A : 그때는 대학생들이 활동하던 공부방이나 야학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사회복지를 하던 시절인 거예요. 저도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마을로 들어간 거구요. 그러면서 IMF가 터졌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아동 돌봄 문제가 대대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거죠. 당시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전국에 미인가 공부방이 9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학자들 모여서 연구하고 2004년에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면서 제정된 것이 지역아동센터법이에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결정할 시기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예전 비닐하우스 공부방 시절에는 공동육아 형태로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한 그대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법제화를 하게 되면 일종의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일정한 틀 안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기가 힘들죠. 그 때는 공부방연합회라는 전국적 단위가 있었는데, 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에 모여서 공청회도 열었어요. 법 제도화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죠.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 | 유은진 센터장
(현 구립오금동지역아동센터)**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교육실천운동**

Q :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신 게 올해로 22년차 되시죠.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 지역의 개척교회였던 강남향린교회가 운영했던 하늘땅선교원이라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인근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판자촌이 있었는데 선교원에서 보육비를 50%만 받고 통일촌 아이들도 함께 돌봤죠. 선교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또 동생들을 데리러 또 선교원에 오곤 했어요. 그럼 예전에 저희가 돌봐줬던 아이들이니까 또 간식을 나눠서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하던 게 1996 ~ 97년 즈음이었어요. 그 당시 IMF가 터져서 경제적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1999년에 장지동 화훼마을이라는 비닐하우스촌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때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하고 계셨던 강남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님이 전적으로 나서셔서 교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이 일을 이슈화하고 또 화재복구에 힘을 다 쏟으셨죠. 그 와중에 이 지역에 통일촌 외에도 판자촌, 비닐하우스촌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예요. IMF 이후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이곳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지역 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교회는 고민 끝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선교원 사업을 접고, 당시에 있었던 4개의 판자촌 중에 인구가 200명 정도로 가장 많았던 개미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 <송파꿈나무학교>라는 공부방을 열었어요.

저는 선교원 시절 마지막으로 채용된 교사였어요. 일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아이들의 마지막 졸업식을 해주고 선교원은 문을 닫게 되었고, 그때 함께 일했던 교사들과 교회에서 교육 운동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함께 꿈나무 학교를 열게 된 거죠. 교회에서는 선교원을 정리하고 난 후 공간 보증금 2천만원을 내어 주셨고, 지금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신 임근정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비닐하우스 두 동을 공사할 수 있었어요. 교사동, 어린이동 이렇게 두 동을 세웠는데, 비닐하우스 공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저희들은 '50평짜리 전국 최대규모 공부방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99년에 <송파꿈나무학교>를 시작했어요.

교육적 정체성을 살리려면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부방이 있던 지역의 개발 문제, 교사 인건비 문제, 후원금 이슈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법제화 과정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면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따라야 해요. 정해진 5개의 영역별 교육을 모두 운영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니, 교육은 획일화 될 수 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저희만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저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평가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70점 맞기 운동'을 했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서류로 하는 평가보다는 송파꿈나무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삭감되지 않는 최소 점수인 70점만 유지하자면서, 서류 업무를 할 시간에 아이들을 더 돌보기로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숫자로 점수를 매기던 평가를 등급제로 변경하도록 투쟁해서 바뀌었고,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사례 관리 같은 것이 평가 지표에서 빠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현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Q. 최근에는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오금동지역아동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A : 송파꿈나무 그리고 2006년에 송파꿈나무 1기 졸업생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만들게 된 기관인 <무지개빛청개구리>는 센터장의 개인 소유 기관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지역사회 요구로 교회가 2천만원을 지역사회에 내어 냈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20년의 자원은 우리가 문을 닫게 되면 국가나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애초에 명확했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의 공공화 방안으로 구립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구립으로 전환하면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송파꿈나무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구립 전환을 준비하고 센터를 공공화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죠.

Q :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라는 돌봄 확대 정책을 내어놓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A : 저는 키움센터를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지역아동센터계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 돌봄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고요. 저는 우리 센터가 가진 고유의 교육적 내용을 잘 유지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지금 다니는 센터의 만족도가 높다면 옆에 아무리 좋은 궁전에 생겨도 안간다.'라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하죠. 저희가 공간을 옮겼어도 아이들의 변동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져도 버스를 타고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고 행복하니까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특성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과 집중돌봄, 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형태이고, 키움센터는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틈새 시간에 이용하는, 마치 마을도서관 같은 형태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이죠.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할 때 아이들의 돌봄을 연계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봐요.

사실 저는 키움센터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키움센터도 백화점식의 학교방과후 교실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의 방침인데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5대 영역의 교육을 모두 해야 하니 이걸 차별인 거죠. 제가 키움센터 컨설팅 위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키움센터의 방식으로 돌봄을 하니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피드백이 나오면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을 놀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저희가 이 고정된 평가 기준을 흔들기는 쉽지 않은데 동일한 나이의 다른 아이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역아동센터로도 그 흐름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교육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의 방식처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알고 넓게 한다면 아이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상처가 있는 아이들, 집중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강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유능한 강사라도 특정한 기술만 전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아이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센터의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해해가면서 재능을 발견해주고 뭔가를 해보도록 권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Q : 돌봄을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온전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동반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A :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자율과 자발이죠. 저희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실천하도록 돕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공부량도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요. 대전제만 교사가 알려주죠,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면 1학기 안에 우리가 하기로 한 수학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전제 안에서 본인이 진도를 맞추면 돼요. 본인이 학습량을 정해서 어떤 아이는 3월 안에 그걸 끝내고 놀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하루에 한장씩을 하면서 한 학기 내내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처벌의 경우도 그래서 저희는 자기 처벌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우리 사회에서 처벌이라고 하는 건 반성문을 쓴다던지 교사에게 벌을 받는다던지 하는 방식인거잖아요. 그게 푸코가 말한 ‘감시와 처벌’의 사회에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아이들 전체가 모여 이야기 하는 모둠 회의를 열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할 얘기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라도 좋을 치면,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할 얘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서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과 받을 게 있으면 사과를 받아요. 아이들 둘 사이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 함께 해결해가는 방식에 우리 아이들은 아주 익숙해져있어요.

직접 계획하고, 서로 상의하고,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삶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부모가 없을 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즈음에 아이들과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세미나예요. 아이들과 함께 글 쓰고 토론하고 철학책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아이들이 10대를 보내는 동안 영어, 수학, 과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철학책을 두 권만 보고 대학에 가도 삶이 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철학을 만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언젠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사람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쟁할 때보다 협력했을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하려고 하죠. 체육 시간에 보통은 잘하는 아이에게 공이 몰리게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큰 아이들이 상황을 살피면서 아직 서투른 1,2학년 아이들에게 공을 패스하고, 던져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경쟁이 없다보니 싸움이 없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뭔지 늘 상기시키죠. “우리가 놀이터에 나가는 이유는 뭘까?”, “재미있으려고”, “체육을 하는 이유는 뭘까?”, “재미있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분쟁이 나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재미있으려고 나갔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거나 이기는 것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단체로 뭔가를 이뤄냈을 때의 성과를 아주 크게 부각시키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사들도 부단히 노력해요. 저희도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세대라 다른 프레임을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교사들이 그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 철학 세미나를 해요. 센터에 파견된 공익 근무 요원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세미나에 참여해요. 강독 세미나 방식으로 작년에는 니체를 읽었고, 올해는 ‘무지한 스승’을 읽고 있죠. 책을 모두 다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의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가, 교사들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어떻게 녹일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Q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 앞으로도 계속 이 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있다면 좋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도 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구요.

공부방 시절부터 저희는 공동육아와 연계한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성남꿈나무, 강동꿈나무, 송파꿈나무, 그리고 현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하 ‘공동육아’)의 전신인 해송 이렇게 네 곳이 모여서 IMF 때 공동육아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운동을 했었죠. 부모들이 조합을 함께 꾸리고, 터전을 마련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자연을 가까이 접하며 생태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육아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공동육아의 철학을 소위 중산층 이상의 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실험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그 시기에 네트워크를 조직한 거죠.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요.

그래서 공동육아는 지역공동체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저소득기금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캠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네트워크로 활동하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를 사협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1호 사업장으로 정하고, 사협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구현하려고 해요. 투명하게 사업의 모든 자료를 협동조합의 이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실험을 올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육아 철학이 담긴 지역아동센터의 모델, 또 다른 돌봄의 주체로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키움센터의 모델을 만드는 것, 두 주체를 합친 융합형 모델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구상하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실험해 보려고 해요.

또 한편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해 지역아동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동육아의 교육 철학을 퍼뜨리고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송파 꿈나무나 무지개빛창개구리는 20년 전부터 학부모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부모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 부모는 자신을 단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일방적으로 센터에 보내면서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체계의 지형 전체를 커버하는 네트워크 모임도 구상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네트워크 말고 돌봄 주체들을 통합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공부하는 교사들의 모임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교사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들의 공공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자신이 사비를 들여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게 되는 센터장과 피고용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교사들 사이에 생기는 위계예요. 저희는 교사회 내에서의 협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이런 작은 시설에서는 내부에서 수평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역에서 하고 싶은 건 그런 소규모 시설들 두 세곳이 모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교사가 둘만 있는 센터에서 교사회의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교사가 두 명인 센터 세 곳이 모여 여섯 명이 공개적인 교사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자극받는 게 있을 거예요.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공공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공성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Q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일 외에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도 있으세요?

A : 송파에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놀이터예요. 저희 센터 옆에 공원이 개보수를 해서 바뀌었는데 놀이터는 달라진 게 없더라구요. 놀이터의 주인은 아이들인데 왜 아이들한테 묻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놀이터 사업을 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지역 곳곳에 있는 자원이나 장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묻고,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터를 만들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직접 구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본인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여기에 세금이 쓰이는 것을 경험한다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주민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이나 지향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보편적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키움센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돌봄 대상을 구분 짓는 부분에는 문제 의식을 느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6:4 비율로 받아야 하지만, 키움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조건의 다양한 보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지역아동센터는 태생부터가 어려운 아이들을 돌봤으니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인 거죠. 키움센터도 지역아동센터도 동일하게 100% 국가 지원으로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든 각자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완되어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센터에서는 원래는 학교에 있어야 하는 시간까지 아이들 돌봄을 해야하니 힘들었지만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학교의 일과까지 포함한 긴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실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평일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가려면 방과 후라 시간이 이미 늦으니 얼른 갔다가 쉬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와야 됐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니 여유있게 나가서 밥도 먹고 쉬다가 저녁에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확보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가 제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유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계속 아이들과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상상해요.



(사) 땡큐 | 윤설희 이사장

(사) 땡큐 | 윤설희 이사장

그룹홈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환경과 지역을 만들어가는 활동가

Q : 이사장님의 활동 배경과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궁금해요.

A : 젊을 때는 남편과 ‘논두렁 발두렁’이라는 혼성 듀엣으로 가수 활동을 했어요. 1970대 포크 가수로 직접 음악을 만들어 부르며 연예계에서 활동을 한 거죠. 물론 저희는 화려한 가수가 아니었고요, 아마추어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나마도 제가 그런 연예인 기질이 부족해서 첫째 딸을 낳고는 그만뒀어요.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긴장된 활동 보다는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내게 더 맞겠다고 생각하고 기타 학원을 열었어요.

작·편곡은 물론 기타리스트로도 손색이 없는 남편 덕에 학원은 방학 때면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얼마 후에 송파구사거리에 ‘논두렁발두렁 방송음악원’이라는 실용음악학원과 근처 가락아파트 앞에 ‘논두렁발두렁 음악학원’이라는 어린이 대상 학원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유아들에게 음악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Kids Art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멀리서도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찾아오는 학원이 됐어요.

가락아파트에는 당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보내고는 싶지만 교육비가 비싸 보낼 수 없는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별도 비용 없이도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줄지에 IMF가 터지면서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밤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한 탁아 형태의 돌봄 기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지방이나 해외 공연을 가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1990년에는 망원동에서 화재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방에 둔 채 문을 잠근 상태로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죠. 그 사이 불이 났고, 아이들은 그대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어요. 부모는 출근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린 남매를 지하 단칸방에 남겨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그 마음을 헤아리니 너무 속상했죠. 그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너무 아파, ‘하얀 아이’라는 노랫말을 만들고 남편은 그 노랫말에 곡을 붙여 함께 부르기도 했어요. 동생 윤설하가 음반으로 출판했죠.

그런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갔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친구에게’라는 글을 써 역시 노래로 발표했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는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편인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많이 울컥 울컥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회적약자인 이웃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요즘동에 자그마한 상가 건물을 마련할 기회가 생겨 이사 와서는 ‘키즈24 어린이집’이라는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언제라도 아이를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이웃들을 위한 보육을 계속했어요.

한 편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에도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폭력에 시달려 도망 나왔다는 미혼모의 호적도 없는 아기, 도망간 아들 내외 대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발일을 하실 때면 먼 거저귀로 아이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며 도움을 청한 이웃의 요청으로 돌본 아이도 있었어요. 지역 광고지에 ‘무료탁아상담’이라는 조그만 광고를 내서 무료탁아상담도 시작했죠. 그때 멀리 지방에서 생후 10일이 된 아기가 제 품에 보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아주 작고, 예쁜 아이들과 한 가족이 되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0년 6월입니다.

그 즈음 신문을 보다가 저처럼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전국에 60여개의 그룹홈들이 있는데, 주로 목사님이나 사모님, 신부님이나 수녀님, 스님 등 종교적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가 공통의 화제였는데 참 훌륭한 아동복지의 선배님들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그 힘으로 2002년경 빚보증을 잘못해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돕는 일에는 모두가 나설 것 같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시설보호아동들을 위해서는요. 이유인즉슨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이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아동복지의 중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앞장서서 일 해주는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찾아가 하소연하면 곧 무언가 될 것 같지만 거기까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신 송파 병의 국회의원인 남인순의원님을 알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송파구의원 출신의 이정인 서울시의원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아동그룹홈들의 협의체인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동복지단체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들과 당시 사안에 따라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룹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중심에서, 혹은 조금 떨어져서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Q :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A : 2011년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당시 아동복지법(2013년 개정)에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라는 것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때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인 근거가 너무도 절실했던 시점이었죠. 조례제정위원장이 되어 서울시 임형균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어요.

Q : 아이들의 생활환경, 즉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도 고민이 많으시다 들었어요.

A : 그룹홈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의 기초나 뼈대가 없었던 시절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해결하느라 지역과 상생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친구와 마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환경적 특성상 자꾸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마을을 꿈꾸며 2013년 아동그룹홈이 있는 건물 2층 50평을 임대해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어요. 월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도서관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을의 아이들 키워낼 이야기, 자연스럽게 시설보호아동들까지...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이 되었으면 싶었어요.

2015년부터는 '송파구 청소년문화공간 또래울 사업'을 통해 주1회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를 시작한 것도 마을의 일반아동들과 우리 아이들이 여가를 함께 즐기면서 시설보호아동들에 대한 편견,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을 문턱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2019년 1월부터는 우리 마을의 결식아동이나 이웃들을 위한 천원 어린이식당 '모락모락'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자원 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30~ 50인분 밥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봉사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게되길 바랐어요. 아쉽게도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식당 문을 닫고 있지만, 다시 열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 : 아이들에게 괜찮은 마을이 되려면 지역과의 연대가 필수적이겠어요.

A : 지금까지는 집 안에 있는 것이 편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마을의 관심이나 변화를 바라보면서 마을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들이 집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마을로 나가고, 결국은 더 넓은 세상으로 마음껏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마을 단체들과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연대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송파구라는 마을만 보더라도 연대가 훈련이 된 이웃들이나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 대한 존중,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모지에서부터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해 일한 마을주민들의 역사 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마을을 마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보다,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진짜 변화라고 생각해요.



즐거운가 | 이윤복 상임이사

즐거운가 | 이윤복 상임이사

청소년들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자유롭고 지속적인 공간을 꿈꾸며

Q : 상임이사님의 소개와 활동의 계기,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출발은 1986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전두환 시대 암울한 현실에서 막연한 반발감으로 가입한 운동권 동아리에서 몰랐던 진실에 대해 발견하게 되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 생겼어요. 87년 민주화대투쟁 때 투쟁력을 발휘해 '전설적' 활동도 했고 안기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이한열, 박종철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삶에 대해 반성하며 소외되었던 민중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당시의 마음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아요.

졸업 후 취업했던 건설 회사가 IMF를 겪으면서 문을 닫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상경해 증권맨이 되었어요. 증권맨으로 몇 만 %의 수익률을 바라볼 정도로 잘나가기도 했고 또 망하기도 하면서 신기루와 같은 돈벌이를 내려놓고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삶이 이원화되면서 절망과 좌절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 자발적 가난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지요.

큰아이 아빠 품앗이를 2년여 동안 하며 아이들과 놀이하며 노는 것이 재미있어 품앗이형 공동육아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아이들'에서 3년간 교사 활동을 했어요. 들과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고 세시와 절기 활동을 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지요. 공동육아 교사를 하며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왜 공동육아를 하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 공동육아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품앗이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재주와 시간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계급적인 한계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품앗이 공동육아교사도 행복했지만 지역의 비닐하우스 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만났던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고

그 청소년들을 더 정성껏 만나고 싶었던 차에 청소년부 교사 요청을 수락하였고 송파꿈나무학교 청소년부 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고 1318 해피존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2006년 꿈나무학교 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전용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로 독립해 개소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톡톡 튀는 활동들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14기 졸업생 까지 올해로 51명의 학생들이 센터를 졸업하였는데 아직도 졸업생 모임을 하며 센터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열심히 활동했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요. 에너지가 넘쳤던 특기 활동인 밴드, 댄스 동아리는 KBS홀, 세종문화회관 무대, 서울광장과 같은 대중광장 등 3개의 큰 무대에 서며 공연계, 밴드계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 공연 연습장이 필요했어요. 개미마을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활동이라는 인식과 신뢰로 협조가 컸지만, 비닐 하우스촌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마을 안에 섬이 되지 말자 라는 생각에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공간마련에 대해 상의를 드렸어요.

1년 간 모금사업 하면서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 연습실로 '즐거운가'라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줬기 때문에 공간을 마을에 내어 놓자는 의견을 모으고 개소식 때부터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오픈하게 되었어요. 컨셉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청소년 임대, 관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 누구나 들어오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니 마을 청소년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었어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문턱 없는 밥상'이라는 컨셉으로 식량 창고를 운영했는데 5년 동안 식량창고가 빈 적이 없을 정도로 후원이 끊이지 않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방, 밴드방에 대한 호응이 높았어요.

개소 후 4년이 되었을 때 기존의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고, 5년 째 새 건물주로부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새로운 공간을 얻기도 힘들고, 기존에 모금했던 5,000만원으로 진행한 인테리어를 놔두고 이동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지요. 새로운 공간의 인테리어로 새로 모금을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고 건물주가 철거, 원상복구까지 요구해 비용이 추가로 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즐거운가 2.0이 10년 계약으로 개소했고 현재 5년이 지났네요. 700만원 정도 빚진 상태로 시작했었고 자금이 생기는 만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초기에는 이 전 공간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즐거운가2.0은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잡았어요. 2004년부터 송파꿈나무학교로부터 시작된 마을축제를 기반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단오맞이 문화한마당'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역량들을 묶어냈어요.

그 즈음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초기 공동체 집담회부터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자평합니다. 2013년 송파마을넷의 초대 상임대표 맡아 매주 마을넷 회의와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 하였는데 그 역할을 하기위한 사무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즐거운가가 송파마을넷의 공간이자 사무국 기능을 하겠다고 자임하며 사무국 인력지원과 공간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운가는 경상운영비와 인건비 문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문화협동조합'이라는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문화와 관련된 음향, 장비, 행사, 이벤트 등 모든 콘텐츠를 주력사업으로 하며 작년까지 운영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다가 올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조합원들도 아르바이트와 취업 전선에 나가게 되었어요.

2018년에 제가 아프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후원도 축소되며 경상 활동비 고민과 압박이 커졌지요. 후원 모금 활동과 공간 지원 공모 사업에 응모하며 경상 경비 자구책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즐거운가 법인 식구들과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며 우선 공간은 유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꿈꾸고 있어요. 즐거운가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Q : 오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A : '즐거운가'는 '마을', '문화예술', '청소년과 청년 활동'이라는 세 가지 축을 지향하며 활동해 왔는데요. 특히 2013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한 20여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초대운영위원장을 맡기고 했고요. 이 사업은 3년 기한 일몰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사업의 의미가 커부처 사업으로 안착시켜 지속시켜보자고 미술소 운영진들과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적절한 정책제안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단기 지원 사업이 소관부처의 직접 사업이 되어 사업연장이 되었는데, 뛰어난 행정관료, 방향을 잡아줄 정책 연구진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들의 힘이 잘 맞으면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했지요. 얼마나 기뻐는지 만세를 불렀어요. 단순히 3년이 지나도 계속 사업 지원을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후배 기수가 생기고, 생활문화의 생생한 숨결을 맞볼 수 있는 기반 공간을 만들어 낸 거지요.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어져 즐거운가는 2017년 서울마을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는데 격려의 상으로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자축 파티를 했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2005년부터 15회까지 단오맞이 문화한마당을 송파꿈나무학교부터 '즐거운가'까지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송파꿈나무학교 시절, 매월 큰 금액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후원처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 것에만 그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장점인 아동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마을잔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시절기에 맞춰 단오절기를 되살리고자 하였고 첫째 재미나게 진행했어요. 두 번째 해부터 함께할 수 있는 단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연결과 확장으로 네트워킹 모임이 단단하게 결속되더라고요. 우리 것만 챙기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어우러졌던 것이 성공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단체가 먼저 했던 것, 평소 네트워킹의 링커 역할을 해왔던 것이 큰 힘이 되었지요. 이러한 사랑방 역할이 마을의 자생적 활동들의 모임인 송파마을넷의 기틀이 되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났던 청소년과 즐거운가의 청년들이 환류하여 다시 센터와 즐거운가, 마을넷에서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간의 과정들이 녹아있는 재생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백"의 감동에 빠지곤 합니다.

Q :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A : 저는 15년간 대표 노릇을 해 왔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활동가들이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조언보다는 책임을 쳐주고, 앞에서 몸으로 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하더라도 그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Q : 서울시동남권NPO센터에 하시고 싶은 제언이 있으신지요?

A : 현장에 답이 있어요. 동남권NPO센터는 밑바닥 정서로 보면 생소한 조직일 수 있어요. 몸으로 뛰며 현장 실무자들과 정서적으로 녹아나길 바랍니다. 현장의 실무활동가들은 밑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 줄 수 있는 서울시동남권NPO 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휴카페 빛소 | 서민석 대표

Q : 10년 이상 직원도 없이 홀로 아이들을 만나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A : 나를 위해 하루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빛소를 운영하면서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했고, 공동체 관련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조직신학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마천동과 거여동의 우범 지역에서 가출, 폭력, 가스 폭발 사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겪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공부들을 하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에는 고통과 신에 대한 질문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휴카페 빛소 | 서민석 대표

아이들이 채워가는 추억 저장소를 지키는 철학자

Q : 대표님의 소개와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학창 시절 과외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성고등학교에 다니며 연합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지역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과외 지도 활동을 했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방과 후 교사로 봉사했어요.

2009년 대학원에 입학하며 '빛소'를 오픈해 무료 공부방과 독서실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교육 봉사를 계속하다보니 아이들의 간식과 음료 값이 많이 들어 공익 근무요원을 하며 받은 급여와 선배들의 도움으로 2011년에 빛소를 카페로 전환했어요. 2012년도에는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즐거운가와 함께 청소년 휴카페라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제 손으로 직접 인테리어를 보수하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갔어요. 주방도 넓게 만들어 아이들이 편하게 음식을 해 먹고 갈 수 있게 했고요. 바리스타·음악·인문학 스쿨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했어요.

2015년부터는 송파구의 또래울 사업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행정 처리가 어렵지 않아요.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이 없어 운영적 부담은 있지만 저희는 행정 직원이 없어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기 버거웠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틈이 많은 사람이라 아이들이 인테리어와 청소도 함께 해 주었고요.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다른 카페는 뭘 하더라고요."하며 끊임없이 궁금증을 쏟아내는 아이들의 참견과 충고를 들으며 함께 운영해 왔어요. 지금은 학교밖청소년, 경계성 장애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Q : 빛소는 어떤 공간인가요?

A : 빛소는 채우고 쌓고 흘러 보내는 카페예요. 아이들이 주인처럼 채워가고 추억이 쌓이지만 또 부담 없이 흘러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다른 곳은 문을 닫았는데 여기만 열려있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곳이 아이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빛소의 로고를 보면 아이들도 짐을 지고 있어요.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짐을 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무처럼 자라 줄기를 뿜고 열매가 생기듯이 쉽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벽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세 개- 'Carpe diem(현재를 즐겨라)',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Solvitur ambulando(걸으면 해결된다)'가 쓰여 있는데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인생에 열매가 있다면 또 언젠가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체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함께 걷고 고민하다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많이 걸으라고, 또 같이 고민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당장 쉽게 답을 못 주더라도 언젠든 오면 함께 고민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 견뎌 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것이 제 철학이 담긴 카페의 모습이에요.

Q : 만났던 아이들 중에 특히 남는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이 곳에서 만났던 아이들 한 사람, 한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그룹홈,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아이들 등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저는 학부 시절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과도 아직 연락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밥벌이를 찾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아이들이 각자 역할을 하며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곳에 와서 바리스타 연습을 하며 자격증을 딴 친구가 있는데 벌써 22살이 되었어요. 그 아이와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찬반 토론도 했었고, 꿈을 향해 방황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아이였는데요.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회사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 곳에서 다시 제빵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저는 늦지 않았고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며 더 단단한 내일을 준비하고 더 잘 살아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제주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방학 때 논술 과외를 부탁하셔서, 밀려 있던 인터넷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지요. 그 친구는 영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해 경제 경영과 역사,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 주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사회의 단면을 알게 해주고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엘리트이고 기득권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에게 동전의 앞뒷면을 경험하고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시는 인권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었지요.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해 엄마가 일본인이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아이가 있었어요. 고 3 때 만나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영어강사 자원 봉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져 환청을 듣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Q : 최근 추진하신 활동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청소년 관련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 지난 해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활동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청소년을 키워드로 민, 관, 학 분야의 운영 대표들이 뭉쳤는데 저는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려거나 조직을 확장하려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중간조직이 독식하게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고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지요.

올해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며, 생활문화인을 엮어내고 마을 문화 활동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청소년 축제를 함께 해 보자는 제안도 있어 프리마켓, 청소년 공연, 청소년 인권을 위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 곳에서 진행하지만 다음에는 더 역량 있는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들을 소개해 주고 키움센터, 대안학교, 작은 도서관 연합회 등을 묶으며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Q :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더욱 작은 활동들에 집중하고 더욱 소박하게 꿈꾸고 싶어요.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점점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혼자 하는 활동을 그만하고 싶어요. 최근 문화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작은 공동체들을 모아 네트워크로 연대하며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품어내고 싶어요. 코디네이팅하며 경험들을 연결해 주고 장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박종현 이사장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박종현 이사장

세상을 이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Q : 대표님께서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해오셨던 과정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2013년에 상담센터를 열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상담센터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에 부득이하게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송파구청에 찾아가서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명함도 돌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송파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소개해주셔서 센터와 MOU를 맺고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무료나 할인된 비용으로 해주면서 지역에서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이후 송파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동, 송파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방문해서 상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송파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가 저희 존재를 알고 찾아오시고 협업을 제안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제가 목사이기도 해서 당시 상담센터를 열면서 교회도 함께 할 생각으로 대기실이 좀 큰 공간을 임대했어요. 그곳을 카페로 쓰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복합문화공간 나눔카페 ‘플랜터스’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해서 공유 공간으로 개방했어요. 공간에서 음료도 제공하면서 자율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그때 송파아이쿱생협이 행사 대관을 몇 번 하면서 생협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송파아이쿱생협과 함께 반찬 나눔 활동을 시작했죠.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리본공작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조금씩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송파지역에서 연대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주기 때는 제가 연대를 제안했고, 지역의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 <세월호를 기억하는 송파주민들>을 만들었어요. 올림픽공원부터 석촌호수까지 함께 걷고, 영화도 상영하고, 어린이들과 그림 그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촛불문화제를 열었어요. 당시에 몇백 명이 모인 꽤 큰 행사였는데, 이런 세월호 추모 활동이 이 지역 안에서 다른 단체들이나 활동가 개인들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활동을 병행하면서 인문학 강의나 북토크, 공연 등도 주최했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개인 사업으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법인을 갖춘 형태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변 분들과 뜻을 모아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어요.

Q : 상담을 위한 공간을 열면서 지역과 연결되고, 그리고 다른 단체들을 만나서 연대를 하면서 지역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 보게 되신 거네요.

A : 상담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역사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사회적 구조 등을 깊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설문이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점이 상담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없는 아이에게 갑자기 엄마를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갈등의 근본적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심리적 지지대인 동시에 사례 연구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 상담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목적이 있을까요?

A : 회복과 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 자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취, 성공주의 등에 묶여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 좀 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도 아이도 너무 숨 가쁘게 달리기만 하고 사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져요.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통해 그런 아쉬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죠.

Q : 지역 활동을 통해 함께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 일단 조직 단위로 가까이 지내는 곳은 <송파아이쿱생협>, <송파시민연대>예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 <빛소카페>, 청소년 인권 교육 강사단 <송송>,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 <송파유니온>, 마을의 대안적 커뮤니티 공간인 <퍼스트페이지>랑도 친해요. 또 요즘에는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책시민연대>와도 교류했었어요. 그 밖에도 <데미소 작은도서관>, <좋은마을공동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인투비전스쿨>도 함께 하는 단체이죠.

Q :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활동에 큰 영향을 준 사회적 사건이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아내는 20년 넘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온 사람이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익숙한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세월호 참사예요.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똑같이 느꼈는데요. 세월호 추모 활동이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요.

저는 마을이 광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중앙에 있는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마을에는 광장이 없거든요. 마을에서의 이슈가 부동산이나 교육 이야기로만 천착되는 점이 아쉬웠었는데요. 세월호 연대를 통해서 마을 안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만나게 됐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지역 사람들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Q : 교류하시는 단체들이 청소년, 교육, 노동, 생협, 어린이 책 등 다양한데 그러면 대표님의 활동 의제와 주요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A: 기본적으로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저희의 주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정치공작소> 운영하면서 정치로 폭을 넓힌 거죠.

Q : 송파 아이쿱생협, 드림스타트와 함께 하는 반찬 나눔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 반찬 나눔 활동을 한지는 약 5년 정도 됐어요. 예전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돈을 만 원씩 준비해와서 내고 반찬을 만들고 일부를 조금 가지고 가는 형태로 진행됐어요. 지금은 생협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매번 1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저희는 1년 치의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메뉴에 맞게 저희가 장을 봐 가지고 와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여기서 반찬 만들고 12시쯤 끝난 후, 차를 드시거나 수다를 나누고 가지죠.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움직여서 반찬을 배달해요. 드림스타트가 조손, 부자, 모자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결해주면 저희가 다섯 가정에 꾸준히 짬개는 1년, 길게는 2~3년 간 반찬을 배달해주고 그 가정의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봐요.

가정에는 단지 반찬만 배달해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항상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조금이라도 나뉘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말도 걸고, 상황을 살피고 모니터링 해요. 이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특히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 환경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같이 보구요. 집의 환경이 열악하다 싶을 때는 다른 자원들과 같이 결합해서 도배라든지, 정리, 방역,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해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늘 나타나주세요.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힘은 작지만 연대의 힘은 크잖아요.

Q :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정치공작소>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A : 송파는 서울시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이 거의 없어요. 일단, 송파에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송파는 강남 옆에 있잖아요. 송파 역시 소비 중심의 지역이기도 하구요.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로 생활 반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동네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네 밖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이 동네 밖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예요. 송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를 하러 간다면 잠실, 신천 정도고이고, 나머지는 홍대, 강남 등으로 가죠. 정작 송파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집이 있는 지역 정도로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성취지향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나 연대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활동의 기회 자체가 많지 않으니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청년 중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 없어요.

송파의 청년 활동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저는 청년들하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정치를 잘 모르고 큰 관심도 없고, 사실은 약간의 정치 혐오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치로 청년들과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의외의 지점을 발견해서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가 온전하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시민들도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정치 참여의 전부인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정책,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정치가 지역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는 실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소소한 것들에도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인데 청년들과 만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마침 좋은 청년들을 만나서 1년 넘게 방송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접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송파의 활동가들을 방송에 초대해 꾸준히 만나고, 송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슈나 의제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정치와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들은 결국에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보든 안보든 꾸준히 그런 이야기들을 쌓아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Q : <페이퍼보이>라는 동네 잡지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A : <페이퍼보이>는 골목재생이나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만들게 된 동네 잡지에요. 그동안 골목재생에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방식은 앵커스토어나 핫스팟 같은 새로운 것들을 골목에 집어넣고 그 새로운 공간들이 지역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방식은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은 떠나가야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 다시 말하면 기존의 것에 의미와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의 사연을 취재하고, 그것을 커버스토리로 하여 잡지를 내는 거죠. 동네 골목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매출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잡지를 3호까지 밖에 내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페이퍼보이>에 게재되었던 매장의 80~90퍼센트는 지금은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2년정도 지났는데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일정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페이퍼보이>가 저는 유의미한 도전이자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멈췄지만 앞으로 유사한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도 해보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Q :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 앞으로 관심 갖고 해보시려는 활동이 있을까요?

A :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이에요. 사협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는 플랜터스 테이블, 마을예술창작소, 생명나무 마을 치료센터, 교회 등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늘 관심 갖고 있는 의제이구요.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데, 학습 코칭이나 자기주도 학습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사교육 의존은 단순히 성적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하고 자기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의사소통능력 면에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단순히 공부를 지도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학습 코칭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지향하시는 바나 바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을까요?

A :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건강함이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약자들, 작은 사람들, 작은 목소리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시민연대 | 박지선 집행위원장
(송파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단장)

송파시민연대 | 박지선 집행위원장 (송파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단장)

송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 운동가

Q : 집행위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송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송파시민연대>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단체들의 네트워크 <송파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선입니다.

<송파시민연대>는 설립된지 15년 정도 된 지역기반의 시민단체입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성주의 활동가 모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연대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송파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이하 송아지)>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송파구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송파 청소년 인권 영화제,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교육/모임, 어린이 트레킹, 청소년 상담 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활동을 키워드로 소개하면 '송파', '지역운동', 그리고 '인권'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송파'와 '지역운동'에 대해 소개드리면, 저는 송파 지역 안에서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역 활동가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고, 이웃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해요. 서울 또는 전국을 아우르는 변화를 위한 활동도 많겠지만, 지역중심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제 입장은 굉장히 확고한 편입니다.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내 지역 '송파'를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인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지역에서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특히 노동 인권 분야에서 그렇죠. 노동인권 공부를 시작하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인권'이란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지역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한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 시민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A : 대학생 때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학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학생이었어요.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투쟁했던 주제는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대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등록금 동결 문제에 있어, 저 역시 학생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 나갔어요.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키워드로 학생 운동이 전개됐고, 서울시립대가 전국 대학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게 되었요. 모든 대학이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등록금 투쟁을 위해 애쓴 대학생들의 노력이 맺은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이어 국가가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신설되는 등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이 외에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같은 변화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활동'이 지닌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문제를 외면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더해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재와 미래가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얻게 됐어요.

Q : 시민의 힘을 경험하셨군요. 송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A :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기 전까지, 중앙당의 당직자로 활동했어요. 당을 살리기 위해 '2014 지방선거 최대출마'를 전략으로 내세웠고, 저 역시 송파구 지방선거에 출마했었어요. 그 때 송파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됐어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주민들 대부분이 아이 엄마들이었는데 모두 한 입으로 이야기하듯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출산을 권유하는 이 사회가 보육의 문제를 모든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느꼈지요. 보육을 넘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됐어요. 송파라는 지역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인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분들은 주로 남자라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선거 후보도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들을 고려한 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여 한정 짓기도 하고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여성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하나씩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고 싶었어요.

기억에 남는 지역 활동으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송파 주민들의 모임’과 ‘박근혜 퇴진 송파행동’이 있어요. 먼저, 2016년 즈음, 송파 주민들 중심으로 세월호를 추모하고자 주민 모임을 결성했던 적이 있어요.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걷기 행사, 리본 공작소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한 뜻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앞두고 송파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송파행동을 기획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직접 준비해 송파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지요. 당시 광화문 집회가 뜨거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주민 분들이 계셨어요. 이 분들이 모여 시민으로서 지역의 촛불을 밝힌거죠. 시민들의 힘은 여기서 더 강력해진다고 봐요. 꼭 광화문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촛불은 한 데로 모아지고 또 그 힘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Q : 지역 중심의 활동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A : 지역의 문제를 모두 중앙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지역의 현안을 직접 주민들이 해결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잠실 사거리에 제2롯데월드가 세워질 당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사 도중 사람이 죽기도 했고,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활동가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이슈에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내겠어요? 중앙에서는 의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 곳곳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 활동가, 지역 단체들이예요. 송파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요. 교통, 주택 등등 아주 다양하고, 그 안에는 여러 이권들이 숨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도 대신 해결해주지 못하죠. 결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할 지역 현안이라고 봐요.

Q : <송아지> 활동도 궁금해요. 송파의 아동청소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A :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송아지>는 송파구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모임들의 네트워크예요. 케이블방송업체 <딜라이브>의 노동조합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반으로 송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송아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기본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어린이 트레킹, 청소년 인문학 강좌, 취약계층 상담사업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 대표적인 활동은 ‘송파 청소년 인권 영화제’로, 2016년에 시작됐어요. 청소년, 인권에 관한 영화 공모를 받아 시상과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개가 넘는 작품이 공모에 접수됐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1월 말 즈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송파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서포터즈>도 소개하자면, 2018년 보인고 학생의 건의로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됐어요. 당시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송파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요. 청소년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직접 퍼포먼스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Q :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제는 무엇인가요?

A : 올해는 여성주의, 여성인권, 페미니즘에 관련한 활동에 주력하고 싶어요. 몇 년 전 미투운동이 시작됐죠. 이미 <정치하는엄마들>이 이 이슈를 잘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송파의 활동가로서 송파에 소재한 학교 내 미투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성폭력 문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해결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여성주의 활동가 모임에서 7월 한 달 동안 다섯 번의 강의를 진행했어요. 송파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는 활동이에요. 송파에서는 거의 유일한 모임 및 아카데미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해요.

둘째로 ‘송파구 시민과 민주주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어요. 작년 말 ‘여성’, ‘주민자치’, ‘시민단체’, ‘노동’ 등의 주제로 민주주의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임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국민들이 어떤 주인의식을 가졌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주인의식이 어떤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작년 말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것이라, 올해는 좀 더 확대해 보고 싶은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좀 있네요.

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의제들을 꾸준히 발견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강동구



강동시민연대 | 이화열 (전) 공동대표
(현) 문화놀이터 와플 운영위원

Q : <강동시민연대>가 지금 강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씨앗 역할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지점인데요. <강동시민연대>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동시민연대 | 이화열 회원 (전) 공동 대표
(현 문화놀이터와플 운영위원)**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골목 공동체를 꿈꾸며**

Q : 지금 하고 계신 일과 함께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현재 <문화놀이터 와플> (이하 '와플')의 운영위원이자, 와플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봄>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열입니다. <강동시민연대>에는 현재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구요. <강동시민연대>의 부설기관이 <와플>인데요. 올해 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봄>을 만들었어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챙기고 있구요.

<와플>은 지역 청소년의 쉼터이자 다양한 배움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와플은 '들꽃'이라는 영어단어 '와일드 플라워'의 준말인데요. <강동시민연대>가 운영하는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따온 말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부여했어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기엔 '와일드 플레이어'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와플을 굽거나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구요.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이름이죠. 초등학교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강동시민연대> 회원들과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보태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함께 <와플>을 만들었죠. <강동시민연대>가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강동시민연대>의 전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왔던 셈인데, 그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의 뿌리가 되었죠. <강동시민연대>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육, 노동, 인권,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로 흩어져 각각 활동하고 있어요. <강동시민연대>가 씨앗이자 뿌리 역할을 한 거죠.

A : <강동시민연대>가 설립되기 전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민주통일운동연합 (서울민통련) 동부지역위원회'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92년도에 이 조직이 '서울민주시민연합 강동송파민주시민회'로 바뀌었어요. 97년도에는 '서울민주시민연합'과 함께 서울지역 시민단체의 양대 조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이 '서울민주시민연합'과 통합되어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후 '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시민회'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있다가, 그 안에서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견해차를 확인하면서 '강동송파민주시민회'는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후 '강동송파민주시민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에 '강동사랑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때부터 3년간 다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6년에 <강동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재창립을 했어요. '강동시민연대'라는 이름은 2006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당시에 공동 대표를 맡았구요.

당시 '열린사회시민연합' 탈퇴 문제를 논의하면서 찬반이 있었고, 탈퇴 여부를 총회에서의 투표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당시 활동했던 분들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이 탈퇴를 찬성했고, 이분들이 <강동시민연대>까지 계속 함께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해오던 정치, 사회 민주화 운동도 계속되었고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해오던 소모임들도 강동시민연대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독서 모임, 사진 모임, 풍물모임, 산행 모임, 기행 모임 등 문화, 취미 소모임을 통해 함께 활동할 지역 주민을 찾고 그들을 <강동시민연대>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할 사람들로 연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부설기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로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설기관인데요. 처음 만든 기관이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강동꿈나무 공부방'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공동육아에 보내고 있었는데, 공동육아의 좋은 철학이 담긴 교육을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방에도 공동육아의 철학을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꿈나무공부방에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갈 곳이 필요해 그 아이들을 위한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도 만들었죠.

2013년도에는 '청소년 휴 카페'라는 공간을 열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센터에 오는 20~30명의 아이들의 돌봄을 짜여진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곳이라면, 청소년 휴 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쉼터로 운영을 해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 전후로 오거나, 그냥 놀러 오기도 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오기도 하죠.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보조를 받고 공간 보증금은 자체적으로 모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Q : 앞서 말씀해주신 부설기관 및 소모임 운영 외에 <강동시민연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운동으로 참여했던 지역 사회 이슈가 있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예전에 강동에서 '사랑의 몰래 산타'라는 사업을 운영했어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집에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소외 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을 찾아가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주고 깜짝쇼를 해주는 내용이었죠. 이 사업은 나중에 서울의 각 자치구로 확산되기도 했어요. 또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마을 학교'도 열었어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 놓는 형태였죠. 자연 교실, 요리 교실, 농촌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했던 활동 중 하나는 문화 단오제예요. 절기 살리기 운동 차원으로 야외에서 단오 행사를 열면서, 5월이라는 시기에 맞춰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등도 다루면서 주민과 교류하는 거죠. 또 7, 8월에는 통일문화 한마당을 열어 마당극 등 문화행사 등을 통해 평화, 자주 통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0년 당시에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물꼬가 트이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선거 관련한 운동도 했죠. '강동유권자희망연대'를 조직해 선거를 공동으로 대행할 시민기구나 연대 기구 만드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고, 강동송파지역 단체들과 연대해 이 지역에 경륜장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Q :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 학생 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은 군사 독재와 폭압이 존재했던 시기였는데, 서클에 가입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데모도 했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린 사실은 묻히고, 정권을 가졌던 사람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식에 학생들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경제 성장을 하느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을 폭압했던 거잖아요. 졸업 후에는 대부분 노동 운동으로 사회 진출을 많이 하지만, 제가 졸업할 무렵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때 지역 운동, 종교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활동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었죠.

저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동 문제에만 너무 치우치기엔 노동자 혁명을 이루기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였고,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변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력을 이용한 혁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선거를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선거를 잘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뽑으려면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쪽 살아왔고 결혼 이후에도 여기에 신혼집을 꾸리면서, 지역에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원 가입을 하면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Q : 지역에 들어오셔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국가적 차원의 큰 이슈와 관련해서도 운동을 함께 하신 거죠?

A : 네. 지역 운동을 하면서 정치나 사회변혁 운동에 지역 주민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FTA 반대 운동,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건, 미군 군사 작전권 환수 등 통일이나 민주화 같은 큰 이슈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사업 안에서 그런 내용을 녹여내려고 했어요. 전 국가적으로 다 모일 때는 시내로 나가고, 지역에서는 통일문화 한마당이나 단오마당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서 선전 활동을 하고 거리 서명운동하고, 또 강동시민연대 차원에서 회원 모임하고 부설기관 활동하고 해왔던 거죠.

Q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지원센터')에서도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A : 故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가 정책 사업화 되면서 2012년부터 서울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지금까지 지역에 그동안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 시민운동을 마을공동체 운동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기구가 생기면서 이후 서울시종합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설립된 거죠. 여기서도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저도 여기에 합류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센터의 마을사업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활용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공동체 회복하는데 역할을 촉진하는 일을 했었죠.

Q :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지역으로 다시 왔을 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A : 계속 현장에 있다가 마을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에 들어갔는데, 인력의 대부분이 저처럼 현장 출신이었어요. 모두 마음은 현장에 가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스텝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위상 정립을 하기에 바빴어요. 플레이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정책과 지원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스텝의 역할을 배우게 된 거죠. 현장 활동가로서만 늘 활동하다 스텝으로서 기획과 지원을 하는 역할을 경험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니 두 가지 분야를 모두 녹여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단체와 연대 활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수월해졌고, 관공서와 협업하는 일도 더 익숙하고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관공서와 협력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좋은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협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Q :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간의 활발한 연대 활동과 골목 공동체 문화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골목공동체 문화는 어떤 걸까요?

A :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네 안에서 서로 경계 없이 집을 드나들면서 아이를 같이 키우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에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옆집에 사는 이웃과 공동체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제 중심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역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저는 골목공동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마을지원센터에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설계했었는데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그렇게 의제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직 그렇게까지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모인다든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지역 단위로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하고 회의한다든지 하는 공동체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단체와 개인들의 움직임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보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죠. 워낙 온라인 세대가 풍부하다 보니 거기에 만족하기도 하구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대면 만남이 어려우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 사회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구요.

Q :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 강동마을네트워크를 다시 만들려고 해요. 이전 <동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지역의 마을네트워크를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마을지원센터에 있으면서 구마다 마을 네트워크 조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마을넷이 기존에 서로 알고 연결된 사람들 위주로 조직되게 되고, 결국 연결된 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마을넷이 주민들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단체 위주의 네트워크가 된 거죠. 강동 마을넷도 마찬가지였구요. 마을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구성원은 단체들이기에 주로 서울의 마을 정책에 관한 이야기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각 자치구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정보가 센터 위주로 들어오고 확산되다 보니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기능이 약해지게 됐죠. 그런 와중에 강동구도 <함께강동>이 만들어지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하고, 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이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마을넷의 60% 이상이 주축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동동>은 동력을 점점 잃다가 해산되었죠. 막상 <동동>이 해산되고 나니, 그것을 아쉬워는 회원들도 있고 또 몇몇은 정말 마을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느껴서 강동마을네트워크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몇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강동마을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단체중심이 아닌 정말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활동을 같이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강동마을네트워크라는 하나의 큰 단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제별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작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형태의 강동마을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동 청소년 네트워크, 강동 문화 네트워크처럼 마을 활동을 하는 각종 의제별 네트워크 소위원회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이 다 모여있는 큰 네트워크가 강동 마을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가며 그것을 큰 울타리로 포괄하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강동구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외플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자치 모임이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이 강동마을네트워크 안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하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은 외플 차원에서 고민하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주로 교육의 대상, 가르쳐야 할 존재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이나 고민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을 위해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사실 어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도 스스로도 자신을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을 쌓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플에는 외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간을 운영하고, 여기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해서 연합활동을 해볼 생각도 있구요.

Q :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지향점이나 사회에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갈등, 폭력, 독재가 아닌 민주, 평화, 존중, 연대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그런 바람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왔어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민주시민으로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사회,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을,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년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온거죠.

저는 강동시민연대와는 별개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최근에 남양주로 이사를 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저도 물론 조합원이구요. 여기서 아파트 공동체를 실험해보려고 해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함께 살기의 실험을 해보려고 하죠. 3년 전부터 같이 창립하고 준비해서 이제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 입주했어요. 이번 실험이 저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을 이곳에서 적용하며 좋은 사례를 만들고 또 주위에 확산시키고 싶어요.



강동꿈나무학교 | 최형숙 교사

강동꿈나무학교 | 최형숙 교사

다시, 공동체

“한 마을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곳에 제대로 된 선생님이 한 명만 있으면 부모와 마을이 변할 수 있습니다.”

1998년은 IMF로 기억된다. IMF가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던 시절. 삶의 곳곳에서 나온 파열음은 신음처럼 번져나갔다. 한국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정리해고와 같은 제도들이 성찰 없이 도입 되었고, 그로 인한 고통은 ‘분담’이라는 명목 하에 힘없는 이들의 삶을 파괴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더욱 격렬하게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강동의 꿈나무공부방도 그런 흐름의 하나였다. 강동꿈나무공부방의 설립에 함께 했던 최형숙 선생님을 만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 방과후 학교인 꿈나무공부방이 98년에 탄생했잖아요. 그 전엔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A : 학생 시절엔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안산의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이때 야학도 했었습니다. 여성주의 동아리를 하면서 여성주의 속에 있는 여성, 육아, 보육 등에 관심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97년에 강동으로 왔고요. 강동송파민주시민회에서 공동육아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유혜선 선생님, 이희란 선생님과 함께 강동의 첫 번째 공동육아 프로그램인 강동 재미난 어린이 집을 디자인했었죠. 공동육아 속에서 대안교육, 체험놀이교육, 삶의 교육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던 중 IMF가 터지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지역에서 실업자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Q : 자연스럽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고민이 나왔겠네요.

A : 그렇죠. 시민단체 활동가와 후원자의 부모들이 방과후 학교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1998년 12월 21일에 강동 꿈나무 방과후학교가 개소를 했죠. 당시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까지 가능한 공간을 찾아 암사동에 있는 교회(한빛 교회)의 공간을 빌렸어요. 평상시에 공간을 안쓰니 빌려주신다고 해서 가능했죠. 그래서 교회 2층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를 만들 수 있었어요.

Q : 일단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A : 이런 일을 하게 된 동력은 여성운동의 경험 같아요. 내 아이와 우리 아이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이념에 관심도 많았고요. ‘나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바라는 부모들이 계속 소모임을 하면서 지역에 이런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방과후학교를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이 모였죠. 초창기엔 저와 박영선 선생님, 이진선 선생님 세명이 교사를 자임하고 운영도 하고 교육도 했어요. 철학과 가치를 모두 함께 만들었죠. 이 모델이 송파와 성남에도 생겼어요. 강동, 송파, 성남에서 공동육아의 가치와 철학,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었죠. 모두 처음 해보는 것이니, 교육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어요. 사업비도 초기 비용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기금이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당이 안되니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도 받았죠. 그렇게 일 년 정도 해보고 공간을 이동했어요. 천호2동에 있는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서요. 여기에서 5년 정도 하고 다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Q : 꿈나무공부방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A : 강동, 송파, 성남의 꿈나무공부방은 모두 ‘내일을 여는 어린이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공유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연결과 직접체험,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모듬회의였어요. 연결이라고 하면, 나와 자연을 연결하고, 나와 이웃을 연결하고, 나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것이었죠. 이런 철학은 공동육아의 경험에서 나와서 방과후학교로 이어졌어요.

Q : 공동육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부모, 선생님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A : 공동체회의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둠회의라고 말하는데요, 이야기가 가능한 아이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지낼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도와주면서 아이들의 나이와 상관 없이 전체가 소통하면서 만나는 모임이었죠.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교사와 소통하며 공동체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부모회의를 했어요. 선생님과 부모, 부모와 아이가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교사들은 마찬가지로 교사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공동체를 연습했었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라는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직접체험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나들이예요. 우리는 이것 관계맺기를 위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들이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거의 매일. 이웃과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체험이죠.

날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각 방을 맡은 교사와 부모가 매일 날적으로 소통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적어서 집으로 보내주면, 부모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서 다시 원으로 보냈어요. 교사와 부모들이 서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날적으로 이루어졌어요.

Q : 이런 흐름이 방과후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A : 네. 예를 들면 꿈나무학교엔 매주 한 번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주에 있었던 일들,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 고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교사들은 이 모듬회의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아이들이 얘기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교사나 아이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일인일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의를 매번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듬회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나들이도 마찬가지로요. 학교에 다니더라도 매주 수요일에는 아이들과 나들이를 했어요. 수요일엔 4교시에 끝나는데, 무조건 나들이를 가요. 그리고 생활문화교육으로 우리나라의 절기나 세시풍속을 배우고, 머릿 속에 있는 것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Q : 매뉴얼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A : 덕분에 실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이 교육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평등의 개념을 먼저 가르칠 건가, 나눔의 개념을 먼저 가르칠 건가 고민을 해요. 그럼 배식을 여러 형태로 해봐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알아서 먹어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맛있는 것만 가져가고 큰 애들이 이 음식들을 독점하게 돼요. 그 다음엔 똑같이 하나씩만 가지게 했더니 작은 애들이 자기에게 많이 생기니깐 큰 애들에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배식 후에 회의를 해서 배식 순서를 같이 만들어요. 이런 실험을 하고 나면, 일단 아이들을 믿고 공평하게 주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로 나누게 되고, 이게 훈련이 돼요.

Q :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실험이네요.

A : 별칭도 그랬어요. 공동육아와 방과후학교는 모두 별칭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 예삿말로 부르죠. 제 별칭은 시루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별칭을 쓰지만 듣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죠. 예삿말을 쓴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우리나온 존중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존경해라,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는 게 큰 효과가 없죠. 관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방과후학교에서는 부모님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날적이를 못하고 주적이를 했어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한번 정도 부모님들과 들살이(가족캠프)를 했어요. 공부방에서 함께 잠을 자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공동체의 훈련이었죠.

Q : 선생님을 보니 궁금해져요. 교사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요?

A : 저는 교사를 2003년에 그만뒀어요.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 정도의 경험이 있었던 건데, 아직도 그 경험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 반경 500미터 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된 교사가 한 명 서 있으면, 그곳의 아이들과 부모와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교사는 단순히 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자이면서 활동가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늘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교사, 좋은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동네에 잘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교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부방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프로그램의 시각으로 보게된다는 것을 느낄 즈음에, 10년 전이죠, 일본의 지역공동체 학교에 갔었어요. 그곳의 교사는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보고 한 아이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더라고요. 단체의 운영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한 아이에게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의사, 상담사, 후원 같은 것들의 연결에 집중해요.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사람이 후원에 참여하고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자이며 활동가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Q :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A : 강동구의 협치위원이면서 강동구의 노사민정 부위원장,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를 맡고 있어요. 사회운동은 늘 어딘가 더 취약한 곳이 없나를 찾아다니는 것인데, 지금은 노동운동을 닦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의 활동은 주민을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을의 미조직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분리된 것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을에서조차 마을활동가와 노동활동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요.

**Q :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세요?
또 우리 사회에서 활동은 어떤 의제를 가지게 될까요?**

A :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활동가들의 연대예요. 질적으로 단련된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활동을 정돈하고 연대의 방법으로 미래사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서로의 경험치도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가치철학을 일치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많은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고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하루하루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서로를 배려해주는 조심스러운 커뮤니티겠죠. 하고 싶은 게 많은 커뮤니티라기 보단 서로 존중되는 커뮤니티. 안전한 느낌과 성숙함. 서로를 배려하려면 공동체정신이 필요해요. 많은 개인들이 공동체에 목말라하는 부분도 있고요. 10인 미만의 소규모 모임을 질 높게 끌고갈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과 비전을 고민하는게 함께 필요하죠. 네트워크 단위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거점이 있어야겠고요. 이게 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겠죠.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 박성식 (전) 대표
(현) 화모니 대표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 박성식 (전) 대표 (현 화모니 대표)

협력과 통합을 통해 하모니를 이루는 지역 활동을 꿈꾸며

Q : 대표님에 대한 소개와 활동의 계기,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배재중학교 재학 시절, 이웃과 나누는 삶에 대해 선생님께 배우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야학에서 봉사하던 선배와 입시가 끝나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1991년부터 95년까지 도봉동 한마을 공부방 교사로 철거지역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992년에 갔었던 농활 활동이 저에게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강동구에서 태어나 이 동네에서 성장하면서도 지역에 풀뿌리 시민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농활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를 알게 되었지요.

1995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시민활동의 꿈은 끝난 줄 알았는데, 농활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열린사회의 전신인 서울 겨레사랑 지역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학교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서울 겨레사랑 지역운동연합은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가 직선제 개헌을 이룬 후, 지역별 풀뿌리 단체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강좌를 통해 회원이 되며, 작은도서관에서 청년 자원봉사로 지역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룹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1999년에 열린사회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2003년 시작한 열린사회의 대표 사업 '해 뜨는 집' 무료 집수리는 20~30명이었던 회원을 200~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해 시민회의 활동이 넓혔는데요. 축구단의 청년들이 '해 뜨는 집'의 자원봉사로 나서고 후원 회비를 지원해 '해 뜨는 집'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해 뜨는 집'의 단장을 하며 혼자 관공서를 다니며 기반을 구축했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 축구단은 지금까지도 활동의 큰 근간이 되어 주고 있고요.

2008년에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의 작은도서관 '함께 크는 우리'가 송파에서 이전하며 강동이 근거지가 되었어요. 2010년 '함께 크는 우리'에 위기가 생겼지만 작은도서관만큼 마을공동체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 거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 2010년부터 관장을 맡게 되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2010년부터 시민회와 마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이 확장되었어요. 관장을 맡으며 전국 작은도서관을 다니고 탐방하며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전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1세대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또한 2011년 작은도서관 협회와 상일동산 개내마을에서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며, 개내마을축제, 청소년동아리네트워크, 강동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발족하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 도서관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말노래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엄마들에게 함께 하자고 독려했고 화모니 활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마을에서 축제나 행사, 개관식 때 초청받아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평화음악회를 준비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되었어요. 현재는 열다섯 가족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2017년까지 열린사회의 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함께 크는 우리'의 대표사업인 화모니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현장에 폭넓게 회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현재는 마을미디어활동에 중심을 두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생활문화네트워크를 미디어 동아리와 연결하고 있어요. 강동구 관련 청소년, 위기청소년, 성폭력 위원회, 협치 위원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Q : 현재 화모니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활동들을 좀 더 소개해주시겠어요?

A : 화모니의 정식 명칭은 '시, 책, 평화를 노래하는 가족합창단 화모니'구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가요보다는 우리말 노래와 동요를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요작곡가 백창호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아이들이 시 쓰기 작업을 하고 엄마들이 작곡해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화모니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회비로 경비를 충당하고 지원사업을 하지 않다가 2016년 강동 클라우드 펀딩 대회에 음반을 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1등을 했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배재중학교 동창이 SNS를 통해 화모니 활동을 접하고 부족한 모금액을 채워주었고, 상금까지 보태져 음반을 내고 구민회관에서 평화음악회까지 열게 되었어요.

올해는 강동구 마을플랫폼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어 두 번째로 '지구환경지키기 행동 프로젝트: 동네에서 지구한바퀴'를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예전 같은 활동은 어려워졌지만 두 팀으로 나눠 곳곳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변화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먼저 배우고, 어른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구환경과 관련된 노래들을 만들어 캠페인 겸 버스킹 공연을 하고 성과공유회 통해 다큐 영상과 노래를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화모니 모임이 점점 커져 50~60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도서관이나 지역 활동가를 만들어낸 모임이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Q : 3대 핵심 활동으로 ‘함께 크는 우리’, ‘화모니’, ‘계내마을축제’를 말씀해주셨는데 ‘계내마을축제’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으실까요?

A : 2013년 공모사업을 통해 5월 25일 첫 번째 계내마을축제를 열었는데요. 올해 8회를 맞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해 다큐 영상을 통해 7년간의 활동을 아카이빙 축제 형태로 발표회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2012년 열린사회에서 지역의제 발굴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직능 단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보고 있었어요. 계내마을축제가 의미 있었던 것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모범 사례였다는 점이었어요. 시작은 상일동 주민센터가 했으나, 지역단체들이 축제에 연합해 참여했어요. 여기에 구청,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기존에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직능 행정단체들도 참여하며 주민주도축제에서 행정이 함께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 현재까지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관 주도 축제가 아니라 주민 주도의 축제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상일동은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인데요.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제안을 시작했지만 직능단체와 결합하며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조율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연들과 즐길 활동은 청소년이 맡고, 부스는 시민단체와 도서관이, 직능단체에서 먹거리를, 홍보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Q : 일반 직장생활을 하며, 이렇게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지역 현장 활동을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A : 비록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직장에서 강동구의 관리 담당을 맡아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목회자 혹은 복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의아해 하곤 했지요.

저는 오히려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단체 사무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틀에 매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제약이 없었고 직업을 통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되었어요. 회사 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이라 괴리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지역 활동을 해 온 것이 신뢰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역 활동을 통해 에너지가 생기는 많은 경험을 했고, 개인적인 성장도 해 왔어요. 내 성장, 발전이 지역과 사회의 성장,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이해와 중심을 잡아주거나 응원을 해 주고, 촉매를 시켜준 지역의 지지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Q : 지역의 단체, 네트워크와의 연대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생활문화동아리네트워크, 강일네트워크, 정원포럼, 자갈자갈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교류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자치 관련 의정 감시, 행정 사무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는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로컬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지역 활동 주체들이 확산되고 공익활동가에 준하는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반갑게 바라보고 있어요.

Q : 가지고 계신 의제나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A : 현재 화두는 통합이에요. 작년부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역에 공원 도서관 설립 계획이 생기거나 공동체센터 직영화 지역이슈가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활동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남이 즐거우면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의제별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평이 전환도시를 선포했는데 강동구도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탄소배출, 로컬푸드,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포하고 함께 만들어내는 활동이 필요해요. 초록바람, 생태보존시민연합, 고덕천지킴이 등 환경 이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지역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위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동체 활동들과 네트워크가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 이주현 상임이사

그리고 2017년부터 <함께강동>이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까지 위탁받아 작년까지 3년간 운영했어요. 올해 들어서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위탁을 받지 못하고 현재 주민자치사업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인 여러 사업이나 지역의 자산화 사업 등 방향을 모색 중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 이주현 상임이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실험

Q :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원래 강동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이런저런 지역 활동을 쭉 해오다가 연대가 필요한 지역 이슈가 생겼을 때 대책위 같은 일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어요. 그러다가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상설네트워크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 2012년 강동 마을모임 <동동>이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동동>은 강동구 마을넷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故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 예측하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뿌리 단체 대표들과 개별활동가들이 모여서 구성한 모임이죠.

이후 2012년도에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지역의 각 자치구 센터로는 거의 최초로 생기게 됐는데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센터를 위탁받았어요. 이후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특화사업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자원 중심의 네트워킹,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지원하는 3년 기간의 사업이었는데, 위탁이 아닌 공모사업 형태로 이를 수행할 기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받고 있던 희망제작소가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특화사업단을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 특화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집행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이렇게 희망제작소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주를 이뤄 연합하여 사업단을 3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는 곳들이 모여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2015년 9월에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이하 '함께강동')을 창립했어요.

Q : 동남권에서 강동의 시민사회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의 흐름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제가 강동에 처음 온 것은 2002년 강동시민연대 활동을 같이하게 되면서예요. 그 과정에서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80년대 후반 각 지역마다 풀뿌리 단체가 생기면서 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강동지회 등도 87년 범국본의 산하조직처럼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열린사회시민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지부로 남게 된 단체들이 일부 있고, 다른 일부는 위례시민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단체들 중 열린사회시민연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았던 곳이 강동송파민주시민회라는 조직입니다.

94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단체들이 대중화, 지역 이슈, 지방자치 이슈, 복지 이슈에 관심을 전환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흐름은 국가적 담론으로, 소위 자주, 민주, 통일 등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강동송파민주시민회가 역량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소위 거대 담론을 가지고 남았던 단체로 일정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2년 즈음 강동시민연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후에도 2007년-08년까지 중앙 이슈 파이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지역에 있던 민주노동당, 노조와 연합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나온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중심으로는 지방자치, 의정활동 감시, 지역의 봉사활동 등이 주로 이루어졌죠. 여기에서 또 지방자치를 중심 활동으로 하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는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한살림 동서울 지부,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초록바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가 모여서 구정 예산 분석, 의정감시활동, 매니페스토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결이 다른 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두 번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2008년도 촛불이었는데, 강동에서도 <강동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강동촛불>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초기 카페지기를 했던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 <강동촛불>은 정치세력으로 따지면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 다 포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었던 거죠. 또한 기존의 시민단체가 아닌 촛불 국면에서 등장한 개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이분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지역에 있는 풀뿌리 단체에 회원가입을 하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가 활발해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2011년 故박원순 시장 선거인데요. 故박원순 시장 선거운동본부 자체를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절반씩 역할을 나눠서 같이 꾸렸었어요. 당시 선대본 활동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2012년 강동마을모임 <동동>이 만들어지고, 지역에 풀뿌리,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더 넓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Q : <강동촛불>을 통해 시민사회가 활발해진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2008년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시위가 활발히 진행된 이후,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촛불 시민모임이 생기게 되었는데, <강동촛불>도 다음 카페를 개설하고, 매주 지역 촛불집회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형성되었죠.

제가 당시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주도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시청 앞 촛불 집회 당시 경찰의 진압에 촛불 시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에서 소위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개별적으로 촛불시위에 합류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활발히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이런 흐름이 강동구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본능적 판단이 있었던 거 같아요.

당시 저는 민주노동당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시청 광장 촛불시위에 정당의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고, '광우병 소고기를 싫어하는 강동 주민들'이란 이름의 깃발을 들고 참여했죠. 이 과정에 만난 촛불 시민들과 함께 <강동촛불> 시민모임을 만들고 매주 강동 지역에서 거점을 순회하며 촛불시위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이 이어지게 되었죠. 학습 모임을 비롯한 몇 개의 소모임도 생기고, 매주 모여서 막걸리도 마시고, 계절마다 등산도 가고 엠티도 가고, 농촌 체험 활동을 계기로 농산물 직거래도 몇 차례 경험하면서 촛불 시민모임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촛불시위를 계기로 처음 만난 시민들과 기존에 시민단체나 진보정당 등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가깝게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도 깊어져 갔구요. <강동 촛불>이 기존에 조금은 다른 결로 활동하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한군데로 모이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기도 했죠.

2009년도에는 'SSM 저지 대책위'라고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데 대해서 중소 상인들과 함께 연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는 제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강동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다 함께 선거운동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촛불 시민 모임은 정제되고 느슨해졌지만, 많은 구성원의 경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해뜨는집 사업단'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Q : 최근 들어 강동 시민사회의 변화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A :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사업, 정책이나 예산에 개입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실제로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주민,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서울 시에서 지원하는 민민협력네트워크 사업의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활동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체들과 모임들이 공론장의 판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마을도서관 네트워크, 주민 사업,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8-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에 생겨난 과거의 전통적인 시민단체가 아닌, 가치 있는 사회적 이슈와 지역 이슈를 찾아내고 활동하는 작은 소모임과 네트워크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지역사회기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들도 있구요.

관심 영역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이게 각자의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끝날지, 느슨하더라도 포괄적인 마을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성장해갈지 지금은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마을활동가와 마을공동체 주체들을 포괄하는, 느슨하지만 일상적인 마을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의 공론장, 포괄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저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시민사회는 점차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 여건, 회원의 감소 추세, 활동가의 역량 부족의 상황에 놓여있고, 그나마 기존에 있던 활동가들이 이탈하기도 하면서 활동가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요. 우리끼리도 몇 차례 '시민사회 단체의 위기인가, 시민사회의 위기인가?', '우리는 어떤 전환점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마을 공론장을 몇 차례 열어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숙제이지만,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죠.

Q : 이주현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졸업 후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포대들을 보면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업적인 운동을 하면 전선 단체나 노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연히 지역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시는 변혁적 지역 운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던 시절이기도 했구요. 저는 성동구에 있던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 바로 근처에 성동광진민주시민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가 있었어요.

성동광진민주시민회는 87년 이후 한때 풍물패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이슈 파이팅도 주도하고, 대규모 재정 사업 등을 포함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꽤 규모가 큰 단체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들이 열린사회시민연합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회원 수가 30명도 채 안 되었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대학교에서 연대 활동을 할 때, 힘든 조건에서 이 단체의 회장님이 꾸준히 도와주시기도 했고, 작은 곳에서 소박하게 지역 활동을 시작하고 싶기도 해서 성동광진민주시민회 사무국장으로 졸업 이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이라는 전국연합의 서울조직에서 사무처장도 겸임하면서 그렇게 지역 단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동광진민주시민회와 강동송파민주시민회는 우연히 같이 만나서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원칙을 지키겠다며 외롭게 살아남아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다시 대중화의 길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각 성동광진시민연대, 강동송파시민연대로 전환되었죠. 그러면서 4개 구가 동서울시민연대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도 사무처장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별 지부조직 중 강동 지역에 더 집중해보고자 2002년부터 강동시민연대에서 같이 활동하다 2004년부터 이사를 와서 지금은 완전히 강동 사람이 되어 살고 있죠. 그리고 2004년부터 2012까지는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정당 활동가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Q : 사회적경제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A : 2012년까지 정당 활동을 하다가, 통합진보당 사태로 당이 모두 분열되면서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꼈고, 정당 활동을 그만뒀어요.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분열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아무리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도, 중앙정치 차원의 부정적 이슈가 있으면 지역에서 했던 활동의 성과마저 흩어지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며 느낀 바도 있었고,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필요로 하는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중앙정치 이슈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적 의제, 경제 활동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단단한 생활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유럽의 '민중의집'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시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진보정당 후보로서는 꽤 높은 득표를 했고, 선거 비용의 50%를 보존 받게 되었죠. 이때 생긴 비용으로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자 <강동희망나눔센터>라는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독거 노인분들의 식사와 건강 문제를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죠.

2012년엔 총선 예비 후보로 출마 후 선거 사무실을 꽤 큰 규모로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야권 내부 경선을 통해 본선에는 출마하지 않게 되었어요. 당시 임대했던 선거 사무실을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공동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써보자고 해서 1년 6개월간 공간을 유지했어요. 당시 함께했던 단체들은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시민연대 일부, 지역 전교조, 희망연대 노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그 공간 안에서 후원 주점도 열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북카페 등도 운영해보려고 하면서 이 공간을 '민중의 집'처럼 운영해보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협동조합이란 걸 공부하며 알게 되었어요. 이후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공동의 힘으로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힘이 잘 모아지지 않아 흐지부지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이라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3년간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던 몇몇 선배들이 특화사업단 활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의 활력이 되고 새로운 활동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고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왔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Q : 이후 암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셨어요.

A : 도시재생은 관심 있는 이슈이기도 했고,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사회적경제 조직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 볼 지역적 기반과 공간이 필요하죠. 이를 실험해보기 가장 좋은 기회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자신들의 미션도 실현하고 주민들도 만나며 새로운 사업의 주체를 조직해 보는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16년 하반기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암사 도시재생지역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활동가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센터장을 찾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 분야 활동가들의 추천으로 암사도시재생 지원센터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 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해 제대로 공부 가 되어있나?', '도시재생은 갈등 구조가 복잡하고 깊을 텐데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사회의 도시재생 사업 시스템이 과연 지역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등등의 고민들이 많았지만, 일단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신 정책사업에 대해 누군가는 뛰어들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와 많이 달랐던 분야였어요. 특히 사업과 예산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에서부터 복잡적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 경험과 마인드가 행정에는 없는 상태였고,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던 전통적인 동 단위 주민조직과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 등장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요소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과 사업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집행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주민들은 얼마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폐쇄성에 갇히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Q :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나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려는 새로운 의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사실 지난해 말부터 해오던 지역 상근활동을 정리하고,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지역 활동에 일상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함께강동> 상임이사로서 법인 활동에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시다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지역 자산화' 사업이 될 거 같네요. 지방정부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 시민들 스스로가 연대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 민간 자체의 역량에 기반한 시민자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사회적경제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늘 숙제처럼 안고 있던 문제였지요.

2012년 이후에 잠시나마 시도했던 공동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도 따지고 보면 시민 자산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상근 활동가 월급은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임대료로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 공간에 투자하면 좀 더 자유롭게 활동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시절에는 소박한 규모지만 지역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본 경험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함께 치렀던 지역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십만 원을 첫 종잣돈 삼아, 사회적경제 장터를 운영하며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십시일반씩 모은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8백여만 원의 지역 기금을 만들었고, 창업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몇백만 원씩 신용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지역 기금을 활용한 주체들은 다시 스스로 얼마간의 기부금을 보태 반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본격적인 지역 자산화 사업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함께강동>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활동가들이 오래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5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2억 원의 자본금을 모아 화훼 조경 사업을 통한 지역 자산화와 지역 기금 조성이라는 숙제에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떻게 소중한 자산으로 일구어가고 새로운 지역자산화 사업 모델을 찾고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관심이 가는 의제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진정한 그린 뉴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은 많지 않은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깐요. 지구가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면, 그 어떤 활동이 의미가 있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는 작고 구체적인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Q : 활동을 하시면서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바라는 사회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언제부터가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큰 담론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작고 소박한 가치들에 더 마음이 많이 가요.

누구나 각자가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고, 그 다양함이 있어 빛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모두가 저마다 살아가는 의미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사회 변화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몫을 감당할까라는 열망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사람이 소박해지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그저 묵묵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살만한 곳으로 가꾸어가기 위한 작은 일들에, 꾸준히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조금은 관찮은 어른으로 늙고 싶다는 바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 오금옥 대표

**Q : 찾아가는 재활승마사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A :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재활을 위한 승마 체험 활동이에요. 12년 전, 우리 회원들에게 승마 교육의 욕구가 있었어요.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승마 경험은 신체의 균형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죠. 말 안장에 앉으면 안 쓰던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찾게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신체의 중심을 잡으면서 자세 교정 효과를 얻게되고요.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위험 인지 능력이 부족한 편인데, 말과 함께 하면서 '위험함'에 대해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은 뒷발을 건드릴 때 공격성을 갖는 편이에요(사람이 말의 뒤 쪽 편에 서거나 지나가면 말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인지를 함 그래서 뒷발로 찰 수가 있어서 위험함). 물론 전문가의 도움 아래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잘 훈련된 말과 승마 체험을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말 뒷발의 위험성을 강조해서 알려줘요. 말은 얼굴과 코를 쓰다듬고 만질 때 가장 안전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들 말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 화요일 승마시간을 기다린대요. 화요일은 말타는 날! 화요일마다 '말타자' 라고 아이들이 먼저 표현하기도 하나 봐요.

**Q :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승마 체험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고급스포츠이기도 한 승마 체험이 11년째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승마의 효과성도 있지만, 강동구청과의 협업과 지역사회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12년 전 강동구청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과도 없었어요. 예산도 전무했죠. 사회복지과 안에 장애인 복지팀이 있었는데 당시 팀장님의 파격적인 도전 의식이 큰 도움이 됐죠. 첫 해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개월 정도의 시범 사업을 진행했어요. 아이들과 부모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고, 강동구청에서도 시범 사업 결과를 아주 좋게 평가했어요. 점차 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인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부모가 승마장에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엔 지방의 승마장으로 말을 타러 다녔어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말을 탈 수 있는 장소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 다섯 마리 정도를 지방에서 서울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말 다섯 마리가 움직이려면 적당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적어도 7-80평 정도는 되어야 했죠. 사업 초기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신명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학교 시설을 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구청장님의 노력과 교장선생님의 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전근으로 더 이상 운동장을 쓸 수 없었던 적이 있어요. 고민이 컸죠.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 오금옥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로 가는 길**

**Q : 사단법인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A :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400여 분이 모여 있어요. 1996년도에 소수의 부모가 자조 모임 형태로 모였다가 지금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위해 힘쓰는 규모 있는 사단법인이 되었네요.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특수학교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길 원하죠. 나아가 우리 지역과 사회가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부모 운동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최초였어요. 작은 모임과 작은 활동들이 점차 조직화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타 지역 엄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서울 전 지역에 이런 부모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죠.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서울>을 만드는 시발점이 됐어요.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는 장애 청소년의 직계가족 모두를 회원으로 보고 있어요. 부모 400여분과 가족들을 더하면 약 천 여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는 대식구조. 부모회 식구의 대부분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부모예요. 발달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지적능력의 발달이 낮아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생활 능력이 어려워요. 이로 인해 성장과 자립에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중요한 정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모임이 참 중요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그래야 하지도 않으니깐요.

우리 부모회 사업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애인일자리카페),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사업,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요. 차별 없는 사회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만의 세상이 아닌, 지역과 사회 모두의 세상이 되어야하니까요.

강동구에 방죽공원이라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미니 운동장을 보유한 공원이 있어요. 공간을 매주 사용하던 주민들(족구동호회 등)의 배려로 매주 화요일 전일은 승마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컸죠. 사실 말을 데려오면, 말굽 자국도 많이 나고, 모래나 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1년에 한 번 복토(새 흙으로 땅을 다지는 것)를 약속하고 장소 사용을 협의할 수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나 경관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승마를 경험하기에 최적이었죠.

다만,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민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원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졌어요. 민원의 내용은 다양한데, 공공장소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많나 봐요. 부모회 활동이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거세다보니 다른 지역을 알아보게 되었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는데, 다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적당한 장소를 알아봐야 해요. 주민들의 배려와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Q :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중심계획(PCP, Person Centered Planning)’의 개념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PCP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어요. 미연방은 국가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사람중심계획(PCP)의 개념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죠. PCP는 복지 서비스가 개별의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고 조직과 시스템이 이를 통해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해요.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과 환경에 대해 자기 의사를 밝히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장애인의 바람과 욕구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장애인의 자립이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죠. 사소한 일이라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작지만 소중한 자립의 경험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까지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 모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PCP예요. 장애인 본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거주지, 성별 등에 의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Q : PCP가 도입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A : 우선 PCP의 개념이 국내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PCP 교육에 힘을 쏟고 있어요. PCP개념의 선구자인 미국의 마이클 스멜(Michael Smull)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해 복지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스멜 교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강동구만의 PCP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구청장님도 당시 매우 호의적이어서, 강동구의 복지 관계자와 함께 팀을 꾸려 미국펜실베이니아 주의 PCP 적용 사례를 배우러 연수도 다녀왔어요. 8박 9일정도 집약적으로 개념, 사례 공부를 하고 돌아와 한국에서 4박 5일동안 전국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내용을 전파했어요.

PCP가 도입되면 복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 발달장애인 법이 개정되어 모든 구가 각종의 지원 센터를 건립해야 했어요. 하지만 부모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 과연 센터가 구마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각 구의 발달장애인의 센터 접근성은 높아지죠. 하지만 각 구마다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으로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각 센터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3~4개구가 연대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 한다면 질적으로 훨씬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Q :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가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군요.

A : 그렇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가정에서 마을로 그 활동범위가 커지기 마련인데, 그 지역의 인식 수준, 복지 시스템 등이 개선돼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부모회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와 연대함으로써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현재 부모회는 한 살림, 강동·송파시민연대 <초록바람> 등과 연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시민연대 소속 봉사단이 부모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비장애인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는 경험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외에도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해요. 사회복지실무 협의체 장애분과 복지활동, 강동구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Q : 활동을 통해 강동구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A : 주민들의 장애인에 관련한 인식들이 좋아졌어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병원 중에서도 특히 치과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식당 주인은 장애인 출입을 막기도 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사회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했어요. 이런 생각을 토대로 부모회는 강동구 보건소와 함께 장애친화병원을 만들었어요. 강동구 소재의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후 장애친화병원을 약속한 의료진과 병원 덕분에 발달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더 수월하게 진료를 받게 되었죠.

Q : 올해 하반기에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새로운 활동이 있나요?

A :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의 특징으로, 가장 실력이 좋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든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해요. 그래서 채용 면접도 따로 없어요. 공개적으로 모집하거나 또는 추천제로 함께 하실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에요. 성장과 자립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인처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이어가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 반복적인 업무로만 8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노동일 수 있어요. 업무 시간의 1/3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당장 거대한 수입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업무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우름은 표준사업장을 2호점 3호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재가장애인들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주택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말한 PCP를 적용하여 사람다운 사람 중심적인 계획들을 담을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_시사위크 2018.12.07]

장애여성공감 | 이진희 대표

Q :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여성운동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오셨어요.

A : 운동사회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응하고, 조직들에서 일반적인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장애인 운동 그 자체로는 내 경험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장애인 운동에서도 젠더와 여성 문제가 항상 부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 몸의 차이로 불평등해지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는데, 장애인 운동에서도 같은 문제의 반복을 느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영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운동의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 그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젠더 이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장애여성공감의 운동이 흥미롭고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었었고, 이런 토론이 재미있었거든요.

장애여성인권캠프의 경험이 특히 좋았어요. 3박4일동안 장애/비장애 여성이 섹슈얼리티, 독립, 노동 이런 주제로 토론도 하고 밥도 먹고, 서로 활동 지원도 했었어요. 몸을 부딪히며 관계와 내용을 만드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강한 동기가 되었어요.

Q : ‘자기 설명적인 운동’이라는 표현을 여러번 사용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A : 음... 운동이 나를 설명하는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운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대한 차별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비장애여성도 장애여성운동을 20년 가까이 하면 ‘장하다’, ‘힘들겠다’, ‘뿌듯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라는 걸 설명하는 표현?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차별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나와 우리의 문제인지 탐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삶이 놓여 있는 처지도 더 정확하게 보이죠.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 나는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인간의 존엄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 한 사람이 존엄하지 않을 때 내가 불편하고 화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노도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여성공감 | 이진희 대표

정상성에 대한 도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장애인의 인권을 교차적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에요. 보통 사회의 시선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니 정말 힘들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동정적인 시선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겠다. 내 몸의 경험과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의 관점과 언어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싸워야겠다. 그래야 이 사회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린 이것을 ‘정상성에 도전한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긴 단체.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공동대표를 만나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A :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건 1998년이에요. 그 전엔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어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느꼈던 딜레마가 있었어요. 현장(시설)에서 의문사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봉사활동만 하고 나온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었어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데, 왜 이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걸까? 나 역시 봉사활동 후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장애인과 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되게 불평등한 문제로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치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98년부터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고, 2002년까지 장애인노들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했어요. 장애여성인권캠프 참여를 계기로 2002년에 장애여성공감에 결합했어요. 직업활동가로서의 삶은 2002년에 시작했네요.

Q : 주로 어떤 것들이 운동의 주제가 되나요?

A : 우리 활동 일반의 키워드는 장애여성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몸과 섹슈얼리티를 고민하면서 성폭력 문제, 재생산권, 성적 권리 같은 것들이 주제가 돼요. 그리고 독립과 노동. 장애에 대한 사회의 낙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려고 해요. 최근엔 시설사회라는 것을 주제로 탈시설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Q : 지난 장애여성공감의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중요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 가장 최근의 성과는 낙태죄 폐지에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2013년부터 강동지역에서 장애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2014년엔 장애여성 재생산 경험 연구를 했어요. 당시 시설 내외부에서 재생산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고민했고,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장애계 일각에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성에게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장애아를 임신하면 마구 낙태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연구를 토대로 '성과 재생산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했어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해 기존에 국가가 만들어둔 프레임 넘어서자는 것이었죠. 여기에 다양한 활동가들이 생각이 덧붙었고, '배틀그라운드'의 공동집필로 이어졌어요. 장애와 여성의 충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 꾸준히 장애여성당사자, 운동 주체,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냈어요. 이게 낙태죄 폐지 운동이라는 큰 흐름과 만나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죠.

Q : 또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A : 탈시설운동도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저희 관점에서선 장애인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설화'라는 키워드로, 장애인은 물론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이들은 또 누가 있는가 고민해봤어요. 이주민, 난민, 청소년, 탈북민 등의 분야에서 운동하는 분들과 함께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런 대화에서 나온 결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설화라는 건 사회에서 작동하는 감금과 통제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회는 '저 가정은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편견에 자주 노출되면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은 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통제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탈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패러다임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보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을 실험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런 차원의 관점들이 중요해요.

Q : 새로운 프레임을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A : 우리 단체는, 동료 시민과 동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다른 여러 주제들과 연결해서 계속 말하려고 노력해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언론의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그 장애인이 사리 분별이 떨어진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하지만 정작 핵심은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하기 쉬운 사회인가에 있죠. 이 가해하기 쉬운 사회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일조하고 있으니 전환을 해야 하는 것. 독립에 대한 문제도 비슷해요. '혼자 사니까 걱정돼'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본래 의지하며 살고 있고, 서로 잘 의존하는 게 바로 독립이라는 프레임을 던지는 거죠. 동료라는 것을 계속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제안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지역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인권운동의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동료적 관계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고 있어요.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 있어요. 사명감과는 달라요. 운동이 운동다워야 하는 것. 성과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운동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어떤 운동을 해야할지 잘 모르고 희미해지면, 운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 활동의 계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A : 개인적으로든 매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이 동기가 되곤 해요.

사회적인 사건들도 떠오르네요. 2011년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사회가 보여준 반응을 보면서, 성교육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이게 저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안전보호 담론을 넘어서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고 본인에게 행복하고 좋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성교육을 할까. 계속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2003년에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의 창단도 저에겐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문화운동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했고, 메시지를 사회에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장애여성 배우들과 지지고 볶으며 지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구분되는 몸들이 모여서 자기의 몸과 경험을 두려움 없이 드러냄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흐트려 놓는 것,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대했던 것을 배신하게 하는 것. 결국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저에겐 어떤 태도를 가지며 운동을 해야하는지 일깨워주는 현장이에요.

또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발족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촛불 이후에 광장에서 누락된 존재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아닌지,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환기시켜 줬어요. 2007년의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원의 한계들을 지니고 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발족을 하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선 그런 것들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모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 요즘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나요?

A : 일단 재정적인 문제죠. 한국사회에서 제도와 권력과 싸우는 운동에 누가 돈을 줄까...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운동이 뭔가 말을 건네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요. 시민들이 운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힘들을 믿고 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단체 내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갈 것인지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계속 토론해야 하는 주제예요. 단체와 운동을 계속 해내기 위해선 의제를 만들고, 같이 하는 활동가들과 공동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Q :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A : 사회적으로, 평등이라는 말을 공정이라는 말이 대체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인권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고민이에요. 어떤 권리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가는 게 동등한 권리일까?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동정이 아닌 평등의 언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세상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가치나 평등의 원칙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기이면서 기회인 거죠. 이런 토론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Q :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다면요?

A : 일단 올해는 탈시설을 한 분들과 함께 탈시설 지원을 해볼 생각이예요. 이분들의 경험을 조금 더 잘 듣고 사회와 연결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도 본격적으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임신중단권리(낙태죄 폐지) 운동에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잘 참여하고 싶고요.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류양선 (전) 센터장
(현) 강동로컬랩사업단장

**Q :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강동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세요.
어떤 계기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A :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운동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역의 네트워크가 워낙 공고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죠. 서로가 알음알음 아는 관계라 사람들과 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겨레 신문에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환경단체의 채용공고가 난 걸 보고 지원을 했고, 이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2005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서울시로부터 한강 변의 '고덕수변생태복원지'(이하 복원지)라는 곳의 전반적인 생태적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받았는데, 그 임무를 제가 맡게 됐죠. 현장이 바로 고덕 2동의 한강 변에 있었는데, 인근에 집을 얻게 되면서 강동구에는 아주 우연히 정착하게 됐어요.

복원지에서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활동, 생태안내자 교육과 생태 봉사활동 등을 운영하면서 저도 도시 속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전하고 하느냐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배우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생태 보전 주체로서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강동구, 구리시, 하남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안내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죠.

Q : 지역에서 환경 운동을 하시면서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나 성과가 있을까요?

A : 예전에는 환경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태 보전을 명목으로 환경단체들이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꼬투리를 잡아 이익을 취한다는 식의 편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은 생태 운동의 현장에서의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대단히 호의적인 모습이 많고 관심도 높아요. 2000년대, 즉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환경 운동가들과 단체들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고덕수변생태복원지에 있을 때 제가 운영했던 주민 참여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또 하나는 학생들이 주 참가자였던 생태 관리 봉사활동이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주민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류양선 (전) 센터장
(현 강동로컬랩사업단장)**

**공존의 철학이 깃든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꿈꾸며**

**Q : 현재 강동로컬랩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강동로컬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로컬랩 사업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활동가, 전문가와 관이 협력하여 마을의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동 또는 동보다 더 작은 골목 단위의 대상지를 선정해 그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장을 열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요. 그렇게 확인된 마을의 문제들을 주민들과 전문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좁혀나가고 정의 내리는 심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주민들, 전문가, 행정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다양하게 모아보는 과정을 한 번 더 하죠. 그렇게 취합된 방안들을 다시 압축시키고 정리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요.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한편으로 한계점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이나 사업들이 실제로 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의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주민과 활동가에게 있는 거죠. 로컬랩은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구상된 사업이에요. 지금 강동은 로컬랩 사업 1년 차 단계에 있고, 이후 2, 3년 차에 걸쳐 올해 제시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주체를 모으고 조직을 꾸린 후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려고 해요.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고덕수변생태복원지를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관리로 방향성을 세운 부분이에요. 복원지는 사람들의 이용 중심의 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존지역이라고 하는 장벽을 세워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곳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죠. 과거 한강의 모습을 복원해 놓았지만 복원지는 대중에게 늘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들이 그곳을 장소의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장소 중심의 이용이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복원지에 애완견은 출입이 안돼요. 애완견이 수변 지역의 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음주도 허용되지 않아요. 복원지 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풀이 자라도 베지 않아요. 이렇게 이용자의 편의성 보다는 그 장소가 가진 생태성을 중심에 놓은 관리 방식으로 도심 안에서의 생태계를 복원해왔어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비전 자체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공존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Q :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도 연결되고 또 협업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A : 2011년 경에 복원지 관리 역할은 후임에게 물려주고, 강동생태보전국장을 맡게 되면서 강동구의 전반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보전 활동을 했어요. 그동안 강동에서 꾸려왔던 다양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었죠. 2010년 태풍 곤파스가 강동구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외곽 지역의 자연형 도시 숲에 있던 수령 100년 가까이 된 아까시나무들이 그때 모두 쓰러졌거든요. 자연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변화되는 게 맞지만, 그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도 강동구의 자연적 환경에 맞는 숲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역의 환경단체들 그리고 강동구청과 결합해 '강동 아름숲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을 대규모로 참여시켜서 숲을 복원하는 작업, 나무를 직접 심는 등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죠.

강동구청 환경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정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풀뿌리 시민 단체들과 협업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다가 2012년에는 <동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넷을 만들기 위한 집담회를 주최하게 되었어요. 같은 해에 강동구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협의 테이블에 지역시민단체의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마을공동체라는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왔던 경험이 마을넷 구성을 위한 집담회를 만드는 데 동력이 됐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30여 개의 지역 단체가 모여서 마을넷 <동동>이 만들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단장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Q : 환경 생태계를 지키시다가 사람이 사는 마을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셨군요.

A :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마을공동체 회의에 가면 농담처럼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숲에 있던 저를 마을로 데려오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추천한 분이 당시 <동동>의 대표였던 송문식 씨인데, 2008년도에 그분은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했었고 저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서로 힘을 맞춰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생태복원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곳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 숲속에 묻혀서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지역 시민사회로 들어오게 된 또 하나의 큰 계기는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예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지지해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故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었는데요. 서거를 계기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도 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나 <초록바람>과 같은 환경 관련 단체와 주로 교류를 했다면, 진보 정당 활동을 하면서는 이후에는 진보 정당과 연결된 지역 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Q : 서울시 자치구 마을공동체와 자치생태계 조성을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아주셨는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마을넷 <동동>에서 마을공동체 생태계와 관련된 사업단의 실무를 맡게 되고, 다음 해 2013년도에 서울시가 자치구 단위로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강동구청과 <동동>이 MOU를 맺어서 강동구는 공간을 <동동>은 인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마을상담실'을 운영했어요. 이후 2014년도에 강동구가 직영으로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지원실장으로 채용되어 일했어요.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무국장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죠. 당시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희망제작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희망제작소의 미션은 지역에서 비영리민간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촉발시키고 그 지역법인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강동에는 2015년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함께강동>(이하 <함께강동>)이 있었는데, <함께강동>에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을 운영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해서 2017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았고, 저는 같은 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나와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계획과 가치 체계를 세우면서 <함께강동>이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하는 과정을 진행했어요. <함께강동>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수탁하고, 이어 여기에 2018년에 주민자치사업단이 결합하게 되었어요. 또 천호동 도시재생희망지 사업 등도 함께 진행했는데, 암사도시재생사업도 <함께강동>의 조합원 이주현 씨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서로 협력이 잘 이뤄졌죠.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일관성 있게 지역 안에서 풀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Q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계실 때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도시라는 구조 안에 도로와 상수도, 도시 가스, 전기 시설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반들을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마을공동체에서도 인프라가 튼튼하면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쉽게 정책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이후에도 어떤 구청장, 서울시장이 오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두터운 기반을 구축시켜놓는 것이었죠.

인프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온라인 인프라는 홈페이지라던가 온라인 소통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힘을 갖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을공동체 관련된 단톡방 하나에도 200-300명 단위가 모여 있으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오프라인의 인프라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활동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2가지인데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센터장으로서의 미션으로 바로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들부터 지역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스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 지원을 위해서 일단 센터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첫해인 2017년에 그동안 강동구에서 주민들이 진행했던 시, 구 공모사업들을 전수 분석했어요. 기자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왔던 분들을 만나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강동구 마을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의제나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보육, 육아, 공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요한 세 가지 의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았는데, 그곳은 바로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에서 운영하는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이하 ‘함크’)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아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별도의 보고집을 만들었어요. 책자 안에는 ‘함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작동 원리, 함께 했던 활동가들의 인터뷰 등을 담아서, 마을공동체 공간의 사례로 제시한 거죠. 우리 강동구든 강동구를 넘어서든 커뮤니티에 기반한 공간과 보육과 육아를 모두 수렴하는 사업의 키워드는 결국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마을플랫폼 지원사업’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어요. 지역에서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열고, 또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수익이 없을 때는 다시 십시일반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러한 공간은 그 기반을 공동체성으로 하고 있고 또 공익과 맞닿아 있어요. ‘함크’처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공간들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찾고 발굴해서 지원을 했죠.

Q :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A : 기록은 제가 고덕수변생태복원지에서도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작업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글 쓰는 일을 좋아해요. 모니터링하는 동식물의 변화상을 글과 사진으로 매일매일 기록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경 활동 영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도 적용을 한 거죠.

아카이브에도 층위란 것이 있고 각 층위마다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활성화된 마을공동체와 활동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과정과 역사를 10년, 50년 등 일정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삶의 단위로 나누어 아카이빙을 할 수도 있구요.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25개 자치구에서 최초로 마을기록가라는 활동가를 두고 운영하면서 마을기록에 대해 몇 달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서울기록원에 답사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강동의 정체성을 지리적, 인문사회적, 자연생태계적, 역사적 관점 등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근현대과정을 거쳐온 주로 60~80대 어르신들까지 인터뷰를 해서 그 안에 담긴 지역의 정체성을 키워드로 추출해 마을기록집을 펴냈어요.

Q : 강동로컬랩 사업 외에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까요?

A : 강동구에서 NPO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서 강동구 PM을 맡고 있는데, 제 역할은 쉽게 말하면 센터와 강동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강동구의 시민사회 안에는 마을넷,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형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관심있는 의제와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강동구의 모든 활동가들에게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Q: 활동을 하시면서 지향하시는 바, 또는 바라는 사회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까요?

A :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면서 생물들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생물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모든 생물 종들이 어울려 사니까 생태계가 유지되죠. 우리 사회도 모두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존중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한 문화와 인식이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채은순 운영위원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채은순 운영위원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 여성들의 커뮤니티

Q : <신나는여성자갈자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강동구에는 여성단체가 <장애여성공감>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지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잘 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죠. 그러다가 2018년에 제가 6명의 여성에게 여성주의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여성'은 신여성의 새로운 버전을 우리가 만들자는 의미이구요. '자갈자갈'은 돌이 부딪히는 소리인데 개개인 각자의 소리도 내고, 또 여럿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자는 의미로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이하 자갈자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현재 <자갈자갈>에는 운영진 6명과 회원 25명이 있고,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1개의 팀과 동아리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들의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고 또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들이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성들을 지지하는 그룹이 되자'고 하는 모토 하에 성평등 가치를 확장하자는 의미로 대중 강좌를 열거나 캠페인을 하고, 지자체에 성평등 의제를 제안하는 젠더거버넌스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저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사안들이 있을 때 연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은 글쓰기 모임 <몽실몽실>, 여성주의 공부모임 <한발 더>, 그리기 모임 <...그리고>, 바느질 모임 <봄 바느질>, 대안생활용품 모임 <사락사락>이 있어요. 바느질 모임은 필요한 물품을 어디선가 구입하는 대신 내 손으로 만들어 쓰는 활동을 하고 있고, <사락사락>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다양한 대안용품을 만들어서 쓰면서 환경과 관련된 공부도 함께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Q : 대표님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2005년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대구에서 쪽 살았는데 지역에는 제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내용 면에서도 보수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는 지역색을 심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아이쿱 생협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성환경연대 강좌를 알게 되고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 모임을 시작했고, 교육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이후 여성 건강 관련 사업을 3년 반의 기간 동안 맡으면서 여성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자조 모임을 자치구 여러 곳에 가서 짧게는 4주, 길게는 10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하다 보니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고 싶어졌어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같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것이 저와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곳에서 <카페 또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가 세월호 시절이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도 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2015년 <카페 또봄>을 열면서 커뮤니티도 생겨났어요. 처음에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만난 여성들이 <자갈자갈>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에요. 카페는 문턱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또 카페 운영을 병행하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카페를 통해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져서 집중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자갈자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 : <자갈자갈>이 만들어진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요. 대표님을 포함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 경험한 변화가 있을까요?

A : 일상에서의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Q : 동아리에서 함께 하는 일들이 지역에서의 공익활동으로 연결되었던 경험도 있을까요?

A : 여성주의 책모임에서 강동구의 소식지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강동구의 소식지 3개월 치랑 은평구의 같은 달 소식지 3개월 치를 비교, 분석해보는 작업이었는데요.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대중 강좌 형태로 열어 함께 강의를 듣고 난 다음, 책 모임에서 소식지를 비교, 분석해 보고서를 만든 후 자치구 홍보과를 찾아가 전달했고, <자갈자갈>의 제안으로 소식지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식지에 '50플러스'를 홍보하는 글과 함께 담긴 이미지에 표현된 여성이 소극적이고, 남성을 보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진 것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구경하는 존재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고맙다고 하셨죠.

글쓰기 모임 <몽실몽실>은 오는 11월이면 2년이 되어가는 모임인데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쓰는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1년간 저희가 쓴 글을 추려서 얼마 전에 문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작은 출간기념회도 열어 우리끼리 모여서 상대의 글귀 중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읽어주고 느낌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죠. 이제 두 번째로 사회에 질문하는 글을 써보기로 얼마 전에 기획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구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욕구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첫 번째 문집과 달리 두 번째는 만들게 되면 소장용을 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문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Q : 강동구 안에서 교류하거나 연대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A : 지역 활동이 중요하고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체가 만들어지고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은 저희의 자체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활동은 제가 하는 편인데요. 그것도 제가 제 마음이 따르는 대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연대 활동을 하더라도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작년에 마을 공론장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단체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갈자갈>은 '마을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성평등하게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녹지에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명일근린공원자연환경보존공동행동>에도 참여했었어요. 또 <오버슈데이>라는 강동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주간 행사에도 함께 했었구요. 마을 축제에 가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성평등 책을 제안하거나 <신나는여성자갈자갈>의 활동을 소개하고, 워크숍도 했어요. 인근에 한영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도 성평등 그림책 읽어주기와 월경컵 전시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Q : <자갈자갈>의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사실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안의 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성평등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중 강좌를 매년 열면서 마을에서 그 의제에 관심을 갖는 그룹이 바로 <자갈자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는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동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기록집을 만들기도 했죠. 또 활동을 통해서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만나면서 개선을 요구해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성평등 기금 조례도 개정되었고, 그동안 마을에서 거의 없었던 성평등 교육을 제안해서 금액이 적긴 하지만 예산을 잡아서 하기로 되어있어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A : 일단 저희에게 공간이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예요. 강좌를 열거나 동아리를 하려면 안전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저희 동아리가 5개이지만 공간이 없어서 어떤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공간이 있다면 모임에 정체성을 더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안을 해요.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경로당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듯이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민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 올해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A : <자갈자갈>도 사실 몇 개월을 그냥 지나오다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우리동네 젠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4번의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의 <여성, 생태, 지구를 생각하는 에코페미니즘> 강좌, <바다생각>이라는 그룹과 함께 하는 <햇살 바람 지구를 위한 움직임> 캠페인 워크숍을 이미 진행했고, 나머지 두 번의 강의는 N번방 관련한 이슈를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 <젠더 감수성, 어떻게 키울까요>라는 주제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또 매년 저희가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얼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위험에 처한 순간에 얼어서 대처하지 못해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실전처럼 상정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소리도 질러보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어떻게 도망가면 효율적인지를 직접 해보는 훈련을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해서 매년하고 있어요. 올해는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기관,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해보고, 그곳에서 더 필요하다 싶으면 강좌를 기획할 수도 있도록 해보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침입,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폭력을 주로 경험하는데, 청소년들은 N번방 처럼 온라인 상의 폭력이나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에 들어가서 직접 훈련을 진행할 경우, 그런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는 대응 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Q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요?

A : <자갈자갈>의 중요한 목표가 자기 결과물도 내고 우리의 결과물도 내는 것이어서 그런 작업을 계속해나가려고 해요. 동아리 별로 결과물을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리기 모임 <...그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시회를 다섯 번 정도 하고 마을에서 연합전시회, 단독전시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계속 그리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올해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운영진이 매년 1회 함께 가는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요. 첫째는 저희가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두 번째 해에는 예전에 성매매 집결촌이 있던 자리에 성평등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 전주>라는 곳에 가서 전시회와 공간도 둘러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임을 계속 꾸려나가기 위해서 사례도 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계획을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이유로 서로를 소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비전을

매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더라도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같이할 때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Q : 새롭게 다뤄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나요?

A :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에서의 여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천호동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요.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을 닫았어요. 여성이 억압받았던 역사의 현장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기록을 통해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소나의집>이라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보려고 해요.

더불어 저는 젠더거버넌스 주관 단체인 <풀뿌리여성주의네트워크 바람>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도 스스로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단체를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요. 저 역시 그런 곳에서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하고 <자갈자갈>이 그분들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데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해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지향하시는 바나 바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을까요?

A : 여성들이 일하는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양성평등 기금 때문에 담당자랑 갈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기금에서의 인건비 책정 때문이었어요. 강사를 섭외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단순인건비라는 항목으로 평가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에는 그냥 그 항목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생략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담당자랑 최근에 크게 갈등이 있었고, 현재는 사업내용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저는 지워지는 여성들의 일, 역사를 누군가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자갈자갈>이 했으면 좋겠고, 그것 안에 각자의 역사도 담기면 좋겠어요. 저 역시 저도 활동 안에서 제 개인 이야기도 기록하고 또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요.



초록바람 | 문영란 (전) 대표
(현)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초록바람 | 문영란 (전) 대표 (현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운동

**Q : <초록바람>이라는 단체를 만드셨고, 올 6월까지 대표로 계셨어요.
<초록바람>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요?**

A: <초록바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산은 우리 동네 산이다’ 라는 모토로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을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생태보전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강동지역 곳곳에 ‘바람’처럼 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초록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초록바람>은 2005년 아동을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어요. 당시 여성환경연대에서 진행했던 강동구 역사 기행 프로그램에 한 번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참가자 중 한 분이 본인은 시골에서 살아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아이들은 그러한 정서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때 참가했던 팀이 지금 <어린이책시민연대>의 전신인 <동화읽는어른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죠. 이걸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연령 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는 아이들의 엄마들과도 함께 했으면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머니들 교육도 해드리고 함께 공부도 하면서 <수영산 자연학교>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왔어요. 2013년에는 모임을 시민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식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 생태자 안내 교육을 받으면서 환경 문제까지 조금씩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게 됐죠.

Q : <초록바람>이 강동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명일근린공원자연보전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명일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무산시키면서 녹지를 지켜냈다고 들었어요,

A : 도서관 건립은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었고, 부지는 테니스장이 있던 곳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숲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죠. 그 주변 녹지는 비오톱 2등급 지역으로 보전돼야 할 생태 서식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원의 일부인 2~300평 정도만 사용하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구에서 그곳에 소위 명품도서관을, 그리고 원래 부지 후보였던 테니스장에는 수영장이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하지만 숲에 건물을 짓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들어오면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건물이 들어서면 땅에 물이 다 빠지면서 건조해지고 몇 년 안에 생태 환경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 녹지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녹지가 훼손되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작돼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예요.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것을 법에서 20년 기간을 두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7월 1일인 거죠.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강동구의 수영산도 작년에 구에서 그나마 많이 매입을 해서 50% 정도가 사유지이고, 고덕산은 약 80%, 일자산은 50% 이상이 사유지인데요. 땅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강동구는 지금도 녹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공동행동을 통해 앞장서서 녹지를 지켜야 할 구청이 지역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고, 또 주민들이 녹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고, 기자회견이나 구의원, 시의원과의 면담도 진행했죠. 구청 웹사이트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매일 게시글도 올렸어요. 그 결과 원안대로 테니스장 부지에 도서관과 복합시설을 함께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Q : 결과를 받고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A : 숲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시위할 각오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운동을 하는 동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아이도 다 키웠고 저 스스로도 살 만큼 살았지만, 지금도 환경 운동을 하는 건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오히려 가장 반대가 심한 분들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었어요. 결정이 난 이후에도 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시선들이 있었죠. 젊은 부모들이 녹지의 소중함보다는 당장의 편의를 앞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공감대를 얻고, 또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생긴 듯해서 마냥 기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녹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데 뭉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운이 좋기도 했구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데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구청에서는 그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포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연대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지역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들의 모임, 단체 등을 발굴해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 말씀하신 대로 편리함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고민되시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A : 지금도 도롱뇽 웅덩이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궁금해하시죠. 생태 환경은 소중하니까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은 누리고 싶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 추후에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까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계속 얘기는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Q : 그 밖에도 활동가로서 참여했던 공익활동, 사업 중 대표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 2008년 즈음 ‘수영산 자연학교’ 시절 아이들과 함께 도롱뇽 연못을 보전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수영산 웅덩이 주변에 현사시나무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불량수종이라고 다 제거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구청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나니 도롱뇽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았죠. 그래서 수영산 자연학교 아이들이 “도롱뇽을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구청에 보냈어요. 구청은 메시지를 받고 도롱뇽이 산란하는 4월 한 달간 인부를 두고 물을 운반해 연못에 물을 대었고, 도롱뇽은 그때 무사히 알을 낳았어요. 이후 소생물 서식공간으로 조성했죠.

제가 강동 마늘넛 ‘동동’ 대표를 하면서 했던 ‘마을과 여성’이라는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아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 단위에는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마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남성들도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다양한 강좌를 진행했어요. 꼭 그 강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여성의 리더십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Q :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A : 고덕 세종 공동 대책 위원회라는 협의체 안에서 <초록바람>과 <생태보전시민활동>이 연대해 땃밭이 이주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기록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덕지구에 상업업무시설,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강동구의 가장 큰 땃밭이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SH 공사,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땃밭이 서식지 일부는 보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그 곳에 살고 있는 땃밭이를 포획해서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키는 활동도 했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Q :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현재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력을 넓히고 관계망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고덕천 관련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던 팀들 중 고덕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만든 공동체예요.

고덕천은 지역의 중요한 생태 자원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인데 행정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과정이 없는 상태로, 정치인들은 실적을 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도 만들고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모임을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자치나 협치의 개념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해요. 작년에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이 되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지원하는 일을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Q : 향후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려는 의제나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다양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임도 만들고 또 어떤 의제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도 해 보고 싶어요. 사실 작년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전해 보고 싶어요.

Q : 활동을 하시면서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바라는 사회 변화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요즘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언론이든 어디든, 주변에서 어떤 단어를 자주 듣게 될 때는 그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서로 대화를 잘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면 답은 결국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이해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운동처럼 그리고 문화처럼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 운동 측면에서는 우리가 욕망에 대한 절제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욕망은 소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절제하는 게 쉽지 않죠. 에너지도 음식도 일상에서 과잉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절제할 수 있으면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강동 | 송문식 (前) 이사장
(현)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장

함께강동 | 송문식 (전) 이사장
(현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장)

지역단체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강동 시민사회의 든든한 지원군, 송스타

Q : 강동 지역 활동가로서 시민사회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활동 계기가 궁금해요.

A : 이끌어 왔다는 건 과한 말씀이네요. 긴긴 스토리를 오랜만에 꺼내네요. 강동 지역을 무대로 시민사회에 발을 디딘 것은 2006년이라 소개하긴 하지만, 활동에 영향을 준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1984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던 해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같은 반에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 집에 놀러갔는데,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5.18 민주항쟁의 기록물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전라도 분이셔서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죠. 집안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지만, 방학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5.18 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찾아 읽어가며 민주 사회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87년, 돈을 벌기 위해 방독면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공장에 취직했어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열아홉의 나이로 노동조합쟁의 부장을 맡기도 했고, 업무가 끝나면 시청 광장에 나가 민주화 운동, 그해 겨울에 대통령 선거운동 등에 적극 구경을 다니기도 했지요. 제 활동의 동력과 에너지는 20대가 되기도 전에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강동구로 이사를 왔어요.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고, 시작한 장사도 잘 안됐죠. 그 때 관심을 갖게 된 분이 바로故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2002년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노무현을 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노사모)>이 구성됐고, 강동 노사모 회원으로 (이후에 대표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때 처음으로 강동이라는 지역사회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불개미라는 축구단 활동도 함께하고 이후 시민들이 창당했던 개혁당 지역사무국장을 역임했고,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강동 노사모와 개혁당은 형식적으로 활동을 접게되고 이 분들과 뭘 할까 고민 하다가 사람들이 있으니 봉사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논의 중에 기존에 활동하던 회원이 속해 있던 봉사단체 <해뜨는집>의 저소득층 집수리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봉사를 시작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뜨는집>도 법인 단체 대표로부터 상근 활동가직 제안을 받게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던 시기였고, 가족들도 적극 응원해줌으로써 활동을 시작하게 됐지요. 2006년 8월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에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를 위한 풀뿌리 활동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과 다르죠. 다른 활동가 분들은 주로 학생운동, 지역 운동을 통해 활동가로 성장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활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저만의 어떤 철학을 형성하는데서는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차차 소개드리겠지만, <은평시민회> 최순옥 대표님 강양숙 사무국장, <북부시민회> 박운정 사무국장, 활동가 분들로부터 열린 시민사회에 대해 배웠고요, 지역사회 운동에 있어서는 <위례시민연대> 최영선 사무국장, <한살림> 김순규 사무국장에게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2006년 시민사회에 들어와 처음 네트워크를 함께 한 단체는 천호동에 거점을 두었던 <위례시민연대>였어요. 당시 <위례시민연대>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아주 각광받았죠. 사업의 내용도 아주 다양했어요. 헬프에이지 사업과 지역 연대 사업, 지역 단체 인큐베이팅 등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최영선님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강동 예산분석 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였고, 추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로 모습을 바꾸면서 4년간 대표활동을 했어요. 강동구 주민들 중심으로 의정 감시, 행정감사(모니터링), 지역현안 발굴 등 네트워크의 주요 역할과 활동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강동이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로 <강동시민연대>와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가 대표적이었어요. 그 외에는 한살림, 위례시민연대,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등 의제별 단체가 있었죠. <강동시민연대>와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는 한 뿌리에서 시작하긴 했으나, 서로 다른 활동을 지향하면서 분리됐어요. 저는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에 들어가 조직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2010년 당시만 해도 단체 후원금이 100만원 내외정도 였는데, 제가 퇴임할 때쯤 후원금이 몇배로 늘어났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단체의 활동이나 주민들로부터 받는 신뢰도가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죠.

위와는 별개로 2010년 <CNM 희망연대>라는 케이블 방송사가 노조의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청소년 지원을 하고자 했어요.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이하 키움넷)> 대표를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사업도 지원했어요.

2011년도로 넘어가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혁신 정책을 시작하죠. 이 때 지역 마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지역 내 연대라고 하면 서로 다른 입장만 내세웠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이라는 지역으로 묶어내니 갈등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1년간 준비해서 2012년 12월에 <강동 마을넷 동동>을 창립하고, 초대 운영위원장, 이후 대표를 맡았어요. 20개 이상의 마을단체들이 모여 민간 네트워크를 이뤘고 강동구와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어요. 그 때 시작된 ‘마을 상담실’, ‘마을 지원실’ 이예요. 이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금은 각 지역별로 마을센터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활동이 많아지면서 든 고민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였어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해,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 <협동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무엇이든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어요. 사회적경제조직의 증가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위탁받아 지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꾸준한 논의 끝에 사회적 협동조합<함께 강동>을 출범했어요.

2006년부터 활동 내용들을 소개드리긴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 물으신다면 ‘조직화’와 ‘연대활동 활성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기억하는 2006년 당시의 시민사회는 몇몇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특이점으로는 <한살림>이 생명, 농촌, 밥상 즉, 3대 살림을 지향했는데, 플러스로 지역살림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강동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2006년, 제가 등장하면서 개별적으로 미약하게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을 조직화하고 인큐베이팅하여 경제적 독립성을 지켜주고,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면서 살아있는 강동 시민사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Q : 강동 시민사회 역사가 곧, 위원장님의 삶이기도 하네요.
많은 단체를 만드시고, 이끄셨어요.
단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A : 개인적으로는 사명이 있어요. ‘수권능력을 갖춘 시민의 조직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향해요. ‘조직화’와 ‘연대활동’이 중요한단 이야기예요.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주먹구구식의 조직 운영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자금관리 서비스 CMS를 만들고자 참 애썼어요. 쉽게 말해 후원 시스템을 만들고, 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걸 말해요.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돼야 구성원들도 잘 뽑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연대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아주 기본 중 기본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후원금 마련 체계만 만든다고 후원금이 들어오진 않겠죠. 제가 참 공들여 열심을 다했던 것이 소식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후원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꾸준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소통을 만들고, 활력을 얻는 거죠.

연대사업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지 못하는 지역사회 현안이 많아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열린사회’고, 그 열린사회를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강동구 내 장애인 삶의 질을 낮추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들과 함께할 때 그 목소리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한 살림을 비롯해 기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때, 문제 개선이 빠를 수 밖에 없어요. 먼저 소개드린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가 이런 연대 활동을 계속 발굴하고 이어오고 있지요.

연대를 한다는 것은 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여러 단체가 모이는 걸 의미해요. 작은 단체의 힘은 작을 수밖에 없고, 큰 단체의 힘은 클 수밖에 없죠. 함께함으로 얻은 성과는 기여한 힘만큼 나눌 수 있지 않아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이기에, 이 점을 간과하면 안돼요. 연대의 기본입니다.

Q : 15년 가까이 지역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최근 광역으로 무대를 옮기셨어요.

A : 앞서 말씀 드렸던 <마을넷 동동> 활동으로, 지역 단체들과 강동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강동구의 행정적인 일들에도 관여하게 됐어요. 특히 강동구청장 공약 평가단 단장을 맡게 되면서 구청장 평가를 선진적으로 운영했어요. 또 다른 지역 마을넷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광역 단위의 활동들을 조금씩 하게된거죠. 자연스럽게 지역이슈보다는 광역의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강동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내려놓고 <열린사회시민연합> 본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2017년, 서울시 협치전문위원으로 임명받아 10개월 활동을 이어갔고, 2018년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또 옮기게 됩니다. 주민자치, 협치, 지역에 관련된 자문과 제언들을 꾸준히 제공했고요. 2019년에는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의 협치분과위원장으로 서울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 앞으로 새롭게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자 하시는 의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A : 2006년에 시민사회 활동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강조했었어요. 시민사회에서 15년 가까이 몸담으면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구/시의회의 역할은 또 다르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됐죠. 지금까지 권력을 빌려 써왔다면, 이제는 만들어보려고 해요. 생활정치 모임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향을 정확히 하고, 지향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구의회도 들어가고 구청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도록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예요. 그리고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대 할것인지는 함께 풀어여할 숙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저는 '참여'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참여할 때, 지역과 사회는 변한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참여를 촉진하거나 활동가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생활정치모임 등을 구성해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진 출처_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강동팻 | 이진영 대표

강동팻 | 이진영 대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성장해 또 다른 변화를 꿈꾸는 청년 활동가

Q :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대학에서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 선배들과 함께 하고 싶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극을 하는 학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회문제와 현상에 대해 대본을 쓰며 근현대사와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만나면서 재미를 느꼈죠. 그러던 중 2002년 노동절 집회에 참여했는데 알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접하며 이것이 진짜 세계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학회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지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반미 촛불시위를 계기로 근현대사와 정치 활동에 대한 스터디 활동을 하며 이를 업으로 삼아 활동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저도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시 60~80만원에 불과한 시민활동가 급여로는 생활이 안 될 거 같아 바로 현장에 뛰어들지는 못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영어학원 강사를 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환멸감을 느껴 고민하던 중 추천에서 떨어져 워킹홀리데이도 못 가게 되었지요. 그러다 희망제작소 인턴 공고를 보고 지원해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겁게 버겁게 느껴졌던 노동문제보다 나한테 적합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안적 활동을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복학했는데 커리큘럼이 없어 교수님께 대안 사회, 경제 과목을 개설을 요청해 공부하며 희망제작소 펠로우 활동을 했어요.

희망발전소에서는 소기업 발전소 부서에서 일하며 ‘착한’ 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마이크로크레딧 후원이 철회되며 사업 진행이 중단되게 되었어요. 희망제작소를 그만두고 논문을 쓰며 쉬던 중 아파트 공고판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가보니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어요. 반년쯤 이곳에서 일하다 희망제작소가 위탁한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옮기게 되었지요. 당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된 시기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청춘의 대나무 숲’이라는 청년 인문학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지원조직 성과에 대한 보람이 떨어지고 조직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느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강동팻의 시작이었어요.

Q : 강동팻이 어떤 단체인지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강동팻은 2014년 마을공동체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공간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화를 고민해 왔고, 2019년 말 협동조합이 되었어요. 강동팻을 만든 이유는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을 많이 찾고 싶어서였어요.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필요했고 사업적 완성도도 필요했어요. 명확한 일감을 만들어 일하고 이를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고려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의 옵션이 되었으면 했어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사람과 커뮤니티를 모으고 공간을 운영하고 공모나 용역 사업에 참여해 신규 사업들을 해 왔어요. 지역사회와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 네트워크 활동도 해 왔어요.

2020년 개정된 직업사전에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군이 정의되어 추가되었는데요. 변화가 느껴지는 지점이라 생각해요.

Q :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활동의 키워드가 궁금한데요.

A : 제 활동 키워드는 ‘변화와 적응’이에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키워드가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쳐있고 다중적 주제들이 변주되는 현장 가운데 제 마인드와 행동을 바꾸고 빠른 호흡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고인 물이 되고, 짧은 끈대가 되어 버려요. 변화나 갈등,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당연한 것이고 적응하면 된다는 생각이 매달, 매년 바뀌는 상황 속에서 강동팻의 활동을 이어오게 했어요.

10여년의 활동을 하며 이 키워드는 갖게 된 것이 제 스스로에게도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굳은 심지와 사명감을 끈게 세우고 가야 한다는 생각, 융통성이 없었던 완벽주의, 강박과 고집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디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려놓고 바꾸니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Q : 강동팻의 대표적인 활동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청년과 함께 하는 활동가로서 당사자성에 대한 물입감을 크게 높였던 계기를 만들어 준 프로젝트인데요. 2016년 청년 수당이 시작되며 청년 반장이라는 지역 파트너로 참여했던 사업이에요. 비록 복지부의 취소처분으로 첫 해 수당은 1달 지급으로 중지되었지만 프로그램들은 지속할 수 있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 만났던 청년들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이른바 ‘좀비’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을 만나며 청년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 전까지 공간을 운영하며 공유부엌 등을 통해 만났던 활동력 있고 적극적인 청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위기군 청년이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는 제 손을 잡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들으며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환기와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통계적으로만 접했던 청소년들의 존재와 저 활력 청년들의 실상을 접하고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정책개발과 전달체계에 몰입했어요. 강동에도 청년센터가 생기며 의제화되고 지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청년문제와 정책에 대해 제가 그 간 쌓아온 역량치를 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또 하나는 아쉬웠던 지점인데요. 공간을 오픈하고 매주 2~3회씩 계속되는 커뮤니티 활동에 소진되어 최소한의 활동으로 조정하던 중 2016년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협치 사업을 제안 받게 되었어요. ‘성찰적 자원 연구’를 키워드로 주기별, 시기별 이야기를 통해 의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당시 행정 자원이 현장에 많이 투입되며 시민사회와 분리, 갈등 요소가 생기며 혼란이 커졌던 지점이었는데 자원조사 관점에서 회고와 성찰을 통해 강동구 시민사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고 솔루션 없는 인터뷰, 연구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1년 만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이러한 성찰적 자원 연구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고 공통된 지역 의제를 발견해내고 끌고 갔다면 행정과의 갈등 완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요. 최근에는 성찰과 회고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당시엔 확신이 없어 설득과 주장이 강하게 하지 못했고 빨리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 속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강하고 단단하게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 미션이 동료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만드는 일인데요. 2017년부터 3년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일모작학교를 통해 마을 활동과 사회혁신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코칭단체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며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활동가 발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어요. 활동가의 재생산이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인데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었지요.

Q : 강동팻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A : 네, 활동가로서 비약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 거버넌스, 정책 제안, 협치, 젠더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조망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활동에 참여하며 융합되는 경험들을 통해 꺼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인사이트의 토대가 생겼다는 자신감이 얻었어요.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하며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도 느꼈고요.

Q : 지역 연대 활동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A : ‘함께강동’의 초기부터 이사 활동을 하며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법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위기와 갈등을 겪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 일과 발언할 수 있는 지점들이 늘어나며 몰입도 커졌고, 앞 세대들의 심적, 물리적 소진을 바라보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세대교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반면 이러한 과정 중에 외부에 대한 책임 요구와 흐름에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서울청정넷과 강동청정넷 활동을 하면서는 건강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경험했는데요. 특히 지난 해 정책 제안 TF의 퍼실리타이터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꼈고 청년들의 새로운 연대 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을일모작학교 기획할 때 지역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자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끌어냈는데요. 절실했던 ‘활동가 육성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니, 몰입과 활동력이 높아져 몇 시간씩 계속된 회의와 밤샘에도 재미있게 활동한 경험이 기억에 특히 남네요.

올해 청년정책거버넌스협력관 사업을 하며 동남권의 강동, 강남, 송파, 서초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자문하며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만날지 고민하고 있어요.

Q :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뤄보려는 의제가 있을까요?

A : 지역 내에서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저는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지만 마을 활동을 하며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지역에서도 젠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최근 코로나19 세미나에 참여해 기후 위기와 관련한 강의를 들으며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생태와 환경에 대해 더 공부하고 젠더와 환경의 두 가지 토대를 더욱 탄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어요.

Q :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지난해부터 공적영역의 사업진행을 목표로 청년센터 위탁사업 수탁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말지 못하게 되면서 강동팍은 자체 계획이 없는 가운데 뭘 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저는 협력관 사업, 연구 참여, 젠더 거버넌스 활동 등 개인 활동을 하며 역량을 채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의 방식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와 융합을 고민하고 있어요.중기적으로는 공모와 위 수탁 구조를 탈피하고 싶어 공간을 정리하고 시즌2를 고민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탈서울이 목표예요. 40살 되면 서울을 벗어나 갭이어족들을 위한 웰빙힐링센터를 마련해 진로 설계를 돕고 싶어요.

Q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이자,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반대가 있더라도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NPO 영역은 시민사회에서 희석되어 버린 조직이지만 비영리단체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 애드보커시 영역의 권익 옹호, 시민력을 끌어내는 역할이 있거든요. NPO만이 할 수 있는 확고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 정가람 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 정가람 대표

삶을 예술로, 마을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Q :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단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공연작가로 활동하다가 셋째를 낳으면서 일하기가 어려워져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력단절이 되었어요. 그 즈음 남편이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직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나가고 싶어 공식적인 외출을 위해 우연히 마을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리산의 산골 출신인데 교육을 들으며 어릴 적 경험했던 공동체를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사례들을 들으며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강동에서 마을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당시 이 지역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어요. 경제적인 제약이 아니더라도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문화적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로부터 고덕동의 '작은 도서관 함께 크는 우리 작은 도서관'의 공간을 소개받게 되면서 강동맘카페에 우리 동네에서 뮤지컬을 만들어보자는 글을 올렸는데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며 호응이 매우 높았어요. 마을 극단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도서관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지역 청년 활동가가 서울시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알려줘 지원서를 써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인극을 계획했는데 모이는 엄마보다 아이들 수가 많아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린이극으로 변경해 문화예술을 전공한 엄마들과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반반씩 모여 가내 수공업처럼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창작 단계에서는 육아로 작업을 잠시 쉬고 있었던 공연예술 전공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2014년 7월 '햇님달님'이라는 첫 공연을 동네에서 올리게 되었어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모임을 하면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의 참여가 많았는데요, 지역 활동가분들도 영유아 엄마들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모차 부대들이 몰려왔고 동원 관객이 전혀 없었는데 그 더운 여름에 100여명이 이상이 모였어요.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11월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 '팔죽할멈'이라는 두 번째 공연을 했는데 더 많은 관객들이 모여 밖에서도 볼 정도였어요. 이 공연을 통해 열린사회시민회에 후원금도 내고, 마을극단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 단체의 공동대표가 된 분도 있지요. 마을극단 밥상은 30대 중 후반 엄마들이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요. 엄마들이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협동조합, 가족 합창단, 그림책 모임 등에 참여하며 육아로 잠시 멈췄던 제 2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마을극단 밥상의 성과 중 제가 가장 부듯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예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나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던 중 2015년 1월 강구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생태계조성특화사업단과 '우리 동네 골목예술제'를 하게 되었어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다 모아보자고 했더니 40~50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을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달 동안 강동 전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진행했고, 당시 발굴된 인재들이 지역에 소개되었어요. 마을에 관심을 갖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생태계조성특화사업단과 '문화로 마을을 바꾸는 7가지 방법'이라는 아카데미를 기획해 진행하기도 했어요.

마을극단 밥상이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네의 크고 작은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게 되면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마을극단 활동을 넘어 2013년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들으며 꿈꿨던 협동조합을 시작해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우리 동네 골목예술제에서 만난 2명의 예술가와 마을극단 밥상 활동을 했던 3명이 1년간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에서 30년 된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이주가 시작되며 수십년 된 나무와 한 동네가 사라지는 것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우리마을 지원사업을 받아 저와 우리 동네 골목예술제에서 만났던 사진작가, 그림책 작가가 모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담은 <안녕? 안녕! 안녕!>이라는 첫 마을그림책을 내기도 했어요.

제가 공연이 하고 싶어 시작했던 공동체 활동이 마을에서도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지역의 이슈들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이야가 설립되게 된 거죠. 저희의 소설미션은 '모두가 누리는 마을문화'로 '찾아가는 맞춤형공연'을 통해 문화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예술가들은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를 누리고 지리적, 경제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없었던 시민들은 우리의 공연을 봄으로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는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학습동아리 지원금 3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별로 성장한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지역과 마을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기에 어떤 형태로는 마을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의 일원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가능한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Q : 협동조합의 이점도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 문화예술계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요. 또 예술가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문턱은 낮아요. 자존심이 챙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지켜지면 뭐든 하는 사람들이지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계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조합원들도 최소 경력 15년 이상의 큰 무대에서 날아다녔던 사람들인데요. 돈, 명예가 아니라 공연 자체가 중요하고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 때 수직적으로 간다면 이들을 제대로 세워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주인이 되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더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희 작업 자체가 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권과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 좋았어요.

제가 처음 사회적경제를 만났던 것이 협동조합 아카데미였는데 함께 책임지고 나눈다는 개념이 정말 좋았어요. 더디기는 해도 쉽게 깨지지 않고 공동체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어 저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형태라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편하게 함께 할 수 있구요.

6명으로 시작한 아이야는 현재 창작조합원 15명, 후원회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조합원이 될 수는 없어요. 2~3 작품을 함께 하며 상호평가를 통해 조합원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Q : 협동조합 설립 후에 활동들은 어떠셨나요?

A :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2017년 설립한 아이야는 2018년에 협업 활동에 대한 요청이 많아 외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수익이 생기는 등 좋은 점도 있었지만 소모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다시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예술여행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0개 지역 단체들과 2016년 만들었던 마을 그림책을 매개로 축제를 만들었어요. 강동구 7개 마을 골목 곳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로 만든 공연을 보고 몰랐던 지역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니 마을 주민들의 호응이 컸어요.

Q : 아이야에게 특히 의미 있는 사업이나 주요 작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지역 예술 활동으로는 신나는예술여행이 가장 특색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소셜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역 이슈에 예술가적 상상력과 주민들의 진정성을 담아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주제로 서로를 이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소소한 일상들의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데 1차원적인 아카이빙에 머무르지 않고 그림책을 만들고, 이것이 다양한 공연이 되고 공연을 본 내용을 가지고 체험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합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지역에서 꾸준히 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민감한 문제가 생겨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때 시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짧은 공연이나 몸으로 체험하는 워크숍을 먼저 하면 훨씬 부드럽게 접근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시도들을 지난해와 올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재건축을 주제로 사라지는 풍경에 대한 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제안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강동구의 역사를 매개로 고덕지구에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을 묶어 보려고 해요. 마을버스를 주제로 집단의 기억인 역사와 전설을 주제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강동구에서 마을플랫폼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했던 워크숍도 기억에 남아요. 당시 여성주의가 화두였는데 산부인과 의사와 소설가, 심리학자를 초빙해 강의를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무용 워크숍을 통해 몸으로 풀어내는 ‘야금야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예술가들의 연주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이며 새롭게 배우는 여성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2017년 하반기에는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조사를 해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주민들에게는 드로잉, 영상, 낭독극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했구요. 전시나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에게 기획과 대관, 세팅 등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연합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몰랐던 주민들이 수업을 받은 후, 동아리로 발전한 사례들도 생겨 의미가 있었어요.

또 구청에서 의뢰를 받아 청소년 연극교실을 진행했는데 참여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배우고 직접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공연을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최근 20대 청년 예술가들이 들어오며 청년 예술가들을 키우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Q : 아이야에서 계획하고 계신 공연과 사업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A : 처음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보면 좋을 공연을 만들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조합원 아이들이 크는 속도에 맞춰졌더라고요. 예술가 이전에 부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40~50대 갭년기·중년기 여성들을 위한 공연 등 아이야의 나이와 함께 자라나는 공연, 계층별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만들어 지역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구로구에 살 때에는 남편이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며 3시간을 써야 했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섬처럼 살아가다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일치해지니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술가들도 몇 시간씩 이동해 공연을 하다가 동네에서 공연을 하며 만족감이 높았어요. 2018년 첫 번째 정기총회를 앞두고 삶터와 일터가 일치시키는 지향점을 제시했는데, 아이야가 발전하면 지역별로 아이야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으로 양평에 경기 지사를 설립했어요.

최근 함께 하고 있는 20후반 ~ 30대 초반의 청년 예술가들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과 결합하고 일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 중 하나예요.

올해 새로운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1회 밖에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비대면으로 공연예술이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 정원사들을 주축으로 공동체 시민정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기록해 책을 내고 공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업을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앞으로 숲이나 정원 등 실외에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Q :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제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저는 주부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인권 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부각하기 위해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환경 단체와 연합해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네팔 채석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2021년 신작으로 워크샵 중이에요. 아동 권리 보호 NGO와 협력한다면 더 진심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가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천호프로젝트 | 조기옥 대표

천호프로젝트 | 조기옥 대표

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마을 활동가

Q : 사회적기업 <천호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천호프로젝트>는 ‘1000개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남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호동의 천호는 동의 이름을 지을 당시 지역 가구 수가 1000호 였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었던 거예요. 1000개의 가구가 모여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을 테고, 그 지역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유산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천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구천면로의 이야기를 직접 발굴, 취재하여 아카이빙했어요. 구천면로를 택한 이유는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의 옛 이름이거든요. 강동구를 지나는 많은 길들이 ‘양재대로’, ‘올림픽로’ 등으로 변경됐지만, ‘구천면로’는 살아남은 셈이죠. 구천면로는 광진교에서 시작해 상일동 상일초등학교까지 이어져요. 이 길을 따라 서있는 오래된 상점, 세탁소, 나무 등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으로 남겼지요. 아카이빙 작업물을 보고 중구 황학동에서도 지역 아카이빙을 의뢰해 주셨어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어요.

Q : 이야기를 발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A : 구천면로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길을 위주로 생활했던 주민들의 이야기, 또는 주민들의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겠죠. 기록에 남겨지지 않으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묻혀버릴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야 해요. 구천면로에 굉장히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는 명일동, 천호동, 암사동을 가르는 교차점에 서있어요. 왜 거기에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을까요? 오랜 시간 그 느티나무와 함께 해 온 주민을 찾아

그 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나무의 모습을 찾아냈어요. 그러다가 그 느티나무 옆에 서있는 다른 느티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되죠. 옆에 있는 다른 느티나무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보이진 않는데, 고덕 주공아파트 재건축 당시, 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를 잠시 이 곳에 옮겨놓았다고 해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개발 역사도 되짚어 볼 수 있죠.

아카이빙 되는 이야기는 관에서 기록하는 역사와는 사뭇 달라요. 행정적으로 기록된 구천면로의 기록을 보면 구천면로가 처음 생겼던 날짜, 구천면로에 살았던 주민의 수, 주요 관공서의 위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만, 구천면로 중심으로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천호프로젝트>의 아카이빙이 관의 기록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과 관의 기록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두 기록 모두 가치 있는 기록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Q : 구천면로를 따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A : 5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셨다는 분을 만나러 갔어요. 나이가 정말 많으셨는데 그 분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금방 친해졌지요. 제가 사진기를 들고 있었는데, 이 어르신께서 영정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그 분들의 모습을 찍어 전달 드렸어요. 어르신과 소통하면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세요. 어르신 사진을 찍던 날에 지나가던 경찰 두 분도 당신들의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곳에서 그 분들과 함께한 시간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천호프로젝트>를 왜 하나고 물으신다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걸요.

Q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양성에도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A : 2017년과 2019년에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강반장’으로 활동했어요. 영화 ‘홍반장’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영화를 보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길 때 홍반장이 등장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잖아요. 강반장도 강동구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예요.

사실 저는 2013년까지 출판사 <숲과 나무>에서 편집자로 근무했어요. 퇴직 이후에는 성내동의 이야기를 발굴하고자 기록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 작업에 대해 알게 됐고, 저에게 성내동 강풀만화거리 취재를 의뢰해주셨죠. 그렇게 인연이 생겼지요. 당시 ‘강반장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던 센터 담당자가 강동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목했고, 강반장 자리를 제안해주셨어요. 그렇게 강동구에 20년 넘게 살고 계신 분들 세 분과 강반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강반장으로 활동하면서 관내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간의 교류가 많아졌어요. 강반장으로서 조직 간의 연대나 협력도 장려했고,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도 많이 했죠. 성공한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은평구에서 동네빵집협동조합이 조직됐고, 운영도 성공적이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강동구에서 빵집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보고자 했어요. 다섯 분의 대표님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고, 간담회도 하고, 타 지역 협동조합 현장에 방문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결국은 협동조합 설립이 성사되진 못했어요. 2017년의 아쉬움을 잊지 않고, 2019년 다시 도전해봤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소규모 빵집을 운영하다 보니, 대표들이 직접 빵을 굽고 판매하고, 매장관리까지 담당하시다보니 사실상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어렵더라도 협동조합이 결성됐더라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좀 작아지지는 않았을까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서울시가 '강반장 프로젝트'를 좋게 평가하면서 각 구마다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어요. 강동구의 경우 '강반장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 후속사업으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강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같은 업종끼리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골목상권을 지켜가는 사례들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요.

Q :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A : 네 맞아요. 2012년부터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장려했어요. 출판업에서 편집자로, 사진작가로 경험을 풍부히 쌓아왔다보니, 기록에는 자신이 있었죠. 2013년 쯤, 은퇴 후 내가 살고 있는 강동구를 들여다 보는데 마을 미디어 매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담>이란 이름의 마을 잡지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사업에 공모해서 펴냈어요.

마을 단위의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 내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들이 많은데, 정작 이 활동들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매체가 없다면 마을의 활동들이 성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공영 방송이 있지만,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주진 못하잖아요. 강동구의 이야기는 강동구의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런 매체가 없거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올해 7월에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디어 운영을 시작한 5개의 단체가 모여 네트워크를 발족했어요. 영상으로 강동구의 소식을 전하는 <ON마을N>를 만들고, 마을담, 강동FM, 열린사회 열린미디어, 보이는 라디오 가래떡 등의 개별 미디어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거죠. 새롭게 강동구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1인 방송이 대중화되고 있는 현재이지만, 마을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연대와 협력을 빼 놓을 수 없어요. 마을활동의 본질은 연대와 협력이니깐요.

Q : 새롭게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 의제가 있으신지요.

A : 올해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할 때는 하루를 주로 일터에서 보내느라 강동구는 퇴근 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어요. 은퇴 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면서 젠더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육아와 공부를 모두 게을리 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이 친구들과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여성임에도 성 감수성이 너무 낮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덕분에 '여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성인 제 여성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지요.

지금 돌아보면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젠더 감수성이 발달하기는커녕,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무조건 남성처럼 되어야 한다는 강박 의식이 있었고, 경쟁을 할 때도 여성이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조차도 저의 이런 성 감수성에 의아한 적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성 감수성이 길러진 지금은,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쾌감이 생기고 상황과 문제를 인지하게 돼요.

강동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신나는여성 자갈자갈>에서 하고 있는데, 강동구의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보니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요. 활동가가 많지는 않지만, 힘을 보태 차별 없는 강동구, 아니 내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2020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발간자료

자료집(4종)

- 1) 공익활동가역량강화
- 2) 예비활동가NPO학교(NPO클라쓰)
- 3) 단체운영역량지원
- 4) 동남권NPO사업지원

보고서(2종)

- 1) 동남권NPO현황조사 및 생태계 맵핑 연구보고서
- 2) 동남권NPO활동 아카이빙 결과보고서

활동보고서(1종)

- 1) '동남권NPO연결을 경험하다.' (2020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활동보고서)

기록집(2종)

- 1) 동남권NPO공론장 기록집
- 2) '동남권 50인 공익활동가의 또다른 이야기'- 아카이빙 기록집

영상(5종, 17편)

- 1) 동남권NPO지원센터 홍보영상(1편)
- 2) 개소식행사영상(1편)
- 3) 개소식축사영상(6편)
- 4) 개소식축하영상(1편)
- 5) 동남NPO컨퍼런스영상(8편)

동남권 공익활동가 50인의 또 다른 이야기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위정희
연구·기록 (주)이노소셜랩
발행처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057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5,3층
전화 070-7714-8141
블로그 https://blog.naver.com/sse_npo
이메일 support@ssenpo.kr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사)커뮤니티허브공감(이사장 이의영)에서 수탁운영합니다.
-since 2020.3.6.

센터장 위정희, 네트워크 팀장 공병각, 홍보 강지영, 교육 신미경, 회계총무 정해빈,
공익지원활동가 서지영, 최은희, 김희선이 함께 지원활동 하였습니다.

